

2020년도 문화재위원회

## 제1차 순계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0. 1. 21.(화) 14:00
- 참석자 : 신안준(위원장), 강동진  
권기혁, 김연희, 김이순,  
김종헌, 목수현, 안창모,  
오용섭, 윤 균, 추미경 (11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 □ 고지사항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 근대문화재분과 제1차 회의 안건 목록

## 【심의사항】

1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배수로 정비공사	
2	등록문화재 제292호 「경주 우안 양수장」 현상변경(양수장 이전)	
3	2020년 근대문화재 국고보조사업(보수정비, 재난안전) 추진 보고	
4	「한인애국단원 관련 문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5	「이교재 임시정부 문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검토사항】

6	「제주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7	「세종 부강성당」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8	「부산 나병원기념비」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9	「아리움 사옥 건축 도면 및 관련 서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 【보고사항】

10	2019년 제1차 근대문화재분과 소위원회 결과보고 - 사적 제287호 「인천 답동성당」 주변 현상변경(변경허가)	
11	「국가등록문화재 영문 명칭 표기(안)」 보고	



# 심 의 사 항





## 1.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배수로 정비공사

### 가. 제안사항

서울 서대문구 소재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사적지 내에서 배수로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사적지 내에서 배수로 등을 정비하고자(2019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하는 사항이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현저동)
- (3) 신청내용
  - 대상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현저동)
  - 사업내용 :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내 배수로 덮개 교체
  - 세부 사업내용
    - <공통가설>
      - 가설창고 1동, 소형공사안내판 설치 3개소
    - <배수로 정비>
      - 기존포장 해체(통행로 침하부분) 후 규사포장(174.96㎡)
      - 파손된 배수로 덮개 교체(w=560, 157m)

### 라. 현지 자문의견(2019. 12. 18.) : 문화재위원 ○○○·○○○

- 5개 계획안 검토 결과 5안. 기존 콘크리트 배수로 덮개를 “압연 디자인 그레이팅”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결정
- 포장과 그레이팅이 만나는 부분의 마감처리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업 구역은 예산에 맞게 설정하되 구간별로 일시에 교체를 시행하여 같은 구간에 두 가지 타입의 배수로 덮개가 설치되지 않도록 할 것
- 그레이팅의 디자인 시안은 배수로 특성 상 연속적으로 설치되는 것을 감안하여 문화재 경관과 어울리도록 하며, 색상은 주변 규사 포장 색상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 그레이팅 상부는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할 것
- 교체재의 표면은 반사되지 않은 재질을 고려할 것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 2. 등록문화재 제292호 「경주 우안 양수장」 현상변경

###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등록문화재 제292호 「경주 우안 양수장」의 이전을 목적으로 현상변경 허가 신청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주 우안 양수장」의 이전을 목적으로 현상변경 허가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참고사항: 2019년 제11차 문화재위원회(근대분과) 심의결과 아래의 사유로 '보류' 되어, 자료 보완 요청하였으며, 신청자가 보완 한 현상변경계획을 본 심의에 부의 함

#### [보류사유]

- 시설물을 이전할 경우 양수장 건물 뿐 만 아니라 주변 부대시설(시설설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전방안 제시 필요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우안 양수장 (등록문화재 제292호, '06.12.04. 등록)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2

(3) 신청내용

○ 대상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2

○ 신청내용 : 경주 우안 양수장 이전

- 우안 양수장 전체(바닥 및 기초 포함) 해체 → 해체 부재 자재적치장 설치 보관 → (이전대상지 부지 조성 완료 후) 우안 양수장 전체(바닥 및 기초 포함) 재설치

○ 주변 부대시설 (시설 설비 등) 이전방안

- 수문 재현 : 깊이=6.5m, Ø4.2m / 권양기 이건

- 수로 재현 : W=2.6m, H=1.3m, L=14m / 견치석 석축(H=0.8m)

※ 기존 취수관과 유출관은 이건공사 해체 시 원형 확인 후 원형대로 설치

라. 전문가 서면검토 의견(2020.1.16) : 문화재위원 ○○○

- 문화재의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하며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문화재 주변의 과도한 지형 변화, 높은 옹벽 설치, 경관 및 배수 여건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 보존 및 활용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의 발생이 예측되므로 이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를 이건할 경우, 양수장 건물을 중심으로 주변의 수문, 수로 등 부대시설도 함께 포함, 이건하여 양수장의 기본적 기능과 구성요소를 지속적으로 보존,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이건 계획은 양수장의 단순한 재현 보다는 보존, 복원을 기본 개념으로 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따라서 새로운 재료와 구법 보다는 기존 재료와 구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원형 재료와 기법은 최대한 보존, 유지되어야 함.

마. 의결사항

- 보류
  - 양수장 및 부대시설을 이전 재현하되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구체적인 원형 보존 계획 및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출석 10명 / 보류 10명

### 3. 2020년 근대문화재 국고보조사업(보수정비, 재난안전) 추진 보고

#### 가. 제안사항

2020년 근대문화재(근대사적, 국가등록)의 국고보조사업(문화재보수정비,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계획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2020년 근대문화재(근대사적, 국가등록) 국고보조사업(문화재보수정비,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함

※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대상 선정 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예산평가회의를 거쳐 사업 내용과 예산을 확정함

- 1차 평가회의 : '19. 7. 31.(수) / 평가위원 : ○○○, ○○○, ○○○, ○○○, ○○○
- 2차 평가회의 : '19. 11. 29.(금) / 평가위원 : ○○○, ○○○, ○○○, ○○○, ○○○

####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근대문화재과장, 안전기준과장)

(2) 사업기간 : '20년 1월 ~ 사업 종료 시까지

(3) 사업대상 ※ 국고보조비율(국비:지방비) : 사적 (7:3) / 국가등록문화재 (5:5)

- [근대문화재과] 문화재 보수정비 ▶ 상세목록: 붙임 1

문화재 구분	수량(건)	금액(백만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근대사적	16	2,639	1,847	792	
등록 문화재	부동산	114	17,157	8,579	8,578
	동 산	24	1,590	795	795
	근대역사문화공간	2	1,700	850	850
	소 계	140	20,447	10,224	10,223
<b>합 계</b>	<b>156</b>	<b>23,086</b>	<b>12,071</b>	<b>11,015</b>	

- [안전기준과] 문화재 재난안전(전기, 소방, 방법) 구축 ▶ 상세목록: 붙임 2

문화재 구분	수량(건)	금액(백만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근대사적	7	502	286	216	
등록문화재	12	1,048	524	524	
<b>합 계</b>	<b>19</b>	<b>1,550</b>	<b>810</b>	<b>740</b>	

#### (4) 사업추진방법

- 문화재청 : 국고보조금 교부, 사업지침 시달, 설계 검토·승인, 기술지도 등
- 지자체 : 설계도서 작성, 지방검토사업 설계 검토·승인, 사업시행, 사업 감독 등
- ※ 중요 사안은 단위 사업별로 문화재위원회 별도 심의 후 사업 시행

## 2020년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근대사적, 국가등록문화재] 세부현황

□ 총 156건 : 근대사적(16건), 국가등록문화재(140건)

(단위:천원)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20년 예산			비고
					국비	지방비	계	
<b>총 계</b>					12,070,841	11,015,241	23,086,082	
<b>서울 소계(29건)</b>					1,081,209	842,409	1,923,618	
서울	강남구	국가등록 제468호	명신여학교 태극기·현판 완문	명신여학교 태극기, 현판, 완문 보수 정비	4,500	4,500	9,000	
서울	강동구	국가등록 제466호	업복동 자전거	업복동 자전거 보존처리	5,455	5,455	10,910	
서울	도봉구	국가등록 제521호	서울 병학동 전형필기옥	문화재보수기동고르기,차양도장, 방비대미장보수,창호지,담장줄눈,대문기단 보수)	18,500	18,500	37,000	
서울	마포구	국가등록 제231호	서울 창전동 공민왕 사당	문화재보수기동고체, 보 보강, 미당 배수정비,대문보수, 분전반 이설)	24,000	24,000	48,000	
서울	서대문구	국가등록 제679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토마스홀	문화재보수(배수로 및 흙통,균열,창호,계단,돌담 보수)	41,000	41,000	82,000	
서울	서대문구	사적 제32호	서울 독립문	독립문 석재 손상 및 수리방안 연구용역	35,000	15,000	50,000	
서울	서대문구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보안과 청사 주변 보수정비 (지하층 조적벽 보수, 맨홀 보수)	31,500	13,500	45,000	
서울	서대문구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옥사 내벽미장 보수	70,000	30,000	100,000	
서울	서대문구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사전설계(구 보안과 청사 지붕 원형고증 및 복원)	42,000	18,000	60,000	
서울	서대문구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장애인경사로 설치 (6개소)	42,000	18,000	60,000	
서울	서대문구	국가등록 제506호	독립신문	독립신문 과학적 조사 및 보존처리 계획 수립	23,300	23,300	46,600	
서울	서대문구	국가등록 제507호	협성회회보	협성회회보 과학적 조사 및 보존처리 계획 수립	315	315	630	
서울	서대문구	국가등록 제508호	매일신문	매일신문 과학적 조사 및 보존처리 계획 수립	10,550	10,550	21,100	
서울	서대문구	국가등록 제511호	친목회회보 (親睦會會報)	친목회회보 과학적 조사 및 보존처리 계획 수립	5,750	5,750	11,500	
서울	서대문구	국가등록 제446호	일련의 검안경	일련의 검안경 케이스 보존처리	5,439	5,439	10,878	
서울	성북구	국가등록 제655호	서울 성북동 한국 순교복자성직 수도회 구 본원	문화재보수(방수 및 내부천정보수, 마루 보수, 축대 보수·식당 마루복원 제외)	50,000	50,000	100,000	
서울	종로구	사적 제213호	서울 우정총국	외부 단청공사	42,000	18,000	60,000	
서울	종로구	국가등록 제673호	서울 배화여자고등학교 캠퍼기념관	외벽 줄눈 및 도장 보수	33,000	33,000	66,000	
서울	종로구	사적 제171호	서울 고종 어극 40년 창경기념비	보호각 절빙통 복원 창경비권역복원정비계획용역	40,600	17,400	58,000	
서울	중구	국가등록 제267호	경운궁 양이재	문화재기록화사업 (3D스캔 제외)	20,000	20,000	40,000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20년 예산			비고
					국비	지방비	계	
서울	중구	국기등록 제267호	경운궁 양이재	정기 계측 모니터링	10,000	10,000	20,000	
서울	중구	국기등록 제412호	서울 신당동 박정희 기옥	문화재기록화사업 (3D스캔 제외)	20,000	20,000	40,000	
서울	중구	시적 제252호	서울 약현성당	지붕 동판 보수, 창호 및 출입문 도장	21,000	9,000	30,000	
서울	중구	시적 제253호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망루 보수정비	93,800	40,200	134,000	
서울	중구	국기등록 제3호	서울 이화여자고등학교 심슨기념관	창호 도장, 처마 보수	48,500	48,500	97,000	
서울	중구	국기등록 제480호	배재학당 피아노	배재학당 피아노보존처리	11,000	11,000	22,000	
서울	중구	국기등록 제484-2호	일제강점기 문자보급교재	일제강점기 문자보급교재(한글원본)보존처리 및 보관상자 제작	10,500	10,500	21,000	
서울	서울	국기등록 제687호	서울 앨버트 테일러 기옥(딜쿠샤)	딜쿠샤 주변 지형 회복 (지장물 철거 및 지형 정비)	300,000	300,000	600,000	
서울	서울	국기등록 제413호	서울 서교동 최규하 기옥	문화재보수(도장, 내부마루, 장판, 창호/외부평상, 기구보수 제외)	21,500	21,500	43,000	
<b>부산 소계(6건)</b>					<b>253,250</b>	<b>253,250</b>	<b>506,500</b>	
부산	남구	국기등록 제715호	부산 우암동 소막마을 주택	시전설계(원형고증, 보수, 전시 등을 위한 시전설계)	40,000	40,000	80,000	
부산	동구	국기등록 제647호	부산 구 백제병원	옥상방수 문화재종합정비계획(원형고증포함)	28,000	28,000	56,000	
부산	동구	국기등록 제330호	부산 수정동 일본식 기옥	문화재보수(천정, 창호, 대문기단보수/옥상누수방수)	67,000	67,000	134,000	
부산	동래구	국기등록 제753호	부산 구 동래역사	복원정비 설계	32,000	32,000	64,000	
부산	부산진구	국기등록 제416호	디젤전기기관차 2001호	o디젤전기기관차 과학적조사 및 보존처리 계획(설계) 수립 o디젤전기기관차보호시설설치	51,250	51,250	102,500	
부산	서구	국기등록 제568호	부산 경남고등학교 덕형관	구조정밀안전진단	35,000	35,000	70,000	
<b>대구 소계(2건)</b>					<b>224,700</b>	<b>96,300</b>	<b>321,000</b>	
대구	중구	시적 제443호	구 도립대구병원	지붕기와 해체 보수 및 외벽 세척	161,700	69,300	231,000	
대구	중구	시적 제290호	대구 계산동성당	창호 및 미장 보수 등	63,000	27,000	90,000	
<b>인천 소계(3건)</b>					<b>151,300</b>	<b>145,700</b>	<b>297,000</b>	
인천	중구	시적 제287호	인천 답동성당	지붕(흙통 포함) 및 창호 보수	9,800	4,200	14,000	
인천	중구	국기등록 제248호	구 일본우선(郵船)주식회사 인천지점	구조정밀안전진단	6,500	6,500	13,000	
인천	중구	국기등록 제427호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강당	문화재보수(지붕재, 천정재, 조명기구, 캐노피, 벽체 보수/도장)	135,000	135,000	270,000	
<b>광주 소계(2건)</b>					<b>470,000</b>	<b>470,000</b>	<b>940,000</b>	
광주	동구	국기등록 제94호	광주 조선대학교 본관	시전설계(지붕원형고증, 지붕 및 벽체 보수)	25,000	25,000	50,000	
광주	서구	국기등록 제681-1호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	누수 옥상 보수, 외벽 세척, 노후 외부 벽돌 및 창틀 보존처리 / 종합정비계획 수립(천주교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본관,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헨리관,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식당등)	445,000	445,000	890,000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20년 예산			비고
					국비	지방비	계	
<b>대전 소계(2건)</b>					<b>214,500</b>	<b>214,500</b>	<b>429,000</b>	
대전	유성구	국기등록 제334호	대전 수운교 본부사무실	외벽 미장보수	4,500	4,500	9,000	
대전	중구	국기등록 제643호	대전 대흥동성당	문화재보수(구조보강, 균열보수, 외벽 부조상 보존처리/ 내부 벽화 복원은 제외)	210,000	210,000	420,000	
<b>경기 소계(12건)</b>					<b>500,600</b>	<b>500,600</b>	<b>1,001,200</b>	
경기	고양시	국기등록 제592호	고양 흥국사 대방	구조진단, 보수 시전설계	25,000	25,000	50,000	
경기	구리시	국기등록 제891-3호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방화(方越燬) 묘소	문화재보수(석축 수목 진입로 정비, 잔디 식재)	65,000	65,000	130,000	
경기	수원시	국기등록 제597호	구 수원문화원	문화재보수(도장 제거, 외벽 벽돌 타일 줄눈 보수, 수지처리)	70,000	70,000	140,000	
경기	수원시	국기등록 제697호	수원 구 소회(小回)초등학교	문화재보수(부식미루 보수, 미당 원지형 복원)	55,000	55,000	110,000	
경기	양평군	국기등록 제594호	양평 지평양조장	문화재 해체보수	80,000	80,000	160,000	
경기	양평군	국기등록 제296호	양평 구 구둔역	문화재보수(창호, 도장면, 전기보수) 시전설계(내부보수 및 지붕원형복원)	35,000	35,000	70,000	
경기	양평군	국기등록 제296호	양평 구 구둔역	종합정비계획 수립	25,000	25,000	50,000	
경기	이천시	국기등록 제657호	이천 수광리 오름기마	기마보호 정비(사면 성토, 석축, 잔디 식재/배수로 구축)	30,000	30,000	60,000	
경기	의왕시	국기등록 제417호	파시형 증기기관차 23호	기관차 정밀진단 및 보존처리계획 수립	57,600	57,600	115,200	
경기	파주시	국기등록 제78호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강화유리난간 및 데크 설치	23,000	23,000	46,000	
경기	파주시	국기등록 제78호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증기기관차 차체 정밀진단	10,000	10,000	20,000	
경기	파주시	국기등록 제729호	파주 구 교하면사무소	문화재기록화사업 (3D스캔 제외)	25,000	25,000	50,000	
<b>강원 소계(9건)</b>					<b>545,000</b>	<b>545,000</b>	<b>1,090,000</b>	
강원	강릉시	국기등록 제457호	강릉 임당동성당	창호(코강-살리콘) 보수	5,000	5,000	10,000	
강원	고성군	국기등록 제143호	고성 합죽교	시전설계(구조안전 진단에 따른 교량 보수, 보강)	30,000	30,000	60,000	
강원	인제군	국기등록 제742호	인제성당	구조 안전성 진단 구조보수시전설계	22,500	22,500	45,000	
강원	철원군	국기등록 제160호	철원 수도국 터 급수탑	종합정비계획 수립	30,000	30,000	60,000	
강원	춘천시	국기등록 제161호	춘천 소양로성당	벽체 균열 보수 및 도장	12,500	12,500	25,000	
강원	춘천시	국기등록 제743호	구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춘천수련소	기록화	40,000	40,000	80,000	
강원	태백시	국기등록 제21호	태백 철암역두 선탄시설	선탄시설 구조 보수 보강	180,000	180,000	360,000	
강원	태백시	국기등록 제111호	태백 장성이중교	이중교 구조 보수 보강	210,000	210,000	420,000	
강원	화천군	국기등록 제27호	화천 인민군사령부 막사	문화재기록화사업 (3D스캔 제외)	15,000	15,000	30,000	
<b>충북 소계(14건)</b>					<b>1,418,397</b>	<b>1,418,397</b>	<b>2,836,794</b>	
충북	괴산군	국기등록 제354호	괴산중학교 구 본관	시전설계 (지붕 부분보수)	25,000	25,000	50,000	
충북	괴산군	국기등록 제144호	괴산군수 관사	관사(안채) 해체 보수	100,000	100,000	200,000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20년 예산			비고
					국비	지방비	계	
충북	옥천군	국기등록 제7호	옥천성당	정밀안전진단 사전설계(지붕, 벽체균열부)	40,000	40,000	80,000	
충북	음성군	국기등록 제566호	전기로	전기로 보존처리 설계	11,500	11,500	23,000	
충북	음성군	국기등록 제320호	국기표준 도량형 유물	도량형 유물(지류) 과학적 조사 및 보존처리 설계	47,500	47,500	95,000	
충북	진천군	국기등록 제58호	진천 덕산양조장	문화재보수(바닥, 외벽) 및 복원(주모실, 발효실, 제국실, 우물)	72,500	72,500	145,000	
충북	진천군	국기등록 제8호	대한성공회 진천성당	기와고르기	35,000	35,000	70,000	
충북	청주시	국기등록 제411호	국산 1호 항공기 '부활'	국산 1호 항공기 '부활' 정밀진단 및 보존처리	21,013	21,013	42,026	
충북	청주시	국기등록 제462호	대한민국 최초 항공기 (L-4 연락기)	대한민국 최초 항공기(L-4 연락기) 정밀진단 및 보존처리	23,470	23,470	46,940	
충북	청주시	국기등록 제666호	대한민국 최초 운용 전투기(F-51D무스탕)	대한민국 최초 운용 전투기(F-51D 무스탕) 정밀진단 및 보존처리	67,735	67,735	135,470	
충북	청주시	국기등록 제667호	국민성금 헌납기(T-6 건국기)	국민성금 헌납기(T-6 건국기) 정밀진단 및 보존처리	46,280	46,280	92,560	
충북	청주시	국기등록 제666호	대한민국 최초 운용 전투기(F-51D무스탕)	대한민국 최초 운용전투기(F-51D 무스탕) 및 국민성금 헌납기(T-6 건국기) 격납시설 설치	274,009	274,009	548,018	
충북	청주시	국기등록 제411호	국산 1호 항공기 '부활'	국산 1호 항공기 '부활' 및 대한민국 최초 항공기(L-4연락기) 격납시설 보수정비	39,390	39,390	78,780	
충북	청주시	국기등록 제683호	구 조선식산은행 총주지점	문화재 복원 및 보수	615,000	615,000	1,230,000	
<b>충남 소계(5건)</b>					103,885	103,885	207,770	
충남	공주시	국기등록 제472호	공주 제일교회	구조 모니터링	10,000	10,000	20,000	
충남	금산군	국기등록 제436호	금산위성통신 제1지구국 안테나설비	금산위성통신 제1지구국 안테나설비 보존처리 계획 수립	18,885	18,885	37,770	
충남	논산시	국기등록 제42호	구 강경성결교회 예배당	문화재 정밀안전진단	10,000	10,000	20,000	
충남	서산시	국기등록 제321호	서산 동문동성당	정밀안전진단 사전설계(보, 천정, 외벽)	35,000	35,000	70,000	
충남	서산시	국기등록 제338호	서산 동문동성당 상홍리공소	종합정비계획(원형고증 포함) 수립 문화재보수(본당괴종탑도장)	30,000	30,000	60,000	
<b>전북 소계(16건)</b>					2,125,000	2,125,000	3,594,000	
전북	군산시	국기등록 제183호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문화재보수(내벽 및 외벽 도장, 마루, 지붕)	35,000	35,000	70,000	
전북	군산시	시적 제545호	구 군산세관 본관	지붕보수	196,000	84,000	280,000	
전북	군산시	국기등록 제724호	군산 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	종합정비계획(원형고증 포함) 수립	25,000	25,000	50,000	
전북	군산시	국기등록 제677호	군산 둔율동 성당	사전설계(벽체 균열 보수)	10,000	10,000	20,000	
전북	군산시	국기등록 제184호	군산 해망굴	정밀안전진단	44,000	44,000	88,000	
전북	군산시	국기등록 제600호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건물 외벽 보수 정비	174,000	174,000	348,000	
전북	김제시	국기등록 제185호	김제 증산법종교 본부영대와 삼봉전	지붕 보수	55,000	55,000	110,000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20년 예산			비고
					국비	지방비	계	
전북	원주군	국기등록 제221호	원주 구 삼례양수장	건축물 보수정비(금속, 조적, 도장) 및 주변정비(배수로)	30,000	30,000	60,000	
전북	익산시	국기등록 제181호	익산 구 익옥수리조합 사무소와 창고	보수정비(내부 마루, 창호)	25,000	25,000	50,000	
전북	익산시	국기등록 제763호	익산 송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 수립, 근대건축자산 기초조사, 마을 학술조사	400,000	400,000	800,000	
전북	익산시	사적 제318호	익산 내비위성당	탐방로 정비 등	210,000	90,000	300,000	
전북	익산시	국기등록 제179호	원불교 익산성지	지붕 보수(대각천, 구정원)	35,000	35,000	70,000	
전북	임실군	국기등록 제188호	임실 오수망루	망루 보수(지붕, 내부시설, 창호 등)	20,000	20,000	40,000	
전북	전주시	사적 제288호	전주 전동성당	문화재보수(조적벽돌, 창호, 흙통 보수, 침탑 종탑 해체 보수, 수리보고서 포함)	742,000	318,000	1,060,000	
전북	정읍시	국기등록 제366호	정읍 상학마을 옛 담장	등록구역 내 담장보수(168m, 6개소)	109,000	109,000	218,000	
전북	진안군	국기등록 제191호	진안 강정리 근대 한옥	문화재보수(반자보수, 계단복원, 배수로 정비)	15,000	15,000	30,000	
<b>전남 소계(32건)</b>					<b>2,942,400</b>	<b>2,915,600</b>	<b>5,858,000</b>	
전남	고흥군	국기등록 제236호	고흥 구 녹동우편소	문화재보수(창호, 벽체 마감)	10,000	10,000	20,000	
전남	고흥군	국기등록 제75호	고흥 구 소록도갱생원 원장 관사	문화재보수(갈래반이, 창호, 벽체마감)	25,000	25,000	50,000	
전남	고흥군	국기등록 제68호	고흥 구 소록도갱생원 사무본관과 강당	문화재보수(복도 지붕부, 화장실 천정, 출입문)	20,000	20,000	40,000	
전남	고흥군	국기등록 제469호	고흥 순천교도소 구 소록도지소	문화재보수(사무동, 복도, 남사동, 부대시설, 배수로)	725,000	725,000	1,450,000	
전남	고흥군	국기등록 제70호	고흥 구 록도갱생원 식량창고	지붕, 벽체, 주각부 보수	25,000	25,000	50,000	
전남	곡성군	국기등록 제222호	곡성 구 삼기면사무소	건물보수(내부 천정 및 바닥 마감재, 외부 마감재 도장, 전기공사, 조명)	50,000	50,000	100,000	
전남	광양시	국기등록 제341호	운동주 유고 보존 정병옥 기옥	문화재 주변지반 원형 높이 회복	50,000	50,000	100,000	
전남	광양시	국기등록 제739호	광양 구 진월면사무소	사전설계(원형고증, 보수)	15,000	15,000	30,000	
전남	광양시	국기등록 제444호	구 광양군청	정밀안전진단	25,000	25,000	50,000	
전남	니주시	국기등록 제299호	니주 구 남평역	문화재보수(외벽 목부재 도장, 기단)	15,000	15,000	30,000	
전남	담양군	국기등록 제265호	담양 삼치천마을 옛 담장	담장 보수	23,500	23,500	47,000	
전남	목포시	사적 제289호	구 목포 일본영사관	마루 및 석축보수	46,900	20,100	67,000	
전남	목포시	국기등록 제340호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	문화재보수(출입문, 외부 목부재 도장, 기단) 종합정비계획(원형고증포함)수립	50,000	50,000	100,000	
전남	목포시	국기등록 제43호	목포 구 청년회관	건물보수(내·외부 창호, 출입문, 벽체)	20,000	20,000	40,000	
전남	목포시	국기등록 제29호	구 호남은행 목포지점	문화재보수(천장, 외벽타일, 담장)	35,000	35,000	70,000	
전남	목포시	국기등록 제696호	목포 정광정혜원	보수 정비 사전설계	60,000	60,000	120,000	
전남	목포시	국기등록 제513호	목포 천주교 구 교구청	교구청 보수	42,500	42,500	85,000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20년 예산			비고
					국비	지방비	계	
전남	순천시	국기등록 제123호	순천 매산중학교 매산관	문화재보수(지붕, 바닥) 및 배수체계 정비	310,000	310,000	620,000	
전남	순천시	국기등록 제224호	순천 별량농협 창고	문화재 보수정비(지붕, 벽체)	132,000	132,000	264,000	
전남	신안군	국기등록 제283호	신안 비금도 내촌마을 옛 담장	등록구역 내 돌담 보수(38.7m구간/내월리837번지 제외)	37,000	37,000	74,000	
전남	신안군	국기등록 제362호	신안 비금도 대동염전	염전 토지매입 및 보수정비	750,000	750,000	1,500,000	
전남	여수시	국기등록 제116호	여수 마래 제2터널	터널 내 위험낙석 조사, 제거	40,000	40,000	80,000	
전남	여수시	국기등록 제33호	여수 애양병원	사전설계(외벽 석재 및 줄눈보수)	12,500	12,500	25,000	
전남	여수시	국기등록 제170호	구 제일은행 여수지점	문화재 원형복원(외벽, 창호)	150,000	150,000	300,000	
전남	영광군	국기등록 제119호	영광 법성리 일본식 여관	문화재 인접 훼손담장 보수	15,000	15,000	30,000	
전남	영광군	국기등록 제678호	영광 청녕조씨 관해공 기옥	사전설계(장남덕 안체)	35,000	35,000	70,000	
전남	영광군	국기등록 제678호	영광 청녕조씨 관해공 기옥	사전설계(장남덕 중문채 및 곳간채)	15,000	15,000	30,000	
전남	영광군	국기등록 제678호	영광 청녕조씨 관해공 기옥	삼남덕 곳간채 및 문간채 보수	110,000	110,000	220,000	
전남	영광군	국기등록 제693호	영광 원불교 신흥교당 대각전	문화재 종합정비 계획 수립	25,000	25,000	50,000	
전남	영암군	국기등록 제368호	영암 죽정마을 옛 담장	등록구역 내 담장 보수정비(D, E, F구간)	47,500	47,500	95,000	
전남	장흥군	국기등록 제130호	<b>장흥 예양리 일본식 기옥</b>	문화재 창호 보수정비	10,500	10,500	21,000	
전남	함평군	국기등록 제118호	함평 월호리 일본식 기옥과 창고	사전설계(지붕, 창호) 누수부위임시조치	15,000	15,000	30,000	
<b>경북 소계(7건)</b>					1,242,000	1,242,000	2,484,000	
경북	영덕군	국기등록 제762호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 수립, 근대건축자산 기초조사, 마을 학습조사, 근대건축자산 아카이브 구축	450,000	450,000	900,000	
경북	영천시	국기등록 제254호	영천 구 화통교	사전설계(교량 보수보강)	10,000	10,000	20,000	
경북	영천시	국기등록 제50호	영천역 급수탑	종합정비계획 수립	15,000	15,000	30,000	
경북	예천군	국기등록 제571호	예천 윤우식 생가	사당 해체보수	85,000	85,000	170,000	
경북	청도군	국기등록 제618호	청도 신둔사 영산보탑 및 탑비	영산보탑 및 탑비 보존처리	20,000	20,000	40,000	
경북	청도군	국기등록 제293호	청도 이호우와 이영도 생가	토지 및 생가 매입	162,000	162,000	324,000	
<b>경남 소계(12건)</b>					683,600	683,000	1,367,200	
경남	거제시	국기등록 제356호	거제초등학교 본관	지붕부 및 외벽 방수, 기존 창틀 교체	175,000	175,000	350,000	
경남	고성군	국기등록 제258호	고성 학동마을 옛 담장	등록구역 내 토석담장 보수(95m)	39,000	39,000	78,000	
경남	밀양시	국기등록 제151호	밀양 교동 근대 한옥	사전설계(대문체, 협문, 담장, 마당)	15,000	15,000	30,000	
경남	신창군	국기등록 제281호	신창 남사마을 옛 담장	등록구역 내 담장보수(1~8구간)종합정비계획	70,000	70,000	140,000	
경남	신창군	국기등록 제260호	신창 단케마을 옛 담장	등록구역 내 담장보수(1,2구간)종합정비계획	78,000	78,000	156,000	
경남	양산시	국기등록 제617호	양산 통도사 지장암 미애미타어래삼존상	보존처리 계획수립(설계)	6,600	6,600	13,200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20년 예산			비고
					국비	지방비	계	
경남	의령군	국기등록 제365호	의령 오운마을 옛 담장	등록구역 내 담장보수( 502, 504, 520, 768-2, 525, 527번지)종합정비계획	100,000	100,000	200,000	
경남	진주시	국기등록 제35호	진주 문산성당	강당 보수정비(설계), 총량부 임시보강	25,000	25,000	50,000	
경남	통영시	국기등록 제734호	통영 향리공소	종합정비계획(원형고증 포함) 수립	20,000	20,000	40,000	
경남	통영시	국기등록 제149호	구 통영군청	지붕 기와보수	35,000	35,000	70,000	
경남	통영시	국기등록 제695호	통영 소변장 공방	종합정비계획(원형고증 포함) 수립	20,000	20,000	40,000	
경남	함양군	국기등록 제37호	함양 구 임업시험장 하동 함양지장	건물외관 보수(지붕, 외벽, 기둥, 기단부)	100,000	100,000	200,000	
<b>제주 소계(5건)</b>					<b>115,000</b>	<b>115,000</b>	<b>230,000</b>	
제주	제주	국기등록 제311호	제주 일출봉 해안 일제 동굴진지	동굴 입구 정비	20,000	20,000	40,000	
제주	제주	국기등록 제680호	제주 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육군 98병원 병동)	보수정비(전면 외벽, 지붕부)	35,000	35,000	70,000	
제주	제주	국기등록 제308호	제주 가미오름 일제 동굴진지	제선충 방제 탐방로주변식생정비	10,000	10,000	20,000	
제주	제주	국기등록 제308호	제주 가미오름 일제 동굴진지	진입로(데크) 보수	30,000	30,000	60,000	
제주	제주	국기등록 제716호	제주 43 수악주둔소	종합정비계획(원형고증 포함) 수립	20,000	20,000	40,000	

**2020년 문화재 재난안전 국고보조사업 [근대사적, 국가등록문화재] 세부현황**

□ 전기, 소방, 방범 분야(19건 : 근대사적 7, 국가등록 12)

(단위 : 천원)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분야	2019년 예산			비고
					국비	지방비	계	
<b>총 계</b>					<b>809,645</b>	<b>740,445</b>	<b>1,550,090</b>	
<b>서울 총계(8건)</b>					<b>324,500</b>	<b>292,500</b>	<b>617,000</b>	
서울	도봉구	국가등록 521	서울 방학동 전형필 가옥	전기	9,500	9,500	19,000	
서울	서대문구	사적 324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전기	50,000	50,000	100,000	
서울	종로구	사적 213	서울 우정총국	방범	28,000	12,000	40,000	
서울	종로구	국가등록 89	서울 평창동 박종화 가옥	방범	20,000	20,000	40,000	
서울	종로구	국가등록 84	서울 원서동 고희동 가옥	방범	12,500	12,500	25,000	
서울	종로구	국가등록 90	서울 홍파동 흥난파 가옥	전기	11,500	11,500	23,000	
서울	종로구	국가등록 230	서울 혜화동성당	소방	165,000	165,000	330,000	
서울	중구	사적 157	서울 환구단	방범	28,000	12,000	40,000	
<b>부산 소계(2건)</b>					<b>87,300</b>	<b>87,300</b>	<b>174,600</b>	
부산	서구	국가등록 41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방범	50,000	50,000	100,000	
부산	서구	국가등록 568	부산 경남고등학교 덕형관	소방	37,300	37,300	74,600	
<b>인천 소계(2건)</b>					<b>91,060</b>	<b>53,860</b>	<b>144,920</b>	
인천	중구	사적 287	인천 답동성당	소방	65,100	27,900	93,000	
인천	중구	사적 287	인천 답동성당	전기(ICT)	25,960	25,960	51,920	
<b>강원 소계(2건)</b>					<b>113,000</b>	<b>113,000</b>	<b>226,000</b>	
강원	원주시	국가등록 702	원주 육민관고등학교 창육관	소방, 방범	63,000	63,000	126,000	
강원	원주시	국가등록 701	원주 기독교 의료 선교 사택	소방, 방범	50,000	50,000	100,000	
<b>충북 소계(1건)</b>					<b>14,000</b>	<b>14,000</b>	<b>28,000</b>	
충북	청주시	국가등록 9	청주 문화동 알양 절충식 가옥	전기	14,000	14,000	28,000	
<b>전북 소계(1건)</b>					<b>140,000</b>	<b>60,000</b>	<b>200,000</b>	
전북	익산시	사적 318	익산 내비위성당	방범	140,000	60,000	200,000	
<b>전남 소계(3건)</b>					<b>134,785</b>	<b>134,785</b>	<b>269,570</b>	
전남	목포시	국가등록 30	목포 구 목포공립심상소학교	소방	72,500	72,500	145,000	
전남	목포시	사적 289	구 목포 일본영사관	전기(ICT)	43,285	43,285	86,570	
전남	장흥군	국가등록 130	장흥 예양티 일본식 가옥	방범	19,000	19,000	38,000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 4. 「한인애국단원 관련 문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가. 제안사항

「한인애국단원 관련 문건」의 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19.11.26.)를 거쳐 등록 예고한 「한인애국단원 관련 문건」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총 5종 11점)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 년대	소유자	소재지
한인애국단원 편지 및 봉투	3건 6점	편지 20.3×25.2cm, 봉투 9.7×15.0cm 등	1932년	국립 중앙박물관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한인애국단원 이력서 및 봉투	2건 5점	이력서 28.0×17.8cm, 봉투 14.7×10.3cm 등			

###### (2) 추진경과

-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 연구’용역('18.6~10월)
  - 유상근 및 이덕주 이력서, 이덕주 서간문 등 조사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19. 7. 31.)

###### (3) 등록예고 : 2019.12.9. ~ 2020.1.7. \*의견없음

###### (4)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라. 세부목록

1. 한인애국단원 편지 및 봉투(3건 6점)

연번	문화재명	수량	규격
1	김영구가 곽윤에게 보낸 편지 및 봉투	2점 (편지1, 봉투1)	○ 편지: 25.2×20.3cm ○ 봉투: 9.7×15.0cm
2	최흥식이 곽윤에게 보낸 편지 및 봉투	2점 (편지1, 봉투1)	○ 편지: 26.0×24.4cm ○ 봉투: 8.9×18.0cm
3	이덕주가 김정애에게 보낸 편지 및 봉투	2점 (편지1, 봉투1)	○ 편지: 17.9×26.1cm ○ 봉투: 8.5×20.8cm

2. 한인애국단원 이력서 및 봉투(2건 5점)

연번	문화재명	수량	규격
1	유상근, 이덕주 이력서 및 봉투	3점 (이력서2, 봉투1)	○ 유상근 이력서(2장) : 17.8×28.0cm ○ 이덕주 이력서(1장) : 24.9×16.2cm ○ 봉투 : 10.3×14.7cm
2	유진식 이력서 및 봉투	2점 (이력서1, 봉투1)	○ 이력서: 17.8×26.1cm ○ 봉투 10.3×14.7cm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 ○ ○ 문화재위원(2019.7.31.)

- 한인애국단원 관련 문건은 1931년 김구가 소수의 인원으로 일본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고,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한인애국단의 활동상을 보여주는 자료임. 해당 자료들은 그들의 활동과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로서 희귀하므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필요가 있음.
- 등록방식은 『한인애국단원 편지 및 봉투』은 “-1”, 『한인애국단원 이력서 및 봉투』는 “-2”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 ○ ○ 대구대학교 교수(2019.7.31.)

- 한인애국단원의 이력서, 봉투, 편지는 김구의 기획으로 창건된 한인애국단원의 활동상과 이력 등을 보여주는 자료임. 편지 및 봉투류는 국내 및 만주의거의 추진 실황을 보여주는 중요 자료이며, 이력서는 청년 독립투사들의 신상을 가장 정확히 밝혀줄 원본 희귀자료임. 해당 유물들은 한인애국단의 국내외 거사의 실체를 파악하고 재조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음.

○ ○ ○ ○ 서강대학교 교수(2019.7.31.)

- 한인애국단은 1930년대 초 김구의 주도하에 일본 수뇌 암살을 목적으로 조직된 독립운동 단체였으며, 이들의 의열투쟁은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큼. 이들의 의열투쟁은 비밀스럽게 전개되어 관련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된 해당 유물들은 독립운동사의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음. 따라서 이들 자료들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 <붙임1>

# 「한인애국단 관련 문건」 조사보고서

1. 명 칭 : 한인애국단 관련 문건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3. 소유자 : 국립중앙박물관
4. 조사자 의견

### <○○○ 문화재위원(2019.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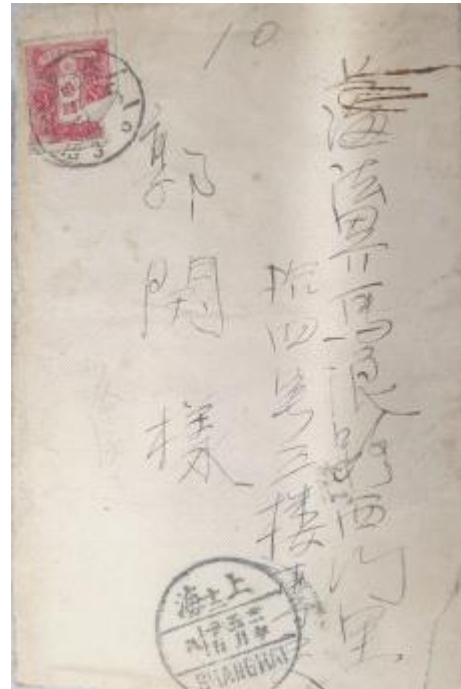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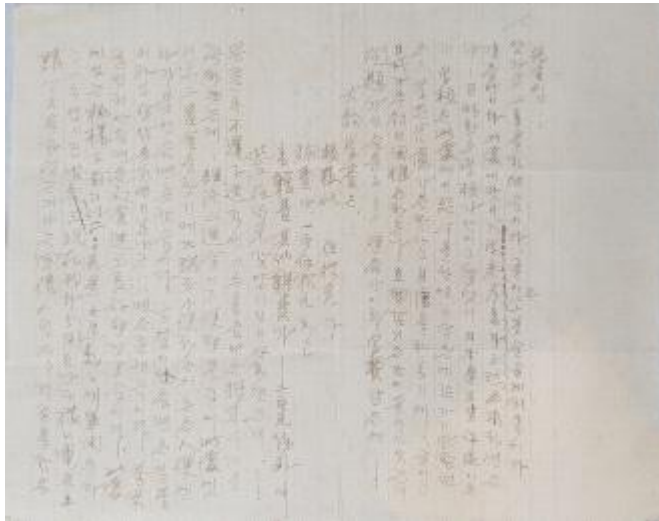
- 1) 현상 : 부분적인 보존처리 필요
- 2) 내용 및 특징
  - 한인애국단(韓人愛國團)은 김구(1876~1949)가 소수의 인원으로 일본에 최대한 타격을 주는 한편,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1931년 10월 일본 정부 및 군부 수뇌들을 암살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임. 이 단체의 간부는 단장 김구를 비롯해 이유필(李裕弼, 1885~1945), 이수봉(李秀峰, 1896~1933), 안공근(安恭根, 1889~1940) 등이며, 단원으로는 이봉창(李奉昌, 1900~1932), 윤봉길(尹奉吉, 1908~1932), 이덕주(李德柱, 1909~1935), 유진만(俞鎮萬: 異名은 俞鎮軾, 1912~1966), 최흥식(崔興植, 1909~1932), 유상근(柳相根, 1910~1945) 등이었음. 1932년 4월에 이덕주, 유진만의 조선총독암살미수사건, 최흥식, 유상근의 국제연맹조사단원암살미수사건 등이 발각되어 배후인 이 단체가 알려지게 되었음.
  - 이번에 조사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한인애국단 유물은 1932년 5월 5일에 김영구가 곽윤에게 보낸 편지, 1932년 5년 28일에 최흥식이 곽윤에게 보낸 편지, 1932년 3월 31일에 이덕주가 김정애에게 보낸 편지, 1932년에 작성된 유상근과 이덕주의 이력서, 1932년 3월 18일에 작성된 유진식(俞鎮軾, 유진만의 異名)의 이력서 등 6점임. 이 6점은 이력서와 편지를 분리하여 등록하는 것이 적합해 보이므로 둘로 나누어 살피면 다음과 같음.

### 가. 『한인애국단원 편지 및 봉투』

- 1) 김영구(유상근 추정)가 곽윤(김구)에게 보낸 편지 및 봉투  
(편지:20.3×25.2cm, 봉투:9.7×15.0cm)

- 김영구(金永九)가 [1932]년 5월 5일 저녁에 써서 곽윤(郭潤)에게 보낸 편지 및 봉투임. 김영구는 유상근(柳相根, 1910~1945)의 암호명 또는 이명으로 판단됨. 그 이유는 1932년 거사를 앞두고 곽윤(김구)에게 편지를 보낸 한인애국단원이었다는 점과 유상근 이력서의 자필서체와 이 편지의 서체가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그렇게 판단됨. 그러나 “<자료1> 김정구와 유상근 글씨체 분석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가의 서체 감정으로도 동일인으로 확증하기가 어렵다고 하므로 여기에서는 김영구(유상근 추정)으로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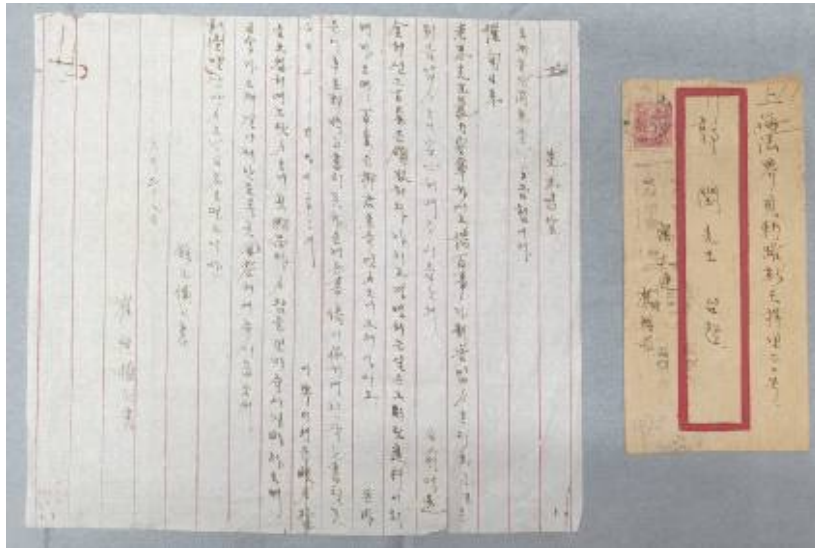
- 편지는 백지에 검은 잉크로 쓰여져 있으며, 반흘림체의 국한문 혼용문이다. 편지 봉투의 발신인은 대련 북대산통의 김영구, 수신인은 상해의 곽윤임. 내용은 “학교 입학은 걱정 없으며 학비를 보내어 주되 그 가부를 속히 회신해 달라.”는 것이나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는 알기가 어려움. 편지를 쓴 시기는 편지 끝의 “伍月五日夕”과 같이 1932년 5월 5일임.



<사진1> 김영구(유상근 추정)가 곽윤(김구)에게 보낸 편지 및 봉투

## 2) 최흥식이 곽윤(김구)에게 보낸 편지 및 봉투 (편지:26.0×24.4cm, 봉투:18.0×8.9cm)

- 1932년 5년 28일에 최흥식(崔興植, 1909~1932)이 곽윤(김구)에게 보낸 편지 및 봉투임. 최흥식은 1931년에 한인애국단에 가입한 뒤 이듬해 국제연맹조사단 환영식 참석을 위해 방문할 관동군 사령관 혼조 시게루(本庄繁) 등을 암살하기 위해 만주로 갔음. 그러나 이듬해 5월 국제연맹조사단이 대련(大連)에 도착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대련에서 잠복하던 중 발각되어 사형을 당하였음. 1968년에 대통령표창, 1991년에 건국훈장애국장이 추서되었음.
- 이 편지는 1932년 5월 대련에 잠복할 때 김구에게 보낸 편지로 추정되며, 『白凡金九全集』 제4권(587~588)에 수록되어 있음. 편지는 백지에 붉은 줄이 있는 얇은 종이에 검은 잉크로 쓰여져 있으며, 국한문 혼용체임. 편지봉투의 발신인은 대련의 최흥식이고, 수신인은 상해의 곽윤임.
- 내용은 “전에 송금해준 2백만은 수령하였고, 일은 그대로 진행이 되며 1백만은 柳君(유상근 추정)에게 주었으니 그리 아십시오. 돈을 받고 즉시 편지를 보내지 못한 것은 사정이 있었으니 그리 알아 달라.” 또 “뱃사람을 교섭하였으니 물품과 사람을 보내주시되 빨리 회답해 달라.”는 것임. 거사하기 직전의 긴급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내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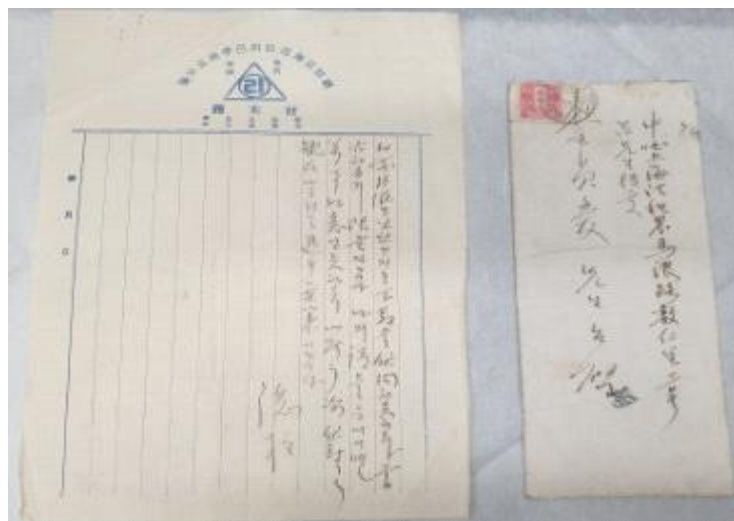


<사진2> 최흥식이 곽윤(김구)에게 보낸 편지 및 봉투

### 3) 이덕주가 김정애에게 보낸 편지

(편지: 26.1×17.9cm, 봉투: 20.8×8.5cm)

- 1932년 3월 31일에 이덕주(李德柱, 1909~1935)가 김정애(金貞愛)에게 보낸 편지 및 봉투임. “朝鮮黃海道信川邑李商店用箋”이라고 찍힌 전용지에 검은 잉크로 쓰여져 있으며 국한문혼용문임. 발신인은 이덕주이고 수신인은 상해의 김정애임. 내용은 “회신이 없어서 궁금하고 현재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임.
- 이덕주는 황해도 신천읍(信川邑)에서 1909년 1월 2일에 태어났고, 17세에 과수업(果樹業), 19세에는 재목상을 하다가 20세에 상해로 갔음. 신천읍 이상점 전용지에 쓴 이 편지는 그가 재목상을 할 때의 전용지를 보관하였다가 이때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사진3> 이덕주가 김정애에게 보낸 편지.

나. 『한인애국단원 이력서 및 봉투』

1) 유상근 · 이덕주 이력서 및 봉투

(유상근 이력서(2장): 28.0×17.8cm, 이덕주 이력서(1장): 24.9×16.2cm, 봉투: 14.7×10.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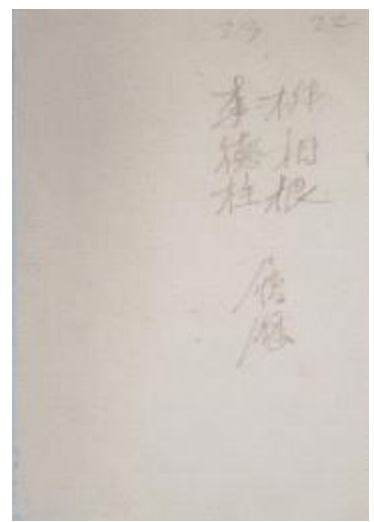
- 1932년에 자필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상근(2장)과 이덕주(1장)의 이력서 2점(3장)이 하나의 봉투에 삽입되어 있음.
- 유상근 이력서는 “金陵公寓用箋”이라는 문자가 붉은 색으로 인쇄된 용지에 연필로 쓰여져 있으며, 반흘림체의 국한문혼용문임. 전용지의 “금릉공우(金陵公寓)”란 단둥(安東) 포백로(蒲柏路)에 있는 여관으로 그가 숙박했던 곳으로 추정됨.
- 유상근(柳相根, 1910~1945)은 강원도 통천군(通川郡)에서 태어났음.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아버지는 “유춘기(柳春基), 어머니는 김성녀(金姓女)고, 김구의 소개로 버스공사로 직장을 얻어 9개월 일하다가 다시 홍콩으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함. 유상근은 만주국의 일본요인을 처단하기 위해 김구의 지시를 받고 대련에 도착하였음. 그러나 결행 이틀 전인 5월 24일 새벽에 붙잡혀 옥고를 치르던 중 광복을 하루 앞둔 1945년 8월 14일 순국하였음. 1968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음.
- 이덕주 이력서는 백지에 연필로 흘림체로 쓰여져 있으며, 국한혼용문임. 이덕주(李德柱, 1909~1935)는 황해도 신천읍(信川邑)에서 1909년 1월 2일에 태어났고, 17세에 과수업(果樹業), 19세에는 채목상을 하다가 20세에 상해로 갔음. 아버지는 이원국(李源國), 어머니는 배현후(裴賢厚)임. 1926년에 중국으로 가서 항일 거사를 준비하다가 1932년 4월에 잡혀 복역 중에 옥사하였음. 1977년에 건국포장, 1990년 애국장이 추서되었음.



<유상근 이력서>



<이덕주 이력서>



<봉투>

<사진4> 유상근(右上) · 이덕주(左上)의 이력서 및 봉투(左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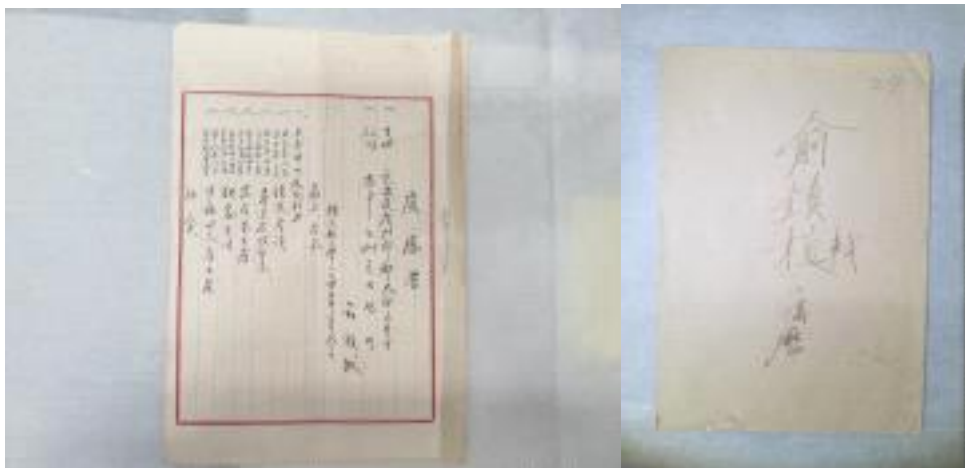
## 2) 유진식 이력서 및 봉투

(이력서: 26.1×17.8cm , 봉투 10.3×14.7cm)

- 1932년 3월 18일에 작성한 유진식(俞鎮軾, 1912~1966)의 이력서임. 봉투에 쓰여진 “俞鎮軾 履歷”은 김구의 글씨임. 이력서는 주색으로 된 쌍변의 테두리가 있는 14행의 백지에 검은 잉크로 국한문흘림체로 쓰여져 있음. 4장의 이력서는 두 개의 구멍을 뚫어 묶어 놓았음. 이력서에는 자신의 가계와 학력, 경력 등이 자세히 적혀져 있음. 그는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에 재학했으며, 주로 충청도에서 동맹휴학·파업·폭동을 선동하고 격문을 살포하는 등 항일운동을 하였음. 이력서 말미에 그의 면모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글이 있음.

革命은 大衆의 覺性과 支持를 必須條件으로 하노니  
目的을 達成하려면 좀 더 宣傳에 主力을 기울여  
大衆을 引受함과 共히 自治的 精神下에  
團體的 訓練을 圖謀하라.

- 유진식의 다른 이름은 진만(鎭萬·振萬), 진식(鎭軾) 등이나 유진만(俞鎭萬)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음. 출생은 경기도 광주군이고, 당시 거주지는 충남 공주읍이었음. 1932년 1월 상해에서 한국 청년들의 혁명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인청년당(韓人靑年黨)을 조직하였고, 김구가 주도한 한민애국단에 가입하여 항일 독립운동을 하였음. 1932년 3월에 조선총독인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등을 암살하기 위하여 이덕주와 함께 입국하였다가 일본경찰에 체포되었음.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음.



<사진5> 유진식(俞鎭軾) 이력서 및 봉투

### <자료1> 김영구와 유상근 글씨체 분석 결과

- 한편 김영구와 유상근이 동일인으로 추정되어 4명의 전문가에게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감정결과를 요약하면 “동일인으로 확신 1명, 동일인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음 1명,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있음 1명, 유사점과 상이점이 발견되어 동일인으로 단언할 수는 없음 1명” 등으로 나타났음.
- 오래된 편지의 서체의 흔적만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이번에는 “김영구(유상근 추정)”으로 명칭에 반영하고, 후일 동일인으로 확정할 수 있는 기록이나 유물이 발견되면 그 때 “(추정)”을 생략하는 것이 좋을 듯함.

1) 강태이(전문위원): “김영구의 서간문에 기재된 필적과 유상근의 이력서에 기재된 필적은 필법 및 자획의 구성형태 등에서 여러 유사점이 관찰되어, 동일한 필적일 가능성이 있음.”

2) 곽노봉(전 위원): “동일인이 젊었을 때와 나이가 들어서 쓴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 유사한 점이 너무 많음. 따라서 동일인 쓴 것이라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3) 김남형(전문위원): “유사점과 상이점이 함께 발견됨. 이력서는 22세에 쓰여진 것이고 서간문은 중년이후(?)에 쓰여졌기 때문일 수도 있음. 서풍이 유사한 것으로 생각되나 이력서 필적의 선명도가 너무 낮아 단언할 수는 없음.”

4) 선주선(전 위원): “동일인의 필적임이 증명될 것으로 보며, 직관상 一見 시에도 또한 그러하기에 두 문건은 동일인의 필적임을 확인함.”

#### 3) 참고자료

-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2. 서한집.
- 『白凡金九全集』 제4권.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 4) 등록가치 및 근거 기준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한인애국단원 편지 및 봉투』와 『한인애국단원 이력서 및 봉투』는 1932년에 소규모의 인원으로 일본에게 큰 피해를 주고, 중국과는 친교를 더하겠다는 의도로 설립된 한인애국단의 활동을 보여주는 사료임. 당시 성공하지 못한 한인애국단의 활동이나 단원 그리고 그들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는 거의 유일함. 이와 같이 이 유물은 일제강점기시대 중국내에서 활동하던 한인애국단에 관련된 희귀한 자료이므로 문화재로 등록하여 항구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등록방식은 『한인애국단원 편지 및 봉투』은 “-1”, 『한인애국단원 이력서 및 봉투』는 “-2”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 대구대학교 교수(2019.7.31.)>

### 1) 형식

- 한인애국단원 유상근·이덕주의 자필 이력서 및 봉투
  - 柳相根 이력서는 상단 가로 좌향의 ‘金陵公寓用箋’이라는 朱色 모필 큰 글씨와 우측 세로의 “上海 法租界 蒲柏路 蘭馨坊 第四〇六號” 및 좌측의 “新建 三層 朝南洋房地點 適中空氣充足”이라는 朱色の 활판 작은 글씨로 둘러싸인 굵은 4각선 안의 硃色지에, 李德柱 이력서는 硃지에, 우측에서 시작하여 좌향 식의 국한문 縱書로 작성되어 있음
- 한인애국단원 유진식의 자필 이력서 및 봉투
  - 이력서는 굵은 4각선 안의 세로 硃色지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써나갔고, 사항마다 ‘一.’을 적어 구분하며 국한문의 縱書로 작성
- 한인애국단원 이덕주 편지 및 봉투
  - 편지는 木材商의 사무용 硃色지에 국한문의 縱書로 작성
- 한인애국단원 최홍식 편지 및 봉투
  - 백지에 직접 선을 그어 만든 硃色지에 국한문 縱書.  
편지 작성 후 2장을 가로로 이어 붙여 1장으로 만든 흔적이 보임
- 한인애국단원 유상근 편지 및 봉투
  - 편지는 硃色 硃지 2장에 국한문 縱書. 봉투는 장방형 사각.

### 2) 현상

- 한인애국단원 유상근·이덕주의 자필 이력서 및 봉투(조성연대 : 1932.2.24.)
  - 두 장의 이력서는 가로, 세로로 한 번씩 접혔던 흔적 외에는 여하한 훼손 없이 상태 양호하며, 全文 판독이 거의 가능할 만큼 正字의 필서임. 다만 유상근 이력서의 제1면은 글씨가 흐릿해져 판독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음.
  - 두 이력서를 같이 담고 있던 가로장방형 봉투의 앞면에는 白凡 金九의 필체로 “柳相根 李德柱 履歷”이라는 큰 글씨가 선명하게 쓰여 있고 역시 상태 양호함. 봉투의 뒷면은 아무 표기 없이 봉함용 날개만 달려 있음
- 한인애국단원 유진식의 자필 이력서 및 봉투(조성연대 : 1932.3.10.)
  - 이력서와 봉투 모두 전문의 완전판독이 가능하리만큼 충분한 필압의 正字 필서로 작성되었음. 이력서는 3장을 겹쳐 오른쪽 중간 부분에 구멍을 뚫고 흰색 실끈으로 묶었으며, 두 번 접혔던 흔적 외에는 훼손 없이 상태 양호함
- 한인애국단원 이덕주 편지 및 봉투(조성연대 : 1932.3.31)
  - 편지와 봉투 둘 다 명료한 필체여서 전문 판독되며, 훼손 없이 상태 양호함



- 한인애국단원 최홍식 편지 및 봉투(조성연대 : 1932.5.28.)
  - 편지와 봉투 둘 다 명료한 필체여서 전문 판독됨. 얇은 미농지인 편지지의 좌우 양측 상단에 약간의 찢김과 천공이 생겨 있고, 그것 말고는 다른 훼손 없이 대체로 상태 양호함.
- 한인애국단원 유상근 편지 및 봉투(조성연대 : 1932.5.5.)
  - 편지와 봉투 둘 다 정자체로 또박또박 쓴 글씨체여서 전문판독이 가능하고 보존 상태 양호함.

### 3) 내용 및 특징

#### 가. 한인애국단원 유상근·이덕주의 자필 이력서 및 봉투

- ① 유상근 이력서에는 원적과 나이를 적은 후, 작성 시점까지의 이력 내용을 소년기의 학력, 가족 전체의 북간도행 출향과 그 후의 수차 이주, 혼자만의 하얼빈→대련→상해→홍콩→광둥→상해 전진 경험과 직업 경력 순으로 요약해 서술하고, 부모·형제들의 가족사항도 본인과의 관계 및 성명을 열거하는 식으로 모두 밝혀 적었음. 또한 상해에서 김구의 소개로 직업을 얻은 적이 있으며, 民團 義警隊員을 거쳐 韓人愛國團員이 되어 특별 임무를 받고 2월 24일에 某處[大連임]로 향한다고 적어놓았음.

이력서 제1면의 사각선 밖 우측에 북간도의 가족 주소를 ‘現住’로 적어놓았으니, 만일의 경우에는 그리로 알려주기를 바라는 뜻을 표해놓은 것으로 볼 수 있음. 본인 성명과 작성일은 명기되어 있지 않은데, 앞의 ‘2월 24일’이 본 이력서의 작성일인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터임.

- ② 이덕주 이력서는 원적(황해도 신천읍) 및 현적(상동), 생년월일(檀紀로 표기했는데 서기로는 1909년에 해당), 본인 성명을 차례대로 적은 후, 유년기 이후 현재까지의 학력과 직업경력을 5행으로 간단히 열거해 적고, 마지막 행에 20세 때[1928년 혹은 1929년에] 상해로 왔음을 밝혀 적었으며, 맨 마지막에 부모와 백형·중형의 이름을 적어놓았음. 유상근 이력서에 비하면 내용이 간략하고 速筆로 쓰인 것으로 보이니, 본인의 快淡한 성품의 일단을 드러내 보여주는 듯도 함. 작성일은 명기되어 있지 않음.
- ③ 유상근 이력서의 우측 상단에 ‘22’, 이덕주의 이력서에도 같은 위치에 ‘23’이 적혀 있음. 이는 김구가 받아 보관해두려 했던 이력서 류의 일련번호였던 것으로 보임. 이 번호는 봉투에도 똑같이 병기되어 있음.

#### 나. 한인애국단원 유진식의 자필 이력서 및 봉투

- ① 이력서 작성자인 兪鎭軾은 나름대로 형식을 갖추면서 내용도 신뢰할 수 있게끔 쓰려 했음이 엿보임.

- ② ‘이력서’라는 제목을 적고, 출생지(경기도 광주군), 주소, 이름, 생년(단기 4245년 즉 서기 1912년)과 월일을 차례로 적은 후, ‘가사, 학업’이라는 소제목 아래 번호를 붙여가며 만5세(‘5년’)부터 만19세까지의 수학경력과 8개월간의 투옥 경험을 적었음. 이어서 ‘사회’라는 소제목 아래 만15세부터 만20세(즉 1932년) 1월까지의 학생·사회단체 활동 및 항일운동 경력을 상세히 적었음. 1932년 1월에 ‘상해한인 독립운동청년동맹’의 위원으로 피선되자 동맹의 개조를 목적으로 유상근과 함께 해소-재조직을 부르짖어 ‘상해한인청년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당의·당강·당칙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현재 同黨의 이사로 재직 중임을 밝혔음. 그리고는 작성일(4265년 3월 10일; 18일이 아님)과 이름을 적은 후, 혁명은 대중적 참여와 지지에 기초해야 한다는 소신도 두 줄로 첨기하였음.
- ③ 이력서의 우측 상단에 ‘24’라는 숫자가 연필로 별기되어 있으니, 이는 유상근과 이덕주의 이력서 번호에 바로 이어지는 숫자였고, 김구가 받아 보관해두려 한 이력서 류의 일련번호였음이 확실시됨.
- ④ 이력서가 두 번 접어 담긴 장방형의 봉투 앞면에는 백범 김구의 필체로 ‘유진식 이력’이라는 글씨가 한자로 크게 쓰여 있고, 그 중 ‘식’은 ‘植’이라 썼다가 < 표시를 해 지우고 ‘軾’으로 고쳤음. 봉투 상단에도 ‘24’라는 숫자가 연필로 별기되어 있음. 봉투의 뒷면은 아무런 표기 없이 봉합용 날개만 달려 있음.

#### 다. 한인애국단원 이덕주 편지 및 봉투

- ① 장방형의 사각봉투 앞면의 수신자는 “中國 上海 法租界 馬浪路 敦仁里 三號 呂先生 轉交 金貞受 先生님 啓”라고 달필로 적혀 있고, 3전짜리 ‘대일본제국 우표’가 붙여진 위에 3월 31일자 소인이 찍혀 있음. 위 주소의 ‘여선생’이 누구인지는 판명되지 않으나, ‘김정수’는 김구가 통신연락용으로 만든 가명이었을 것으로 보임. 봉투 뒷면에는 주소 없이 ‘信川 宵’라고만 발신인을 적었고, 그 위에 ‘상해, [민국]21년[1932] 4월 10일 11[시?]'로 도착지 우편국의 스탬프가 찍혀있음. 이 편지 및 봉투의 진위 여부가 재론의 여지없이 명백해지는 대목임.
- ② 편지지 상단에 황해도 신천읍의 합자회사 목재상인 李商店의 用箋으로 인쇄되어 있음.
- ③ 속필의 흘려쓰기로 적힌 편지 전문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음. “日前 片紙난 보섯 난시오 下敎을 伏聞치 못하와 궁금하옵기 限量 엄나이다 나의 請을 들으시면 萬事如意일듯 하오니 以後事 次伏望了 現在 나로서는 速[束]手無策이나이다 德柱”. 이는 김구로부터 특별임무 수행을 명령받고 상해에서 국내로 들어와 연고지인 황해도 신천에 잠복해있던 이덕주가 앞서 보낸 도착보고 서신에 답신이 없음을 의아해하면서 속히 행동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라. 한인애국단원 최홍식 편지 및 봉투

- ① 장방형의 봉투 앞면 우측에 수신자가 “上海 法界 貝勒路 新天祥里 二十号 郭潤 先生 台啓”로, 좌측 아래쪽에 발신자가 “寓 大連 崔興植”으로 적혀 있음.  
발행처 판독불능인 3전짜리 우표에 일자도 판독되지 않는 소인이 찍혀 있음.
- ② 봉투 뒷면에는 상단의 봉함 부위에 ‘緘封’이라고 적혔고, 세로 방향의 중간 접착선을 따라 “五月 二十八日”이라고 발송일이 적혀있음. 소인이 반쯤 찍혀 있는데, 도착지가 상해 우편국인 것만 알 수 있고 일자 등의 다른 부분은 판독되지 않음.
- ③ ‘先生님 앞’이라고 서두를 연 편지는 선생의 안부를 묻고 나서 자신도 별고 없이 잘 있다고 하였으며, 일전에 송금해준 200弗을 잘 수령하여 일을 그대로 진행시키고 있음과 아울러 그 중 100弗은 柳君에게 주었다고 적었음. ‘유군’이란 한인애국단의 만주거사를 위해 최홍식보다 한 달쯤 먼저 특파되어 대련에 가있던 柳相根을 말하는 것임.  
이어서 이쪽에서는 뱃사람을 교섭해 놓았으니 곧 물품과 사람을 보내주길 바라며 일자가 오래 걸리지 않도록 바로 회답해 달라고 적었음. 그리고 “5월 28일 최홍식 上書”라고 적어놓아 작성일과 본명이 확인됨. 여기서의 ‘물품’이란 거사용 폭탄, ‘사람’은 거사 실행자, ‘뱃사람’은 현지 조력자를 가리키는 隱語였을 터임.  
요컨대 이 편지는 최홍식 본인이 상해를 떠나오기 전에 受命했던 거사실행 준비가 대련에서 상당 부분 진행 완료되었음을 暗喻的으로 보고하면서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호이기도 했던 것임.
- ④ 관련 자료와 연구결과(국회도서관 편, 『한국민족운동사료: 중국편』, 1976, 732-748쪽; 조범래, 『의열투쟁 II—한인애국단』(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259-274쪽)에 따르면, 이 편지 봉투의 ‘郭潤’은 김구의 작전용 가명, 쓰인 주소지는 김구의 오른팔 격이던 嚴恒燮의 거처였다고 함.

## 마. 한인애국단원 유상근 편지 및 봉투

- ① 봉투 앞면에는 “上海 法界 馬浪路 西門里 拾四号 三樓 專[轉]交 郭潤 様”으로 수신인이 적혔고, 3전짜리 ‘대일본제국우표’ 위에 찍힌 소인은 大連 우편국의 21년 [1932] 5월 5일자인 것으로 판독됨.  
봉투 뒷면에는 “大連 北大山通 二一五(혹은 二)五?) (金)正順方 金永九 拜上”으로 발신인이 적혔고, 겹치고 뭉개져버린 듯한 3개의 소인 옆에 반 정도만 찍힌 소인이 있는데 ‘上’자가 보이니 수신지인 상해 우편국의 것일 터임.
- ② 관련 자료와 연구결과(국회도서관 편, 『한국민족운동사료: 중국편』, 1976, 732-748쪽; 조범래, 『의열투쟁 II—한인애국단』(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259-274쪽)에 따르면, 이 편지 봉투의 ‘郭潤’은 김구의 작전용 가명, 쓰인 주소지는 김구의 오른팔 격이던 嚴恒燮의 거처였다고 함.
- ③ 편지 서두에 “앗가도 上書を 하였”는데 “굳이 또 붓슬 들게 되”었다고 썼음. 그리고는 입학참고서와 옥편을 구한 얘기, 입학 예정 학교가 바뀐 사정, 일기가 춥지만 감기는 안 들었다는 소식, 교복대·여비·서적비·기타잡비 등으로 도합 5백원이

필요하니 보내주면 장래의 성공을 기약한다는 다짐 등이 이어짐. 그런데 우편이 아닌 인편으로만 송금해주기를 신신당부하는 대목에 이르면, 위 내용이 단순 학비지원 호소가 아니라 다른 목적의 자금지원을 거듭 요청하면서 보안에 극도로 주의를 기울인 것임을 엿볼 수 있음.

④ 편지 중간에 “此處에 있는 植樣”을 거명하면서 그가 전에 부쳐 받은 200元을 며칠 만에 다 써버리고 80원을 추가지원 요청했음을 환기시킴과 아울러 본인의 돈을 나누어 쓰고 있다고 적었음. 문제의 인물 ‘植’은 만주거사를 위해 유상근의 뒤를 이어 특파되고 대련에 도착해 있던 崔興植인 것이 분명함. 이 건과 같이 심의될 문건인 ‘한인 애국단원 최홍식 편지 및 봉투’와 그것의 문화재등록 조사보고서 내용을 보더라도 그 점이 입증됨.

⑤ 한인애국단의 만주(대련)거사에 관한 김구의 회고, 일제관헌의 정보 및 수사보고 자료들과 기왕의 연구결과로 볼 때 그 거사계획에 가담했거나 관련이 된 인물 중에 ‘김영구’라는 이는 확인되지 않으며 사실상 없었음. 따라서 이 편지의 발신인인 ‘김영구’란 누군가의 보안용 가명이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함.

본 보고자는 국립중앙박물관 실물조사(2019.7.31)에 참여했을 때 이 편지 및 봉투의 필체와 한인애국단원 유상근의 자필 이력서 필체가 매우 흡사함을 발견하고, 조사진의 상의 결과 동일 필적 여부 감식 판정을 사계 전문가에게 위촉토록 동행 실무자에게 요청했고, 그 요청은 이행되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도 받아보게 되었음. 그 결과, 감정인 4인 중 3인의 의견이 두 문서의 필적은 동일인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며, 또한 그렇게 보아야만 한인애국단 만주거사 기획의 실제적 맥락 및 전후 정황과도 부합함.

⑥ 이 편지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부주의하게도 본인의 실명을 편지에 노출시켰던 최홍식과는 달리 유상근은 통신보안에 매우 유의했으며 그래서 영리하게도 거사 실행을 ‘입학’으로, 거사용 폭탄과 권총 등을 ‘입학참고서’와 ‘옥편’으로, 거사비용을 ‘학비’로 代喩하고 발신인도 임시 가명 ‘김영구’로 위장하여 편지를 써 보냈다는 것임. 따라서 이 문서의 명칭도 당초의 관리명칭이던 ‘김영구 편지 및 봉투’가 아니라 사실과 상부하계 ‘한인애국단원 유상근 편지 및 봉투’로 바꾸는 것이 맞겠다고 사료되는 것임.

#### 4) 기타 참고사항

##### ① 한인애국단의 국내의거 계획과 좌절 (개요)

1931년 12월경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재무장 김구에게 전권이 위임되어 임정 직할의 특임 결사대로 발족한 비밀조직 한인애국단은 이봉창의 도쿄의거를 필두로 윤봉길의 상해의거, 유상근 등의 대련의거 등을 기획, 추진했음. 김구는 상해의거와 대련의거에 앞서 조선총독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를 암살 처단키 위한 국내의거를 기획하고 그 실행요원으로 兪鎮軾과 이덕주를 3월 초순부터 밀파했는데, 이덕주는 고향 신천에서 거사실행의 명령이 오기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던 중에 일경의 첩보망에 포착되어 1932년 4월 중~하순경에 유진식과 더불어 체포되고 말아서 거사가 실행

되지 못하였고, 이는 후속거사로 예정되고 있던 대련거사 계획의 탄로와 실패로도 이어지고 말았음.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편, 『한국민족운동사료: 중국편』, 1976, 732-748쪽; 조범래, 『의열투쟁 Ⅱ—한인애국단』(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253-258쪽.

## ② 한인애국단의 대련의거 계획과 좌절 (개요)

1931년 12월경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재무장 김구에게 전권이 위임되어 임정 직할의 특임 결사대로 발족한 비밀조직 한인애국단은 이봉창의 도쿄의거를 필두로 윤봉길의 상해의거, 유진식·이덕주의 국내의거 등을 기획, 추진했음. 위의 두 의거를 추진함과 동시에 김구는 만주사변 발발의 진상을 조사 파악하려는 국제연맹 리튼조사단의 入滿 시점을 노려 관동군사령관 本庄繁, 만철 총재 内田康哉 등의 폭살 응징을 위한 의거를 기획하고, 그 실행요원으로 상해교민단 의경대원 유상근과 최홍식을 1932년 2월과 4월에 만주로 밀파하였음. 조사단의 행로를 따르며 여러 도시를 거쳐 가다 최후로 대련에 도착한 유상근·최홍식은 李盛元·李盛發 형제의 협조를 받으며 거사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그 정황이 일제 정보망에 포착되어 5월말 경에 체포되고 마니, 대련의거 계획은 결국 실행이 좌절되어버렸음.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편, 『한국민족운동사료: 중국편』, 1976, 732-748쪽; 조범래, 『의열투쟁 Ⅱ—한인애국단』(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259-274쪽.

## ③ 유상근의 독립유공자 공훈록(국가보훈처)

○이명: 朱天懸

○생년월일 미상, 사망 1945년(추정)

○본적: 강원도 통천군 順嶺面 五柳里 186

○주소: 間島 延吉縣 蜂蜜溝 甲山村

○생애와 공적: “10세 때 통천보통학교에 들어가 공부하던 중 1923년 가족이 북간도로 이주함에 따라 길림성 연길현 이도구(吉林省 延吉縣 二道溝)로 들어갔다가 다시 봉밀구 갑산촌(蜂蜜溝 甲山村)으로 옮겨 약 1년 반 동안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다. 16세 때에 다시 용정촌(龍井村)으로 옮겨 동명학교(東明學校)에 들어가 1년간 수업하다가 가정형편으로 중도 포기하고 야학을 설치하여 거류동포들의 계몽사업에 나서기도 하였다. 그 후 다시 화룡현(和龍縣)으로 이사하여 19세 때에는 하얼빈에 있는 이모부 이종익(李鍾翊)의 집에 우거(寓居)하게 되었다. 21세 되던 1930년 이모부에게서 약간의 노자를 얻어 하얼빈을 떠나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 국무위원의 일원인 백범 김구(白凡 金九)를 만났으며, 백범의 소개로 우선 영국인 경영의 버스회사의 검표원으로 생활을 하면서 자주 백범을 찾아 독립운동의 방략을 듣고 헌신·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는 또한 인삼행상으로 광둥(廣東)·홍콩(香港) 등지를 두루 다니기도 하였으며 1932년 봄에 다시 상해로 돌아가 백범이 단장으로

있던 한국 교민단(僑民團)의 의경대원(義警隊員)으로 시무하게 되었다. 한편 이즈음 일본의 만주침략으로 중국이 국제연맹에 제소(提訴)하였으며 국제연맹에서는 그 해 봄 만주에 조사단을 파견하자, 백범이 주관하는 한인애국단(韓人愛國團)에서는 본국과 대련에 단원을 파견하여 조사단이 보는 앞에서 일제 고관들을 폭살하여 우리의 독립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로 결정하고 그를 선발하였다. 5월 4일 상해를 떠나 대련으로 가서 아옥정(兒玉町)에 있는 만철(滿鐵) 기숙사안 어느 동포의 방에 은거하면서 연락책임을 맡은 최흥식(崔興植), 무기 반입 등의 책임을 맡은 이성원(李盛元)·이성발(李盛發) 등과 비밀리에 연락을 취하였다. 동월 24일 거사를 이틀 앞두고 대련우체국에서의 비밀 전문(電文)이 단서가 되어 최흥식이 붙잡히고 그와 이성원·이성발 등도 차례로 붙잡혔다. 그는 관동청(關東廳) 재판소에서 무기 징역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2차대전의 발발과 함께 여순(旅順) 감옥으로 이감되어 무려 13년 간의 옥고를 치렀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4일, 옥중에서 일제에 의해 참살을 당하여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8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④ 이덕주의 독립유공자 공훈록(국가보훈처)

○이명: 徐利均

○생몰: (1908.5) ~ (1935.2)

○본적 및 주소: 황해도 신천군 신천읍 사직동 219

○생애와 공적: “일찍이 중국 상해로 망명하여 김구(金九)가 조직한 한인애국단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특히 1923년 1~2월 경에는 김구의 지시로 유진만(兪鎭萬)과 함께 조선총독을 폭살시키기 위해서 무기를 휴대하고 국내로 잠입하였지만 4월 19일, 일경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1933년 7월 29일 해주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언도 받고 해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1935년 12월 순국하였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⑤ 유진식의 독립유공자 공훈록 (국가보훈처)

○본명: 柳鎭萬

○생몰: 1912.2.16 ~ 1966.12.13

○본적: 충청남도 연기군 西面 菊村里 269

○생애 및 공적: “1932년 1월 중국 상해에서 김철(金哲)·이덕주(李德柱)·유상근(柳相根) 등과 함께 애국청년들의 항일독립운동 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한인청년당(韓人靑年黨)을 조직하는 한편 김구(金九)가 주도하는 한인애국단(韓人愛國團)에도 가입하여 무장의열투쟁에 앞장섰다. 그리하여 동년 3월 조선총독 우원일성(宇垣一成)을 비롯한 일제고관을 주살하기 위하여 권총 2정을 소지하고 이덕주(李德柱)와 함께 국내로 파견되어 계획된 공작을 실행하다가 1932년 4월 7일 일경에게 붙잡혔다. 그는 1932년 7월 16일 해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살인예비, 치안유지법 및 총포화약류취체령 위반으로 징역 6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⑥ 최흥식의 독립유공자 공훈록 (국가보훈처)

○ 생몰 연대: 미상

○ 본적: 서울 黃金 22

○ 생애 및 공적: “일찍이 중국으로 망명하여 김구(金九)가 주도·조직한 한인애국단(韓人愛國團)에 가입한 그는 1932년 4월 1일 유상근(柳相根)·이성원(李盛元)·이성발(李盛發) 등과 함께 김구 단장의 명을 받아 만주(滿洲)로 갔다. 그것은 일제(日帝)의 만주침략에 관한 국제연맹의 릿튼 조사단 일행이 만주에서 조사를 끝내고 대련(大連)에 이를 때, 그 조사단을 환영하기 위해 일제의 관동군 사령군과 남만철도 주식회사 총재 등 일본제국주의 침략자들이 대거 출영한다는 정보를 받고, 그 침략의 우두머리들을 폭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었다. 그는 대련에 도착하여 동지 김정순(金正順)의 집에 은거하면서 봉천(奉天)·장춘(長春) 등지를 다니며 일제 관헌의 국제연맹조사단에 대한 경비상황을 탐지하였다. 그러던 중, 동년 5월 중순 대련우체국에서 발송한 비밀전문이 단서가 되어 김정순의 집에서 일경에 의해 붙잡히고 말았다. 그는 유상근과 함께 1933년 11월에 관동주(關東州) 재판소에서 무기 징역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5) 등록가치 및 근거 기준

가. 한인애국단원 유상근·이덕주의 자필 이력서 및 봉투

- 이들 이력서와 봉투는 1932년 초부터 봄 사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할의 한인애국단이 김구의 기획으로 창건되고부터 거기 입단하여 대일 의열투쟁 거사 추동의 최일선 요원으로 나섰다가 일제당국에 체포되고만 청년 독립투사들의 신상을 가장 정확히 밝혀줄 원본 희귀자료임. 동시에 한인애국단의 국내외 연속 광역거사 계획의 실체를 파악하고 재조명함에 진전을 기할 수 있게끔 해줄 귀중 자료이기도 함.
- 따라서 국가 문화재로 등록하여 영구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나. 한인애국단원 유진식의 자필 이력서 및 봉투

- 이 이력서와 봉투는 1932년 초부터 봄 사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할의 한인애국단이 김구의 기획으로 창건되고부터 거기 입단하여 대일 의열투쟁 거사 추동의 최일선 요원으로 나섰다가 일제당국에 체포되고만 청년 독립투사들의 신상을 가장 정확히 밝혀줄 원본 희귀자료임. 동시에 한인애국단의 국내외 연속 광역거사 계획의 실체를 파악하고 재조명함에 진전을 기할 수 있게끔 해줄 귀중자료이기도 함.
- 따라서 국가 문화재로 등록하여 영구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다. 한인애국단원 이덕주 편지 및 봉투

- 이 편지와 봉투는 1932년 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할의 특무조직으로 비밀리에 창립된 한인애국단의 국내거사 추진 실황의 일단을 보여주는 중요문서이고 유일본으로서 희귀자료임. 밀파된 단원은 거사실행 의지가 충만했는데 상해(김구)와의 연락이 원활치 못했거나 發令이 지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도 해주니, 독립운동사 연구에도 상당 정도 기여하는 바 있을 것임.
- 따라서 문화재로 등록하여 영구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라. 한인애국단원 최홍식 편지 및 봉투

- 이 편지와 봉투는 1932년 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할의 특무조직으로 비밀리에 창립된 한인애국단의 만주의거 추진 실황의 일단을 보여주는 중요문서이고 유일본으로서 희귀자료임. 밀파된 단원들이 대련 현지에서 준비를 잘 진행하고 있었음과 적어도 5월 28일까지는 활동 중이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어서, 기왕의 독립운동사 연구의 일부 오류를 바로잡고 보충도 할 수 있게끔 해줄 자료임.
- 따라서 문화재로 등록하여 영구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마. 한인애국단원 유상근 편지 및 봉투

- 이 편지와 봉투는 1932년 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할의 특무조직으로 비밀리에 창립된 한인애국단의 만주의거 추진 실황의 일단을 보여주는 중요문서이고 유일본으로서 희귀자료임. 밀파된 단원이 대련 현지에서 치밀하게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자금부족으로 곤란에 처해있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여, 독립운동사 연구의 일부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보충도 할 수 있게 해줄 귀중자료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문화재로 등록하여 영구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6)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 사항

#### 가. 한인애국단원 유상근·이덕주의 자필 이력서 및 봉투

- 두 이력서는 독립투사 유상근과 이덕주의 상세 신원내역과 한인애국단원이 되기 이전의 경력 등을 새롭게 알려주는 것이어서, 등록 후 공개하여 독립운동사 연구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이 좋겠음.

#### 나. 한인애국단원 유진식의 자필 이력서 및 봉투

- 이 이력서는 독립투사 유진식의 상세 신원내역과 한인애국단원이 되기 이전의 경력 등을 새롭게 알려주는 것이어서, 등록 후 공개하여 독립운동사 연구의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이 좋겠음.



<○○○ 서강대학교 교수(2019.7.31.)>

1) 현상 : 보관을 위한 보수처리 요망

2) 내용 및 특징

가. 유상근, 이덕주 이력서 및 봉투

(유상근 이력서 : 17.8 cm x 28 cm, 이덕주 이력서 : 24.9 cm x 16.2 cm, 봉투 : 10.3 cm x 14.7 cm)

- 유상근 이력서와 이덕주 이력서는 같은 봉투에 들어있는데, 봉투에 김구의 필적으로 '柳相根 李德柱 履歷'이라고 적혀 있음. 한인애국단에 참가한 뒤 작성한 이력서로 생각됨.
- 유상근의 이력서는 붉은색으로 인쇄된 상해 소재 '金陵公寓用箋(금릉공우용전)'에 국한문 혼용의 반흘림체로 이력과 가계를 연필로 적었음. 강원도 통천 출신인 유상근의 학력과 이주, 활동 및 가족관계를 2장에 걸쳐 기재함. 특히 그가 한인애국단의 특명으로 2월 24일 '某處'로 향한다고 밝힘.
- 이덕주의 이력서는 백지에 연필로 국한문 혼용의 흘림체로 학력과 가계를 간략하게 적었음.

나. 유진식 이력서 및 봉투(이력서 : 17.8 cm x 26.1 cm, 봉투 : 10.3 cm x 14.7 cm)

- 유진식(兪鎭軾)의 이력서로, 붉은 색 줄이 있는 백지에 검은 잉크로 국한문 흘림체로 세로쓰기되어 있음. 유진식의 학력, 활동경력이 4장의 용지에 자세히 적음. 봉투에 쓰여진 '兪鎭軾 履歷'은 김구의 글씨로, 유진식이 한인애국단에 참여하고 1932년 3월 18일에 작성한 이력서임.

다. 김영구(유상근 ?) 편지 및 봉투(편지 : 25.2 cm x 20.3 cm, 봉투 : 9.7 cm x 15 cm)

- 대련에 있던 김영구(金永九)가 상해의 곽윤(郭潤)에게 보낸 편지. 흰 편지지에 검은 잉크로 반흘림체의 국한문 혼용 편지인데, 세로로 2장이 작성되었음. 김영구는 필적으로 미루어 유상근으로 추정됨. 편지가 작성된 날은 1932년 5월 5일 저녁이며, 학교입학과 경비문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 곽윤은 김구(金九)의 변성명이며, 대련에서의 한인애국단 활동과 관련된 공작을 상의하는 암호 비밀 편지로 생각됨. 유상근은 한인애국단원이었고, 이미 4월 29일 윤봉길 의거가 있었으며, 대련에서 일제의 요인 처단이 준비 중이었음.

라. 이덕주 편지 및 봉투(편지 : 18 cm x 26 cm, 봉투 : 8.5 cm x 20.1 cm)

- 황해도 신천에서 이덕주(李德柱)가 상해의 김정애(金貞愛)에게 보낸 편지. '朝鮮黃海道 信川邑 李商店用箋'에 검은 잉크로 국한문 혼용의 흘림체 세로쓰기. 1932년 3월 31일자 소인이 찍혀 있고, 상해에는 4월 10일 접수되었음. 이덕주가 먼저 보낸 편지에 대한 회신이 없어 궁금하고 현재는 속수무책이라는 내용임. 김정애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김구 혹은 관련자로 짐작됨.

마. 최흥식 편지 및 봉투(편지 : 26 cm x 24.4 cm, 봉투 : 8.9 cm x 18 cm)

- 최흥식(崔興植)이 대련에서 상해의 곽윤에게 1932년 5월 28일자로 보낸 편지. 백지에 붉은 줄이 있는 얇은 종이에 검은 잉크로 국한문 혼용체로 작성함. 곽윤은 김구의 변성명이고, 수신처인 프랑스조계 패특로(貝勒路) 신천상리(新天祥里) 20호는 안공근(安恭根)의 집 주소였음. 송금액은 영수하였고 뱃사람을 교섭하였으며 물품과 사람을 보내도 좋으니 속히 연락을 바란다는 내용으로, 대련에서의 한인애국단 활동에 관련된 편지임.

### 3) 기타(참고자료)

- 김구(도진순 교감), 『정본 백범일지』, 돌베개, 2016
- 愼鏞厦, 「白凡 金九와 韓人愛國團의 獨立運動」, 『韓國民族運動史研究』(于松 趙東杰先生停年紀念論叢), 나남, 1997
- 한시준, 「백범 김구와 한인애국단」,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10, 2013

###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한인애국단 관련자료는 한인애국단원의 이력서와 편지, 봉투로 5점임. 한인애국단은 1930년대 초 한국독립운동이 침체되고 만보산사건 등으로 한중갈등이 증대되자, 김구가 주도하여 한중우의(韓中友誼)와 일본 수뇌암살을 목적으로 조직한 독립운동 단체였음. 이봉창 의거와 윤봉길 의거가 바로 한인애국단이 주도한 대표적인 항일 의열투쟁이었음. 이 한인애국단원 이력서 및 편지, 봉투는 김구가 소장하였다가 해방 후 환국시 국내에 가지고 왔음. 1949년 김구가 암살되자 측근이던 김덕은이 보관하였다가 국립중앙박물관에 김구가 소장하던 다른 자료들과 함께 기증함.
- 한인애국단의 의열투쟁은 한국독립운동사의 한 전환을 이룬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큼. 특히 의열투쟁은 비밀스럽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음. 그러한 면에서 이들 자료는 독립운동사의 중요한 사료이며 등록문화재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 명칭은 ‘한인애국단원 이력서 및 편지, 봉투’로 하고, 1. 유상근, 이덕주 이력서 및 봉투, 2. 유진식 이력서 및 봉투, 3. 김영구(유상근 ?) 편지 및 봉투, 4. 이덕주 편지 및 봉투, 5. 최흥식 편지 및 봉투를 각호에 명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 5. 「이교재 임시정부 문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가. 제안사항

「이교재 임시정부 문건」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19.11.26.)를 거쳐 등록 예고한 「이교재 임시정부 문건」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명

문화재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이교재 위임장 및 상해격발	2점	22.8×50.3 cm	1931년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신길 105 창원시립마산박물관
문영박 추조 및 문원만 특발	2점	20.8×16.0cm 등	1931년	남평문씨세거지	대구 달성군 화원읍 인흥 3길 16
대한민국임시정부 특발, 추조, 편지 및 명함	5점	18.6×13.9cm 등	[1931년]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 (2) 추진경과

-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 연구’용역(‘18.6~10월)
  - A등급 34건(‘문영박 유품: 특발’ 등 포함), B등급 104건(‘대한민국임시정부 특명 및 편지, 추조장’, ‘문영박 유품: 추조’ 등 포함), C등급 1,215건
- 임시정부 목록화 유물 등록검토 대상 선정 자문회의(‘19. 1. 21.)
  - 우선 검토 대상 조사대상 ‘문영박 추조장’ 등 11건 선정
- 이교재 후손-창원시립마산박물관에서 ‘이교재임명장’ 1건 등록 검토 요청(‘19.5.21)
- 창원시청-근대문화재과 ‘이교재임명장’ 1건 등록 검토 관련 논의 (‘19.6.26.)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1차('19.7.11.) : ○○○, ○○○, ○○○, ○○○
  - 2차('19.8.21.) : ○○○, ○○○, ○○○
- 문화재위원회(9차) 등록 검토('19.9.24) : **보류**(추가적인 조사 및 보완 완료 후 재검토)
- 성낙문 관련 검토의견서 작성(○○○ 위원, '19.9.25.)
- 창원시립마산박물관 '이교재임명장' 습식 재배접 보존처리 수행('19.9.11.~'9.30.)

(3) 등록예고 : 2019.12.9. ~ 2020.1.7.      \*의견 4건 접수(등록명칭)

(4) 심의사항 : 문화재 등록

**【 문화재 명칭 관련 의견 】**

① 등록 명칭 소장자 의견

등록예고 사항	소장자 의견 제시 사항
이교재 위임장 및 상해격발	<u>대한민국임시정부</u> 이교재 위임장 및 상해격발문
문영박 추조 및 문원만 특발	문영박 추조 및 <u>유가족에게 보낸</u> 특발
대한민국임시정부 특발, 추조, 편지 및 소봉투	대한민국임시정부 특명, <u>조문</u> , 편지, 봉투

- 대한민국임시정부 이교재 위임장 및 상해격발문
  - 대한민국임시정부 명칭을 붙여 임시정부 관련 문건임을 표기해줄 것을 희망
- 문영박 추조 및 유가족에게 보낸 특발
  - 특발의 경우 수신자가 '문대효' 임. 여기서 '대효'는 유가족을 지칭하는 것임.  
유가족이 문원만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인물을 지칭하기보다는 유가족으로 표기해 주길 희망
- 대한민국임시정부 특명, 조문, 편지, 봉투
  - '특발' -> '특명' / '추조' -> '조문' / '소봉투' -> '봉투'  
: 박물관에서 기존 사용하였던 명칭 희망

② 유장근 교수(경남대학교 역사학과) 의견(다음 장 참고)

- 소유자 중심으로 분리할 경우, 별개의 문서로 인식할 우려가 있음
- '이교재 관련 상하이 임정문서'를 앞에 붙여 역사적 맥락 부여 필요
  - 1) 이교재 관련 상하이 임정문서 - 이교재 위임장 및 상해격발
  - 2) 이교재 관련 상하이 임정문서 - 문영박 추조 및 문원만 특발
  - 3) 이교재 관련 상하이 임정문서 - 성낙문 특발, 황상규 추조, 임정발 김관제 및 윤상태 수신 편지 및 소봉투.

## 문화재 등록 명칭 개정 요청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받은 이교재 관련 문서명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4), 5)번 문서는 모두 독립운동가 이교재 선생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발행해서 가지고 들어온 문서들입니다. 특히 이 문서들은 국외에서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에 맞추어 국내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발행한 문서들이고 그 책임을 이교재 선생한테 의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3,4,5번의 문건은 생산맥락상 분리될 수 없는 문건임에도 저렇게 소유자 중심으로 분리시켜 놓으면 별개의 문서로 인식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역사적 맥락이 사라지고 파편화되어 버립니다. 또 동일한 생산자임에도 그게 표시가 되지 않으면 문서의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각 문서 앞에 "이교재관련 상하이 임정문서"로 표기하고 그 다음에 1) 2) 3)으로 부가표기해서 3개의 문서에 통일성과 역사적 맥락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검색에도 유익하고 문서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록물 관리 원칙에도 위와 같은 문서들의 경우 연결정보를 기술해 주어야 이를 활용하거나 검색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예)

- 1) 이교재 관련 상하이 임정문서- 이교재 위임장 및 상해격발
- 2) 이교재 관련 상하이 임정문서 - 문영박 추조 및 문원만 특발
- 3) 이교재 관련 상하이 임정문서 - 성낙문 특발, 황상규 추조, 임정발 김관제 및 윤상태 수신 편지 및 소봉투.

문서를 찾아내 연구한 사람의 의견입니다.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 기관의 무궁한 번창을 빕니다.

2020.1.6

경남대학교 역사학과 명예교수 유장근 드림

##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 ○ ○ ○ 문화재위원 (2019.7.11. / 2019.8.21.)

- 상해격발 및 이교재 위임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고자 하였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자료임. 더욱이 현재까지 이와 동일한 형식의 위임장이나 격발이 공개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도 근대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돋보임.
-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경북 달성의 문원만에게 보낸 추조와 특발,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에 소장중인 성낙문 특발, 황상규 추조, 이동녕 봉투, 조완구·김구가 국내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이시영이 김관제에게 보내는 편지 등 5점을 포함한 문서 9점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필요한 상비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또 국내의 유지와는 어떻게 접선하였는지를 살필 수 있는 귀한 문서임.
- 1931년 말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재정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국내 조직의 운영과 방식을 살필 수 있는 희귀하고도 소중한 유물임
- 다만 명칭, 분류, 가지번호 부여 우선순위 등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 ○ ○ ○ 서강대학교 교수 (2019.7.11. / 2019.8.21.)

- 해당 문서들은 독립운동가 이교재가 상해 임시정부에 방문 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서, 임시정부와 국내 간 연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임.
- 이교재 임명장과 임시정부 격발문은 국내와의 연결을 통해 조직과 자금을 확보하고자 한 증거가 되는 자료임. 문영박 후손 격발문 등은 임시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한 내용이며, 문영박·황상규에 대한 추조문은 국내 독립운동가에 대한 임시정부의 관심과 감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이교재 임시정부 관련 문서들은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여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 ○ ○ ○ 대구대학교 교수 (2019.7.11. / 2019.8.21.)

- 상해발 격문과 임명장은 임시정부에서 국내 및 일본 각지의 특파원 운용 상황에 대하여 추찰해볼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자료임. 또한 문장지 추조문과 문대효 앞 특발문, 황상규 추조문 등은 1931년 만주사변이 발발 후 국제정세 대변동으로 독립운동 재흥의 호기가 왔다고 판단한 임시정부의 자금 조달 계획과 실행방법 등에 대하여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임. 이들 모두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영구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등록명칭 : 대한민국임시정부 이교재 위임장 및 상해격발  
대한민국임시정부 문영박 추조 및 문원만 특별  
대한민국임시정부 특별, 추조, 편지 및 소봉투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붙임1>

「이교재 임시정부 문건」 세부목록

	발신자	지역	수신자	문서 종류	작성일	원본 소장처	사진	세로 ×가로
①	임시정부 조완구 김구	창원	이교재李敎載	임명장	1931. 11. 20.	창원 이교재 후손	이중광→ 	22.8 ×50.3 cm
②	임시정부		이중광李中光	격발	1931. 10. 3.		※ 2종 문서를 1건으로 장황	
③	임시정부	달성	문영박 (유족)	추조	1931. 10. 3.	대구 달성군 남평문씨 인흥세거지		20.8 ×16.0 cm
④	임시정부	달성	문영박 (유족)	특별	1931. 10. 3.			18.7 ×22.3 cm
⑤	임시정부	밀양	황상규黃尙圭 (유족)	추조	1931. 10. 3.	부산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18.6 ×13.9 cm
⑥	임시정부	창녕	성낙문成洛文	특별	1931. 10. 3.			16.2 ×24.6 cm
⑦	이시영	고성	김관제金觀濟	편지	1931. 11. 17.			25.3 ×20.2 cm
⑧	내무장 조완구 재무상 김구	고성 달성	대단大端 김관제金觀濟 윤상태尹相泰	편지	1931. 11. 20.			26.7 ×37.9 cm
⑨	이동녕		알수없음	명함	알수 없음			9.9 ×4.3cm



## 〈붙임2〉

### 성낙문 관련 의견서

2019.9.25.

○○○(독립기념관 연구위원, 문화재전문위원)

□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대한민국 13년, 즉 1931년에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보낸 특발(特發)의 수신자 ‘성낙문’이라는 인물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중국 상해 대한임국임시정부에서 경남 창녕(昌寧)의 성낙문(成洛文)에게 보낸 독립운동 자금 지원 요청 공문. 이 문건은 1931년 10월 3일 건국기원절에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성낙문에게 보낸 순 한문으로 쓴 공문이다. 이에 대한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 특발(特發)

본 정부는 정성이 없고 덕이 부족하고 충성스럽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탓에 창립한 지 이미 13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조국의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사회의 정성에 보답하지 못하였으며, 한낱 환영(幻影) 속에 있으면서 세상에 우리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적도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일중(日中) 대사변이 거세게 일어나 암암리에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고 있으니, 천재일우의 좋은 기회라는 것을 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으로 조선의 혼을 환기시키고 밖으로 중국·러시아와 힘을 합쳐서, 난폭하고 의리 없는 일본 제국주의를 영원히 타도하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세워야 합니다. 이에 무궁한 동양(東洋)의 평화와 유신(維新)의 책략을 가지고 4264년 기원절(紀元節) 날에 의기를 떨쳐 건의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파견하여 격문을 통해 건의의 대강을 고하는 것은 의리로써 함께 의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명(天命)이 시키는 것이요 인도(人道)가 의롭게 여긴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부가 고립된 상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요사이 국내외에서 공히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물며 올해 조선에 도래한 수많은 사건과 일중(日中)의 큰 문제가 겹쳐서 발생한 이후로는 여러 방면의 지출이 예산을 훌쩍 뛰어넘어 현재 잔액이 고갈된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맞닥뜨린 채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특과원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겨 출발하도록 명했으나 활동자금과 상비금의 경우에 1동원(銅元)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형세상 의롭지 못하기는 하지만 최후의 방도로 생각해 낸 것은 오직 귀하께서 고상한 의리로서 이 상비금을 능히 찬조함으로써 힘없는 정부를 도와주고 특과원의 임무 완수를 거들어주어 끝없는 국권(國權)을 확립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귀하에게 특별히 바라고 특별히 명하는 바입니다.

기원 4264년 대한민국 13년 10월 3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상해

본국 경남(慶南) 창녕(昌寧) 성낙문(成洛文) 선생 귀하

이동녕(李東寧)

-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 13년(1931) 10월 3일 경남 창녕의 성낙문(成洛文)에게 보낸 ‘특발(特發)’이다. 이 문서는 국내에 유지인 ‘성낙문’에게 독립운동 자금 제공을 요청하는 한문으로 된 독립운동자금 요청서라고 할 수 있다.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는 독립운동 자금을 수합하기 위해 국내에 특파원을 파견하거나 혹은 임시정부와 연결된 비밀결사가 직접 자금을 수합하였다. 즉, 전자인 임시정부에서 국내 특파원을 파견하는 경우도 있었고, 후자인 임시정부와 연결된 단체에서 대행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동아대에 소장된 이 문서는 임시정부에서 직접 특파원을 파견하여, 국내의 유지들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요청할 때 제시된 문건이다. 임시정부에서는 독립운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919년 성립 초기부터 국내에 특파원을 파견하였다. 국내에 파견된 특파원들은 국내의 독립운동에 뜻이 있는 인사들을 찾아가 독립운동자금을 수합하거나, 혹은 부호들에게 독립운동자금을 염출하였다.
- 임시정부에서 ‘특발’이라는 형식의 공문을 통해 국내 유지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요청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이 ‘특발’을 발행하기 직전 일제는 1931년 9월 18일 관동군 장교들이 유조호(柳條湖) 부근에서 일본이 운영하는 남만주철도 노선을 일부러 폭파하고는 장학량의 병사들과 무장한 비적들에게 그 죄를 덮어씌웠다. 이 사건을 조작한 관동군 참모 이타가키 세이시로(板垣征四郎)는 봉천시내에 주둔한 동북변방군 병영을 공격하라고 독립수비대와 보병 제29연대에 명령을 내렸다. 관동군은 남만주철도 노선상의 전략 거점들을 장악하는 만주사변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국제적으로 일본의 침략을 비판하는 여론이 고조되었으나, 임시정부는 계속된 침체와 위기에 처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임시정부에서는 독립운동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특발’을 통해 국내의 유지들로부터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1931년 당시 백범은 미주 동포들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었다.<sup>1)</sup>
-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독립운동 자금 제공을 요청받은 사람은 경남 창녕에 사는 ‘성낙문’이다. 이 ‘성낙문’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다. 창녕성씨 대종회 홈페이지 「인터넷 족보」상에서 검색한 바에 의하면 ‘成洛文’이라는 인명은 없다. 그렇지만 ‘成樂文’이라는 인명은 여러 명이 나온다. 인터넷 족보상에서 인명이 검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문서에 나오는 ‘성낙문’의 ‘洛’자는 ‘樂’자일 가능성이 높다. 만일, 이 문서의 ‘成洛文’이 ‘成樂文’이라면, 1931년 당시 생존했던 인물은, 1890년 음력 12월 22일 태어나 1964년 음력 11월 18일 사망한 초명(初名)이 인출(仁出), 자(字)가 경수(景壽)인 인물이 일 것이다.<sup>2)</sup>

1) 김구 지음, 도진순 탈초·교감, 『정본 백범일지』, 돌베개, 2016, 396-397쪽.

2) 창녕성씨 대종회 홈페이지, 「인터넷 족보」 참조.

○ 경남 창녕의 가장 대표적인 가문인 ‘창녕 성씨’들은 지역의 유지로서 부호들이 적지 않게 살고 있었다. 이 문건에 등장하는 ‘성낙문’도 경남 창녕에 거주하는 부호 중에 한 명이다. 그런데 임시정부에서 발급한 ‘특별’이 ‘성낙문’에게 전달되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이 ‘특별’을 전달받았다고 하면, 임시정부로부터 독립운동 자금 요청을 받은 ‘성낙문’이 독립운동 자금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 성낙문의 친일 활동

- 성낙문은 경남 창녕의 대지주로서, 1931년 4월 부산지방법원 창녕출장소 청사로서 건물 1동 및 부속건물과 설비를 기부하였다. 그래서 1939년 12월 21일 포상(褒狀)을 받은 사실이 있다.

○ 성낙문 관련 자료

- 『매일신보』 1930년 5월 26일자, 「成樂文氏 特志」.

창녕군 대지면 관내는 수년내 旱災로 인하여 농촌의 困憊는 말할 수 없는 형세에 있음은 일반이 주지하는 바, 더욱 직접 구제를 요하는 수백호 가족은 마야호로 餓死에 당면하였었는데, 이 참상을 들은 창녕군 성낙문씨는 자발적으로 私財 3백여원을 投하여 大麥 30여석을 매입하여 백여호 窮民에게 분급하였는데, 배급 당일은 면장 이상열씨의 의미 심장한 취지 전달과 함께 麥嶺중에 生路를 얻은 窮民은 感淚에 넘치며 일반의 稱頌이 藉藉하다.

- 『朝鮮新聞』 1928년 12월 4일자, 「慶南昌寧郡小作慣行의 改善」.

창녕군 대지면 성낙문 의뢰토지필수 300, 소작인수 340명

- 『조선총독부관보』 1940년 1월 12일자, 「회보」, 67쪽.

“소화 6년(1931) 4월 부산지방법원 창녕출장소 청사로서 건물 1동 및 부속건물과 설비를 기부”하였다고 하여, 소화 14년(1939) 12월 21일 포상(褒狀)을 받았다.

## 〈붙임3〉

# 「이교재 임시정부 문건」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이교재 임시정부 문건
2. 소재지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신길 105 창원시립마산박물관 / 대구 달성군 화원읍 인흥 3길 1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3. 소유자 : ○○○ 평문씨세거지 /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4. 조사자 의견

### <○○○ 문화재위원(2019.7.11./8.21.)>

- 1) 조성연대
  - 1931년 등
- 2) 현상
  - 대체로 온전하나 일부 문서는 보존처리가 필요함
- 3) 내용 및 특징

#### 가. 『상해격발 및 이교재 위임장』 (『이교재 위임장 및 상해격발』)

- 이교재(李敎載, 1887~1933)는 1931년에 대한민국임시정부로부터 경상남북도 상주(常駐)대표로 임명되었음. 이후 상해에서 자금 모금을 위하여 여러 문서를 가지고 국내로 입국하였으나 문건을 전달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고 함.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되었음.
- 처음 그가 가지고 온 문서는 몇 점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사망 후 부인이 몰래 보관한 문서는 모두 9점이었음. 이교재와 관련된 2점 외의 문서들은 1963년에 언론에 공개되면서 문영박 후손들의 요청으로 2점은 남평문씨 세가에 전해졌고, 나머지 5점은 현재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음.
- 이중에서 이교재 후손이 소장하고 있는 문서는 <사진1>과 같이 이교재를 경상남북도 상주대표로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이중광을 특파원으로 임명한다는 상해격발 등 2점임. 이교재 위임장의 내용을 국역하면 다음과 같음.

## 이 교 재

오른쪽에 기록한 사람을 경상남북도 상주대표로 하며, 왼쪽에 기록한 사항을 위임함.

하나, 뜻있는 사람(有志者)의 연락에 관한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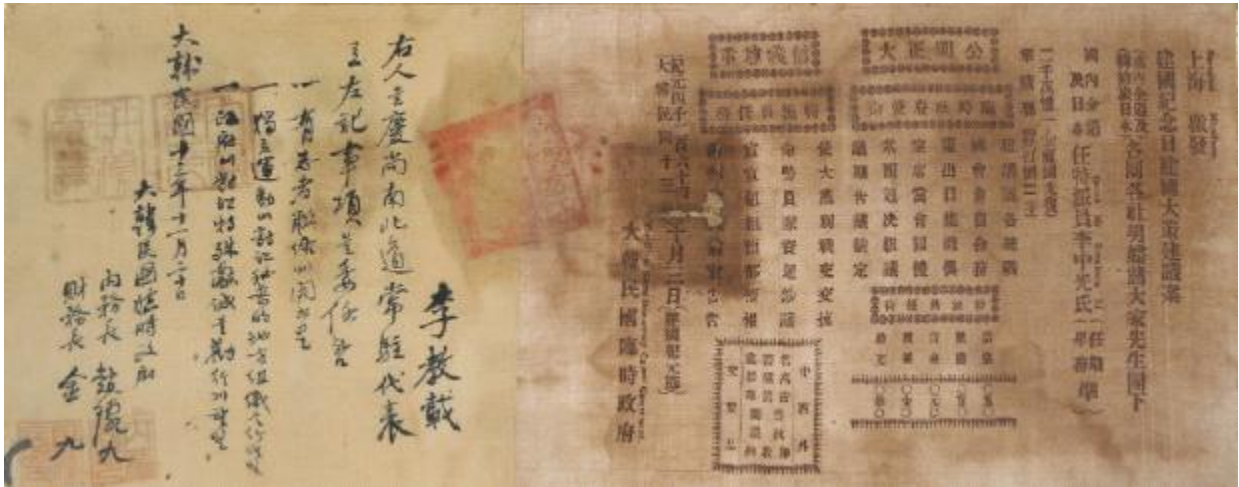
하나, 독립운동에 대한 비밀적 지방조직을 행할 일,

하나, 정부에 대한 특수한 헌성(獻誠, 정성을 다해 바침)을 권장하고 행할 일

대한민국 13년(1931) 11월 2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장 조완구[인] 재무장 김구[인]

- 이 위임장은 1931년 11월 20일에 이교재에게 발급된 것으로 비단에 필사되어 있음. 발급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무장 조완구과 재무장 김구임. 「內務長印」, 「財務長印」이라는 관인(3.6×3.6cm)이 조완구와 김구의 인명아래에 각각 찍혀있음. 그리고 문서의 왼쪽 윗부분에는 「內務部印」, 「財務部印」(4.7×4.7cm)이라는 정방형의 관인이 찍혀 있음.
- 그리고 이중광을 특파원으로 임명한다는 『상해 격발』(上海 檄發, Shanghai Manifesto)은 이교재위임장보다 한 달 이상 빠른 1931년 10월 3일(건국기원절)에 작성된 것임. 이 문서는 분홍색 비단에 인쇄되었으며, 발급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The Great Korea Democracy Casual Government)임. 『상해 격발』이라는 문서명의 다음 행에는 “建國記念日建國大策建議案”이라는 제명아래 “(國內全道及)(韓僑旅日本)各團各社男婦諸大家先生閣下”와 같이 국내외 우리 동포에게 보내는 문서임. 주요내용은 ”국내전도 및 일본의 특파원으로 이중광씨를 임명한다.(國內全道 及日本 任特派員 李中光氏)는 것임. 다음 행에는 “조국의 광복을 위해 이천만 동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일본을 타도하기 위하여 중국과 러시아와 연맹하자”[二千萬惟一心(祖國光復), 華俄聯盟(打倒日本)]는 글이 찍혀 있음. 그런데 “타도일본” 중의 “日”자는 옆으로 누어 놓았고, “本”자는 위아래를 거꾸로 식자해 놓았는데, 아마 일본을 붕괴시켜 독립을 찾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임시정부의 사명 “建國策定衆議(건국책정중의)” 등 6가지의 임시정부와 사명과 “使命宣傳(사명선전)” 등 8가지의 특파원임무도 찍혀 있음.
- 이 상해 격문에 보이는 이중광은 별도의 인물로 보이기도 하나 각 지역의 특파원을 대표하는 대표명 또는 가명(假名)으로 보이기도 함. 그런데 오래전부터 이 두 문서가 붙어 있었다고 하고, 이어 붙인 부분에 정방형의 관인이 찍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문서에 관한 이중광은 이교재로 보는 편이 적절하다고 추정됨. 그렇다면 1931년 10월 3일에 이중광을 특파원으로 임명한다는 격발을 인쇄한 뒤 이어 각 지역별로 대표를 위임한 것이 아닌가 함.



<사진1> 『상해격발 및 이교재 위임장』 (『이교재 위임장 및 상해격발』)

- 이와 같이 이 두 문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고자 하였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자료임. 더욱이 현재까지 이와 동일한 형식의 위임장이나 격발이 공개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도 근대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돋보임.
- 그리고 이 두 문서는 별개의 문서라기보다는 하나의 문서로 보이므로 『상해격발 및 이교재 위임장』 (또는 『이교재 위임장 및 상해격발』)이라는 명칭으로 등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나. 『문영박 추조 및 문원만 특발』**

- <사진2>에 보이는 문영박 추조(追吊) 및 문원만 특발(特發)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31년에 경북 달성에 거주하다 사망한 문영박(文永樸, 1880~1930)의 아들에게 보낸 추조와 특발 등 두 종류의 문서임. 이 문서들은 이교재가 가져왔으나 전달하지 못하고 사망하자 그대로 이교재의 집안에 비장되어 있었음. 이교재의 독립활동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인 마산일보(1954년 4월 15, 17일)에 일찍이 소개되었음. 해방이후 동아일보(1963년 3월 16일, 「32년만에 주인 찾는 감사장」)에서 이 문서에 대해 소개가 되자 문영박의 후손이 연락을 했고, 이에 이교재 부인인 홍태출(洪泰出) 여사와 양자 이정순(李正淳)이 문영박의 아들인 문원만(文元萬)에게 기증함으로써 오늘에 전하게 된 것임.
- 추조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대한민국 13년(1931) 10월 3일에 발급한 것으로 전해에 사망한 문영박의 유족에게 늦게나마 조의를 표명한 것임. 분홍색 비단에 인쇄되었으며, 관인은 없음. 내용은 다음과 같음.

본국 경복 달성

대한국 역사의 주인이 되는 어른 文章之(“장지”는 문영박의 자) 선생의 훈령에 늦게나마 조의를 표합니다.

기원 4264년, 대한민국 13년 10월 3일(건국기원절)에 대한민국임시정부 일동은 조문(을 위해 사람을) 파견합니다.

상해 Shanghai

- 특발은 상해에 있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대한민국 13년(1931) 10월 3일에 추조와 함께 본국 경복 달성에 거주하던 文大孝(대호란 부친상을 당한 사람에게 편지에서 높이 이르는 용어이며, 여기에서는 문영박의 아들 문원만을 일컬음)에게 보낸 것임. 이 특발은 분홍색 비단에 신활자로 인쇄되었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 위에는 정방형의 임시정부 관인이 찍혀 있음.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본 정부는 정성과 덕이 부족한데다 불충(不忠) 불의(不義)하여, 창립한 지 13년이 되었으나 조국의 빛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회의 정성에도 보답하지 못하였습니다. 한갓 환영(幻影)에 있으면서 세상에 우리의 의견을 낸 적도 없습니다. 다행히 현재 日中대사변이 거세게 일어나 암암리에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고 있으니, 꿈에서도 천재일우의 좋은 기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안으로는 조선의 혼을 일으키고, 밖으로는 중국·러시아와 힘을 합쳐서 난폭하고 의리가 없는 일본 제국주의를 영원히 타도하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크게 세워야 합니다.

이에 무궁한 동양의 평화와 유신의 책략을 가지고 (단기) 4264년 기원절(紀元節, 현재 개천절)에 의로움을 떨치면서 의견을 밝힙니다. 대개 특별히 격문을 보내어 의견을 밝히고 의리로써 함께 의논합니다. 이것이 천명(天命)이며 사람의 도리라는 생각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 정부가 고립된 상태이나 힘을 다하고 있다는 점은 요즈음 국내외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올해 수많은 사건과 日中の 큰 문제가 겹쳐 발생한 이후로는 여러 방면의 지출이 예산을 초과하여 현재 적자 상태입니다. ...이에 귀하에게 특별히 바라고 알리는 바입니다.

기원 4264년 대한민국 13년 10월 3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상해Shanghai

본국경복달성 문대효 애전(本國慶北達城 文大孝 哀前)



<사진2> 문영박 추조(좌) 및 문원만 특발(우)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경북 달성의 문원만에게 추조와 특발을 보낸 이유는 한 해전인 1930년에 사망한 문영박의 혼령에 늦게나마 조의를 표하면서, 당시 활동을 위한 상비금이 부족한 임시정부가 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었음. 이렇게 이 두 문서를 통해 당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필요한 상비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또 국내의 유지와는 어떻게 접선하였는지를 살필 수 있는 귀한 문서임. 그런 점에서 문화재로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물이라고 하겠음.



다. 『성낙문 특발, 황상규 추조, 대한민국임시정부 편지 및 봉투』

-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에 소장중인 이 유물은 성낙문 특발, 황상규 추조, 이동녕 봉투, 조완구·김구가 국내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이시영이 김관제에게 보내는 편지 등 5점이다. 현재 이 유물 5점은 함께 표구되어 하나의 액자에 보존되고 있음. 박물관 측의 옛 사진을 검토한 결과, 입수 때부터 이렇게 표구가 된 사실을 <사진3>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음. 이 유물들은 모두 이교재 집안에서 유출된 것으로 동아대학교에서는 1963년 2월 1일에 이 유물을 입수 등록하였음. 5점의 유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사진3> 『성낙문 특발, 황상규 추조, 대한민국임시정부 편지 및 봉투』 (좌: 1963년, 우: 현재)

○ 다-1. 성낙문 특발

- 이 특발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창녕의 성낙문에게 보낸 것임. 문영박 특발과 같이 1931년 10월 3일에 보낸 것으로 내용은 거의 동일함. 마지막 수급자 표시는 “本國慶南昌寧 成洛文先生 貴下”라고 되어 있음. 이 특발도 분홍색 비단에 인쇄되었으며, 「大韓民國臨時政府印」이라는 정방형의 관인이 찍혀있음.



<사진4> 성낙문 특발

○ 다-2. 황상규 추조

- 추조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대한민국 13년(1931) 10월 3일에 발급한 것으로 그 해에 사망한 경남 밀양 출신의 대한민국 의사(義士)인 백민(白民) 황상규(黃尙圭, 1891~1931)의 혼령에 늦게나마 조의를 표명한 것임. 분홍색 비단에 인쇄되었으며, 관인은 없음. 형식과 내용은 문영박의 것과 거의 동일함.



<사진5> 황상규 추조

○ 다-3. 이동녕 봉투

- 전면에 이동녕이라는 이름이 인쇄된 소형 봉투로 이름 아래에는 「李東寧」이라는 원형의 작은 도장이 찍혀 있음. 봉투는 크기로 보아 편지봉투의 용도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음.



<사진5> 이동녕 봉투

○ 다-4. 조완구, 김구가 국내의 개인(台端)에게 보낸 편지

- 붉은 색의 「大韓民國臨時政府」가 가운데 찍혀져 있는 임시정부의 전용 용지에 필사된 편지로, 1931년 11월 20일에 조완구(趙琬九)와 김구(金九)가 국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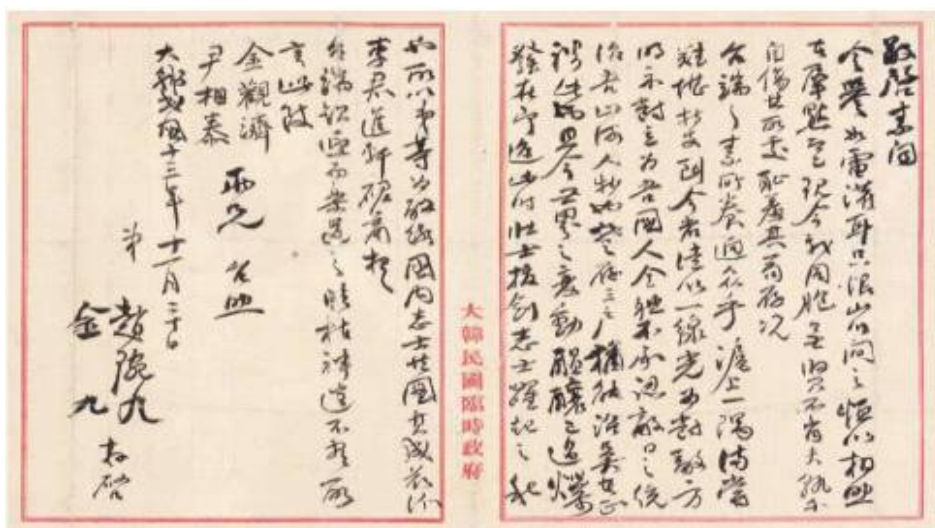
개인에게 보낸 것임. 여기에서 태단은 귀하 또는 덕의 의미로 기관이나 단체가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에 사용하는 용어임. 이 개인은 본국 내에 거주하던 항일 인사로 추정됨. 내용은 연합하여 독립운동을 하자며 이군(李君)을 파견하니 협의하자는 것임. 이 편지는 이교재가 전달하려던 것이므로 이군은 이교재가 아닌가 함. 또한 말미에는 김관제(金觀濟)와 윤상태(尹相泰, 1882~1942)를 살펴볼 것을 주문하고 있음. 국역되어 소개되고 있는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공경히 아웁니다. 훌륭한 명성이 우레처럼 쩌렁쩌렁 울리는 것을 평소에 익히 들었습니다만 산천에 가로막힌 탓에 항상 마음으로만 서로 통하는 것이 그저 한스러울 따름입니다. 지금 우리 동포 가운데 어진 자나 불초한 자를 따질 것이 없이 그 누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상심하지 않겠으며 구차히 존재하는 우리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大端(대단)처럼 평소 함양한 바가 보통 사람에 비해 월등한 분일 경우야야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상해의 한 모퉁이에서 견디기 어려운 고초를 두루 겪으며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오직 한 줄기 빛으로 적국을 상대하기 위해서이고, 대항한다는 뜻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적국 일본이 우리 산화와 인물을 통치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 전체가 승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초나라에 남겨진 세 집이 오히려 오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경우를 말합니다. 게다가 오늘날 세계는 변동의 기미가 충분히 무르익어 폭발이 눈앞에 닥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를 만났으니 씩씩한 선비라면 칼을 뽑아들고 의로운 선비라면 분연히 떨쳐 일어난 때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국내의 의로운 선비와 연합하여 그 성취를 함께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군(李君)을 현하(軒下)에 파견하여 협의토록 하는 것이니, 대단께서 이군을 환영하여 기꺼이 말씀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편지를 마주하고 있노라니 그리운 마음이 간절한 나머지 할 말을 다할 수 없습니다. 이 편지를 김관제, 윤상태 두 형에게도 전해주시시오. 헤라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13년 11월 20일

아우 조완구, 김구는 삼가 아웁니다.



<사진6> 조완구, 김구가 국내의 개인(台端)에게 보낸 편지

○ 다-5. 이시영이 김관제에게 보내는 편지

- 왼쪽 아래 부분에 검은색의 「臨時政府」가 찍혀져 있는 임시정부의 전용 용지(10행)에 필사된 편지로, 1931년 11월 17일에 이시영(1869~1953)이 김관제에게 보낸 것이다. 3행 아래의 이시영 왼쪽에는 「李始榮」이라는 타원형의 소형 도장이 찍혀 있음. 이시영이 김관제를 “仁兄(인형)”이라고 하고, 자신을 “弟(제)”라고 하고 있음. 내용은 이단 논설이나 내외의 사상이 3.1운동정신과 다르므로 민족관념이 투철한 사람이 단체를 결성하여 서로 호응토록 해야 한다는 것임. 말미에는 心山(심산, 金昌淑: 1879~1962)의 안부를 묻고 있음. 국역되어 소개되고 있는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김관제 인형께서 보십시오. 형세가 막히고 금지되어 편지로 안부를 여쭙는 것이 편하지 않으나 애뜻한 이 마음이 한 번도 편지와 더불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에 李友를 통해 제 속내를 간략히 터놓습니다. 바라건대 묵묵히 도모하시고 나날이 복되시기를 송축합니다.  
아우 이시영 올림. 11월 17일.

오늘날 바람과 구름이 사납게 몰아칠 때 한밤중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먼 곳과 가까운 곳에서 모두 그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리 준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일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이단의 사악한 논설이 청년들을 유혹한 나머지, 안 밖의 사상이 삼일운동 정신과 괴리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민족관념을 중시하는 사람이 △△ 비밀리에 단체를 굳게 결성하여 안팎으로 하여금 서로 호응하게 함으로써 커다란 사업을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실한 일입니다. 국내에 있는 마흔 이상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러한 사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의 권위가 오히려 없어서, 소리 지르며 이끌고 나갈 수 없으니 개탄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심산(김창숙의 호)형은 근자에 어떤 상황입니까. 연로하고 병이 많아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듯합니다. 매항 생각이 여기에 미칠 때 마다 진정치 못하겠습니다.



<사진7> 이시영이 김관제에게 보내는 편지

#### 4) 문헌자료

- 남평문씨인홍세거지, 대구 달성, 남평문씨인홍세거지, 2014.
- 근대: 그 새로운 시대,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2018.

#### 5)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1931년에 창원에 거주하던 이교재는 대한민국임시정부로부터 자신의 위임장을 포함한 여러 점의 문건을 수령한 뒤 이 문서들을 국내에 거주하는 당사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전달하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되었고, 그 문서들은 이교재의 부인이 가내(家內)에 비장함으로써 보존이 잘 되게 되었음. 이중에서 『상해격발 및 이교재 위임장』 등 2점을 제외하고는 해방이후에 이교재 집안에서 유출되었음. 곧 『문영박 추조 및 문원만 특발』(2점)은 달성의 문원만에게 전달되었고, 『성낙문 특발, 황상규 추조, 대한민국임시정부 편지 및 봉투』 등 나머지 5점은 1963년에 동아대학교에서 수집 보관하게 되었음. 그래서 이 문서 9점들은 이교재 집안에 그대로 전하는 2점, 문원만에게 전해진 2점 그리고 동아대학교에 전하는 5점 등으로 구분하여 등록하는 것이 문서유전의 역사성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됨.
- 이 문서 9점은 1931년 말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재정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국내조직의 운영과 방식을 살필 수 있는 희귀하고도 소중한 유물이므로 문화재로 등록하여 항구히 보전할 필요가 있음. 다만 명칭, 분류, 가지번호 부여 우선순위 등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서강대학교 교수(2019.7.11/8.21)>

1) 조성연대

○ 1931년 10월 3일, 11월 20일

2) 현상

○ 보관 또는 표구 등으로 훼손된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수리 보완이 요망됨

3) 내용 및 특징

가. 남평문씨세거지 소장 문영박 추조 및 특발

○ 대구 달성 남평문씨세거지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다 1930년 사망한 달성의 문영박(文永樸, 1880~1930)에 대한 임시정부의 추조문과 특발문이 소장되어 있음. 임시정부에서는 이교재를 통하여 문영박 후손에게 조문을 전달하고,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에 감사하는 특발문을 전달하고자 하였음. 특히 ‘대한민국임시정부 일동’의 명의로 발행된 이 두 문건은 1931년 10월 3일 건국기원절에 작성되었으며, 비단에 활자로 인쇄되어 있음. 다만 이 두 문건은 이교재가 일제에 체포되었다가 사망하여 일제강점기에 전달되지 못하였다가, 1960년대 이교재 후손이 집을 수리하던 중 천장에서 발견되어 남평 문씨 종중에 전달되었음. ‘추조’는 임시정부 명의로의 조문이고, ‘특발’은 임시정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있음. 따라서 추조는 문장지(文章之) 선생에 대한 조문인데, ‘장지’는 문영박의 자였음. 특발은 문대효(文大孝) 앞으로 되어 있는데, 문대효는 문영박 자손들을 지칭한 것임. 임시정부에서는 이와 동일한 형식의 인쇄문건을 이교재 편에 전달하고자, 황상규에 대한 추조문과 성낙문에 대한 특발문을 발행하였음.



사진 1) 문영박 추조



사진 2) 문영박 특발

나.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 임시정부 관련 문서 5건

- 석당박물관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문건으로 ① 황상규 추조문 ② 성낙문 특발문 ③ 조완구·김구가 김관제·윤상태에게 보낸 편지 ④ 이시영이 김관제에게 보낸 편지 ⑤ 이동녕 명함이 수장되어 있음. 이 문건은 모두 이교재가 임시정부에서 전달을 부탁받아 가져온 문건이나, 이교재가 일제에 체포되어 해당 인사들에게 전달되지 못하였음. 황상규 추조문과 성낙문 특발문은 대구 남평문씨세거지 소장의 문영박 추조문 및 특발문과 같은 성격의 문서로, 역시 비단에 활판인쇄로 작성되었음. 황상규(黃尙圭, 1891~1931)는 밀양 출신의 의열단원으로 국내 잠입후 체포되어 옥고를 치루고 신간회 등에서 활동하다가 1931년 9월 사망하였음. 임시정부에서는 황상규의 조문을 1931년 10월 3일 건국기원절 일자로 만들어 조의를 표하였는데, 문영박과 같은 형식의 추조문임. 성낙문 특발문 역시 문영박 후손에게 보낸 특발문과 동일한 형식과 내용인데, 성낙문은 후에 일제협력의 혐의가 있어서 논의가 요망됨.
- 조완구와 김구 명의의 편지는 김관제와 윤상태에게 보내는 것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공문 용지에 모필로 작성되었으며, 1931년 11월 20일자로 되어 있음. 이교재를 소개하며 임시정부의 지원을 부탁하는 내용임. 이시영이 김관제에게 보낸 편지는 임시정부 용지에 작성되었는데, 안부를 겸한 지원 부탁의 내용으로 1931년 11월 17일에 작성되었음. 역시 이교재의 편에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이교재의 체포로 전달되지 못하였음. 그리고 임시정부의 원로인 이동녕의 인장이 찍힌 명함이 있음.
- 이들 문건은 모두 이교재 사후 미망인이 어렵게 보관하다가 후손이 동아대학에 기증하였다고 함.



사진 3) 황상규 추조



사진 4) 성낙문 특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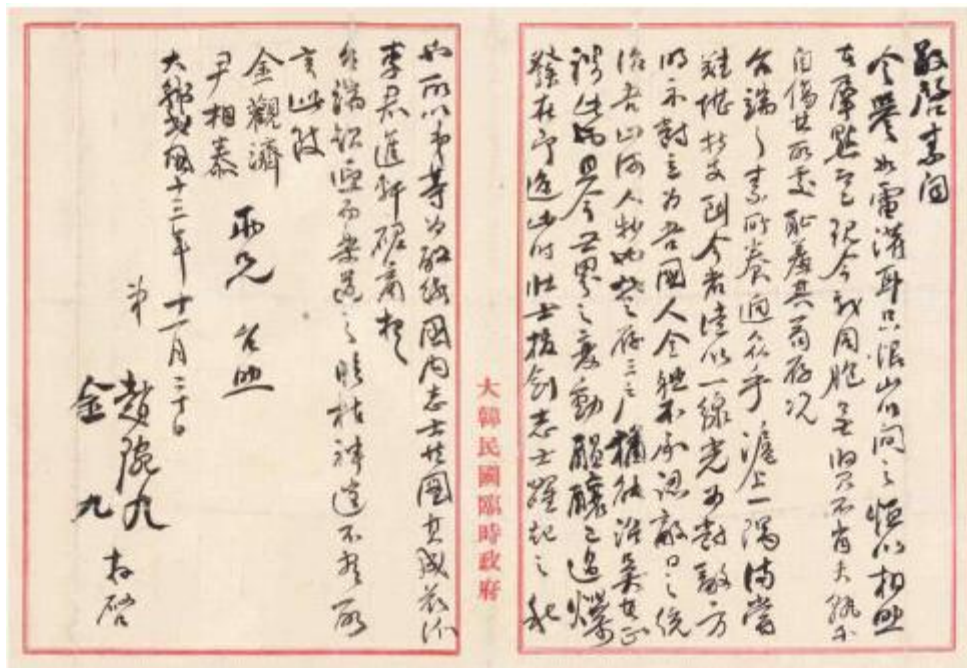


사진 5) 조완구·김구가 김관제·윤상태에게 보낸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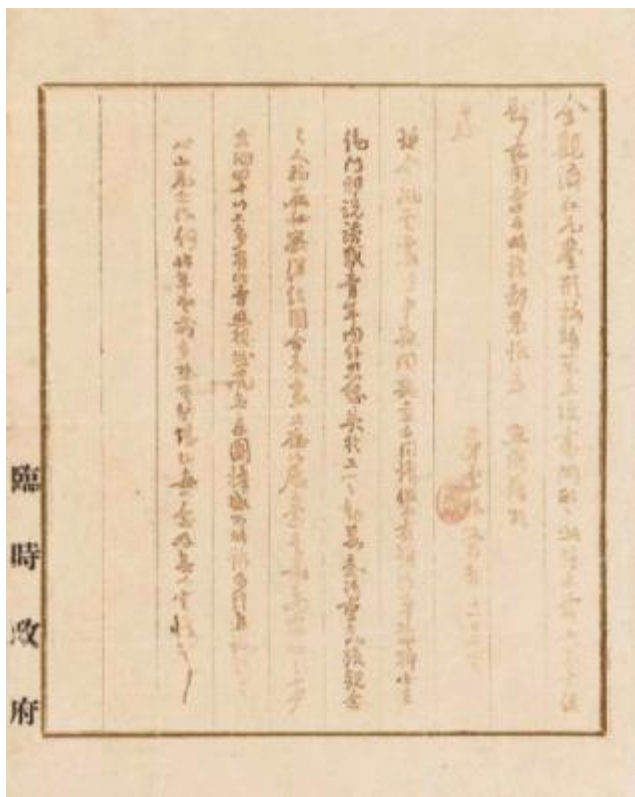


사진 6) 이시영이 김관제에게 보낸 편지



사진 7) 이동녕 명함

다. 창원시립마산박물관 소장 임시정부 격발문 및 이교재 특과원 임명장

- 임시정부의 격발문은 비단에 인쇄된 것으로 임시정부의 사명과 건국대책 등을 기재하였는데, 그 대상은 국내와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었음. 임시정부의 사명은 건국과 관련되어 의회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음. 격발문은 1931년 10월 3일자로 국내와 일본의 특과원으로 이중광(李中光)을 임명하는 내용이며, 특과원의 임무로 ‘사



명선전(使命宣傳), 데세선전(大勢宣傳), 당원조직(黨員組織), 별대조직(別隊組織), 전자예약(戰資豫約), 교통부립(交通部立), 교섭보고(交涉報告), 항의보고(抗議報告)’를 제시하였음. 특히 임시정부 지원금의 모집과 관련하여 고미술품의 기부 등을 언급한 점도 주목됨. 문서에는 임시정부 국채를 찍음. 현재 격발문에 기재된 이중광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이교재 특과원 임명장과 관련지어 보면 특정 개인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됨.

- 이교재 특과원 임명장은 대한민국임시정부 내무장 조완구와 재무장 김구의 명의로 1931년 11월 20일 이교재를 경상남북도 상주대표로 임명한다는 내용임. 임시정부에서는 1) 유지자 연락에 관한 일, 2) 독립운동에 대한 비밀적 지방조직을 행할 일, 3) 정부에 대한 특수헌성을 권행케 할 일 등 세 가지 임무를 이교재에게 위임한다고 밝혔음. 이는 독립운동가 간의 연락과 조직 운영 및 군자금 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곧 이것이 임시정부 특과원의 임무임을 알 수 있음. 문서에는 비단에 수기로 되어 있으며, 내무장과 재무장의 직인이 찍혀 있음.
- 임시정부 격발문과 이교재 특과원 임명장은 별도의 문서인데, 이 두 문서를 교부하고 함께 놓고 가운데에 임시정부 국채를 찍어 두 문서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줌. 임시정부 격발문은 인쇄된 문서인 것으로 미루어 이중광은 특정한 개인이기보다 특과원이 겸하는 것이 아닌가 짐작되나, 이 문서가 유일하기 때문에 확인되지는 않음. 현재 이 두 문서는 함께 배접되어 표구되어 있는데, 특히 격발문의 훼손이 크기 때문에 분리 수선이 요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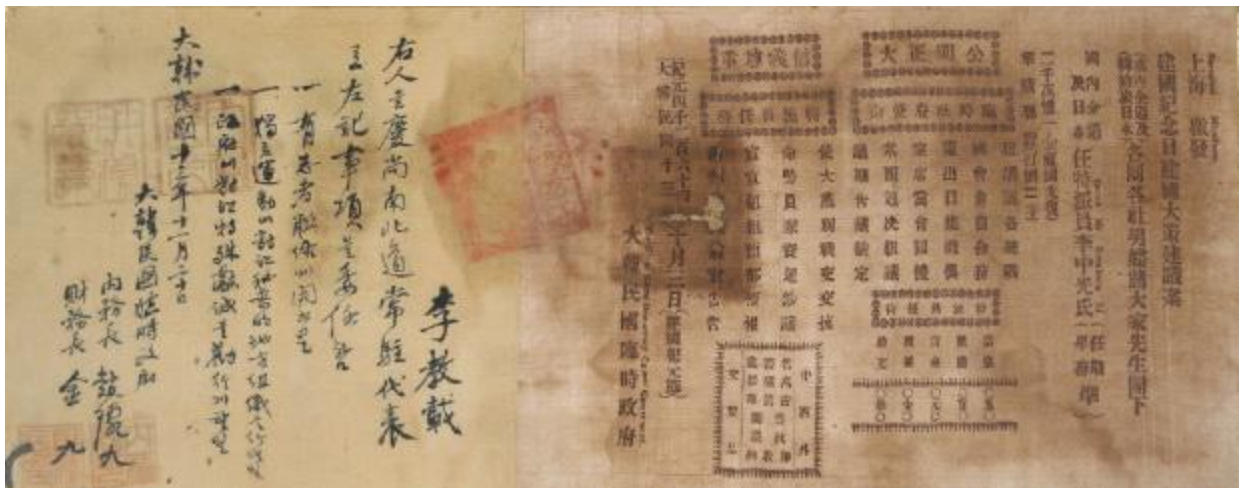


사진 8) 임시정부 격발문 및 이교재 특과원 임명장

#### 4) 문헌자료

- 유장근, 「창원 진전 출신 이교재의 독립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9, 2019
- H생, 「三鎭紀行」 1-9, 『마산일보』 1954년 4월 14일자-4월 23일자
- 『근대-그 새로운 시대』, 석당박물관, 2018

## 5)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이 문서들은 모두 독립운동에 진력해 오던 이교재가 상해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방문하여 받아서 국내에 들여온 것임. 특히 1930년 전후 임시정부와 국내와의 연계가 어렵던 상황에서도 이교재와 같은 지사를 통한 국내와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매우 귀한 자료임. 그 가운데 임시정부 격발문과 이교재 특파원 임명장은 임시정부가 국내와 지속적인 연결을 통하여, 조직과 자금을 확보하고자 한 구체적인 증거임. 문영박과 황상규의 추조문 역시 임시정부를 지원한 국내 독립운동가에 대한 임시정부의 관심과 감사를 확인할 수 있음. 문영박 후손과 성낙문에 대한 임시정부의 격발문은 국내에서의 임시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문서임. 조완구와 김구 또 이시영의 편지는 사신의 형태이지만 국내 지인들에게 임시정부의 지원을 부탁하는 내용으로 임시정부의 용지를 사용하였음. 이들 문건은 역사적 가치와 문화재적 중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등록문화재 등록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문서의 명칭은 ‘이교재 임시정부 관련 문서’을 제의함. 전체 문서를 각 호별로 분류가 가능하다고 생각함.
  - 제1호 창원시립마산박물관 소장(2건)
    1. 대한민국임시정부 격발
    2. 이교재 대한민국임시정부 특파원 임명장
  - 제2호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5건)
    1. 황상규 추조, 성낙문 격발
    2. 조완구·김구가 김관제·윤상태에게 보낸 편지, 이시영이 김관제에게 보낸 편지
    3. 이동녕 명함
  - 제3호는 대구 남평문씨세거지 소장(2건)
    1. 문영박 추조, 문영박 격발
- 단 성낙문 특발은 성낙문의 친일협력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가 요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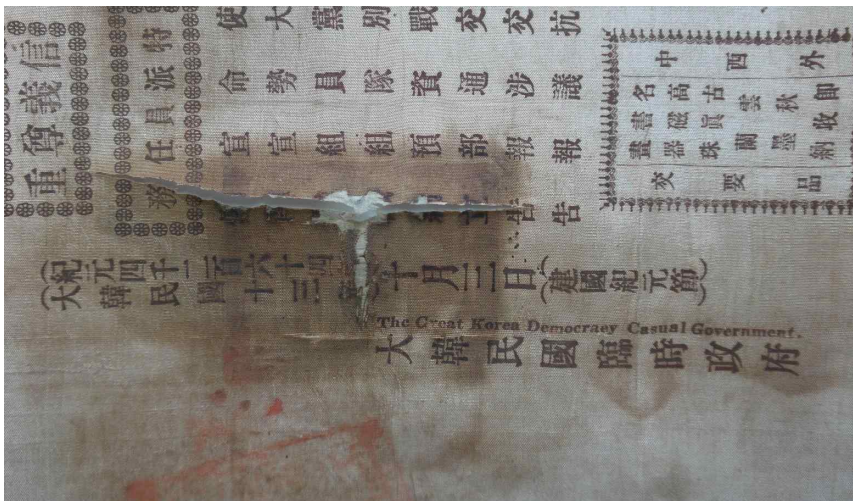
<○○○ 대구대학교 교수(2019.7.11/8.21)>

1) 조성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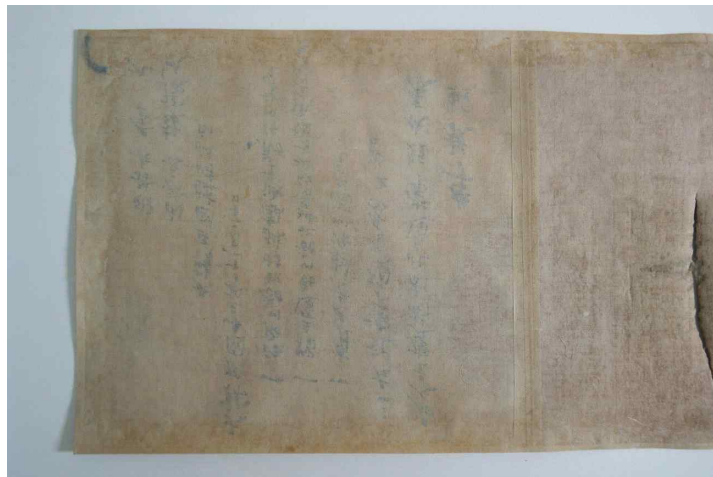
- 1931년

2) 현상

- 문장지 추조문, 문대호 앞 특발문 :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문면은 전문 판독이 가능함
- 상해발 격문과 임명장 : 격문의 좌측에서 4분의 1 지점에 세로 9.0cm, 그 중간에 가로 3.3cm 가량이 반십자(半十字) 모양으로 찢어지고 뜯겨져 공백이 생겼음. 그로 인해 2자가 완전 파훼되어 판독 불능이고, 4자는 부분 파훼로 겨우 판독됨. 나머지 부분은 보존 상태가 좋고 전문 판독이 가능함



<사진 1. 이교재 문서의 훼손 부위와 상태>



<사진 2. 이교재 문서의 배면과 찢어>

다. 황상규 추조문, 성낙문 앞 특발문, 김관제·윤상태 앞 편지, 이동녕 명함

- 보존 상태 양호하고, 문면은 전문 판독이 가능함

### 3) 내용 및 특징

#### 가. 문장지 추조문, 문대호 앞 특발문

- 문건 1의 제목으로 쓰인 ‘追弔’란 고인의 생전 업적을 되새기며 조상(弔喪)한다는 뜻임. 본문을 우리말로 옮기면, “본국 경북 달성의 대한민국 어르신인 아버님 文章之 선생의 영혼에 추조하나이다. 기원 4264년, 대한민국 13년 10월 3일(건국기원절) 대한민국 임시정부원 일동이 사람을 보내 조문함. 상해(Shanghai)”임.
- ‘特發’로 제목이 적힌 문건 2도 문건 1과 같은 날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명의로 작성된 것이고, “본국 경북 달성의 文大孝”로 수신인을 특정하였음. ‘대호’란 부친상을 당한 이를 편지에서 높여 부르는 말로, 여기서는 문장지의 아들인 문원만(文元萬)을 일컫는 것임. 내용은 임시정부가 그동안 무실 무력했다고 겸손하게 반성하고 그럼에도 이번에 만주사변 발발의 호기를 맞아 일제타도의 대업을 재추진하려 하는데 정부재정이 고갈된 형편인지라 특과원을 보내어 찬조를 요청하니 도와줄 것을 특별히 바라고 또한 명한다는 것임.
- 전문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음.

#### - “특발

본 정부는 정성이 없고 덕이 부족하고 충실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탓에, 창립한 지 이미 13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조국광복을 이뤄내지 못하였고 사회의 정성에 보답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저 환영(幻影) 속에만 안주하면서 세상에 우리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놓아본 적도 없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중·일 간의 대사변이 거세게 일어나 암암리에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고 있으니, 천재일우의 좋은 기회라는 것을 꿈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 사진 1. 문장지 추조문 >



< 사진 2. 문대호 앞 특발문 >

그러니 안으로 조선의 혼을 환기시키고 밖으로 중국·러시아와 힘을 합쳐 난폭하고도 신 의 없는 일본제국주의를 영원히 타도하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우뚝 세워야 합니다. 이에 무궁한 동양의 평화와 유신의 책략을 갖고서 4264년 기원절 날에 의기를 떨쳐 건의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파견하여 격문을 통해 건의의 대강을 고하는 것은 의리로서 함께 의논하는 것이오니, 이는 천명이 시키는 것이요 인도로서 의롭다고 여겨짐에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고립된 상태에서나마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요즘 국내외에서 공히 인정되는 바입니다. 하물며 올해 조선에 도래한 수많은 사건과 중일간의 큰 문제가 겹쳐 발생한 후로는 여러 방면의 지출이 예산을 훌쩍 뛰어넘어 현재 잔액이 고갈된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맞고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야 있겠습니까? 이에 중요 임무를 수행토록 명하여 특파원을 보냈으나, 활동자금과 상비금을 1원도 마련치 못했습니다. 형세상 뗏뗏하지 못하긴 하지만 최후의 방도로 생각해 낸 것은 오직 귀하께서 고상한 의리로 이 상비금을 찬조해주심으로써 힘없는 정부를 도와주고 특파원의 임무 완수를 거들어주어 끝없는 국권을 확립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귀하에게 특별히 바라고 특별히 명하는 바입니다.

기원 4264년 대한민국 13년 10월 3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상해  
본국 경북 달성 문대효 哀前” (\* 밑줄은 인용자)

- ‘文章之’는 1880년 경북 달성군 화원면 태생인 유학자 수봉(壽峯) 문영박(文永撲)의 자(字)였음. 그는 청판본(淸版本)의 한서(漢書) 1만여 권을 자비로 들여와 개인 서고인 만권당(萬卷堂)에 비치하고 거유(巨儒)들과 교유하였음. 1919년 이후로 전국 각지를 다니며 군자금을 수집하고 자기 재산도 처분하는 등의 여러 방법으로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내주면서 독립운동 지원 활동을 하다 1930년 12월 18일에 별세하였음. 그 공적으로 1980년 정부로부터 건국포장이 추서되었음(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으로 훈격 상향).
- 만주사변 발발 직후인 1931년 10월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의 재흥자금 조달을 담당할 특파원을 국내 및 일본 각지로 보내기로 하고, 경상남북도 대표로는 이교재를 11월에 임명하여 밀파하였음. 그때 임시정부에서 문장지의 사망 소식을 이미 접해 알고 있었기에 특별문과 추조문을 같이 작성하여 이교재에게 주어 문원만에게 전하도록 한 것임.

## 나. 상해발 격문과 임명장

- 2장 문건의 좌·우 접선을 중심으로 큰 관인을 찍어놓아서, 분리된 상태에서는 반쪽씩만 나오지만 잇댄 상태에서는 하나의 관인인 것이 확인됨. 날인 상태가 선명치 못하고 인주가 번져 판독이 어렵긴 하나, 인장은 세로·가로 각 3자로 ‘大韓民國臨時政府印’이라고 인각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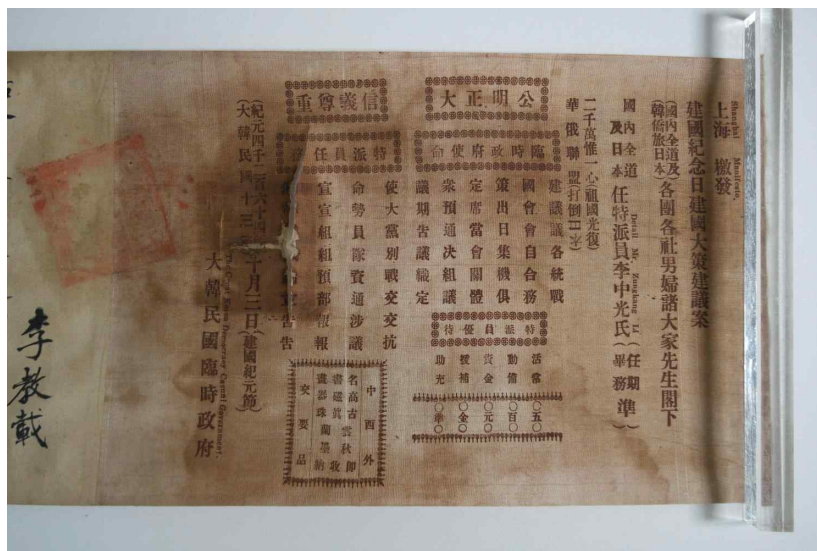
<사진 3. 이교재 문서의 임시정부 직인(추정)>

- 문건 1(우측)은 ‘상해에서 격문을 냄’을 먼저 밝히고, ‘건국기념일 건국대책 건의안’이라는 제목을 달았음. 앞의 기념되는 ‘건국’은 고조선 건국을 말하고, 뒤의 ‘건국’은 나라를 되찾은 후 새 나라를 세움을 뜻하는 것이었다고 판단됨.
- 격문이면서도 전체가 서술문이 아닌 개조 식으로 작성되었음. ‘국내 全道 및 일본에 韓僑로 있는’ ‘각 단체, 각계 사회의 남녀 여러 大家 先生’이라는 불특정 다수를 호명하는데, 그 다음 행은 구문(構文)이 모호하여 해석이 어려움. 국내 전도 및 일본에서 이 격문을 받아보는 이들 각인(즉, 앞의 ‘대가 선생’)을 ‘이중광’이라는 이름의 임시정부 특파원으로 임명한다는 뜻일 수도 있고, 이 격문을 내보여주는 이가 국내 전도 및 일본 담당 특파원으로 임명된 이중광씨라는 뜻일 수도 있음. 특파원의 임기는 ‘임무를 다할 때까지’로 부기해 놓았음.



<사진 4. 이교재 문서의 상해발 격문(우측)과 임명장(좌측)>

- 어느 경우든 ‘이중광’(Zungkang Li)이란 특정인의 실명이 아니라 임시정부 특파원 전원에게 공통으로 부여하는 대명사로 쓰인 것이라고 생각됨. 그래서 특파원 각자(Detail)를 (남녀 불문하고) ‘Mr.’로 표기한 것이기도 할 터임. ‘중광’은 대종교(大宗教) 계통의 상용 표현이던 ‘重光’을 격문 수신자 중의 다른 종교 신자도 감안하여 ‘中光’으로 바꿔놓은 것으로 보임. 이로 미루어 이 격문의 기초자는 문서 2(좌측) 말미의 서명자 2인 중에서 대종교 신도이던 내무장 조완구였을 것으로 판단됨.
- 다음으로 독립운동 노선의 기초 및 방략으로 ‘2천만이 한 마음 되어 조국을 광복’하며 ‘중국 및 러시아와 연맹하여 일본을 타도’할 것을 제시하였음. 이어서 ‘공명정대’를 모토로 하는 ‘임시정부의 사명’을 6자씩의 한자성구로 5개를 제시했고, 그 아래에는 5백 원 상당의 금전 기부로써 임시정부의 ‘활동자금’을 원조하고 그 ‘상비금’을 보충해주는 식으로 ‘특파원을 우대’해주기를 요청해 놓았음. 다음으로 ‘특파원의 임무’를 4자씩의 한자어로 된 8개 항으로 명기했으며, 중국 및 서양과의 외교에 필요한 다섯 종류의 물품을 열거하여 ‘즉시 수납’한다고 적어놓았음.
- 발행일은 ‘기원 4264년’과 ‘대한민국 13년’(즉, 1931년)을 병기한 후 10월 3일을 적었으며 그 날이 ‘건국 기원절’임을 부기하였음. 마지막 행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기입하고 작은 글씨로 The Great Korean Democracy Casual Government를 병기하였음. 이 영어 표기는 통상적인 표기방법과는 달라서 다소 어색하고 의아한 바 있기는 하나, 영어에 능숙치 않던 조완구가 비밀유지를 위해 직접 기안하다보니 그랬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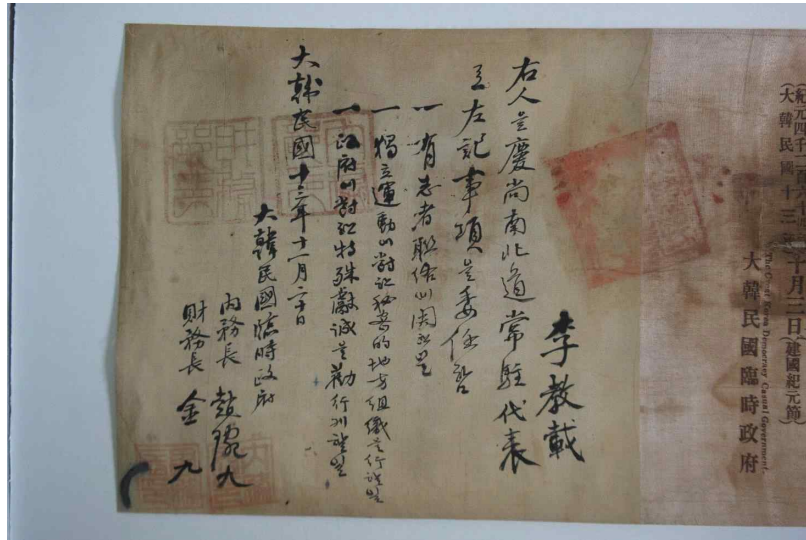


<사진 5. 이교재 문서의 상해발 격문 부분>

- 문건 2(좌측)는 ‘대한민국 13년 11월 20일’자로 이교재(李教載)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상남북도 상주대표’로 임명한다는 것임. ‘상주대표’란 문건 1에서 언급된 각지 ‘특파원’들을 일정 지역 범위에서 대표하고 모집·연락·관리 임무도 띠는 직책을 함의한 것으로 보임. 상주대표(이교재)에게 위임된 임무는 “유지자

연락에 관한 일”, “독립운동에 대한 비밀적 지방조직을 행할 일”, “정부에 대한 특수 헌성을 권행케 할 일”의 3가지로 적기되어 있음.

- 임명장 말미에 ‘내무장 조완구’와 ‘재무장 김구’ 2인의 직명 및 실명을 적고 직인을 찍어놓았음. 이 직인보다 가로·세로 각 2배 정도로 더 큰 ‘내무부인’·‘재무부인’의 인장을 그 위쪽에 병렬로 찍어놓아, 개인발급 문서가 아닌 정부발행 문서임을 확증해주었음.



<사진 6. 이교재 문서의 임명장 부분>

#### 다. 황상규 추조문, 성낙문 앞 특발문, 김관제·윤상태 앞 편지, 이동녕 명함

- 문건 1(황상규 추조문)의 제목으로 쓰인 ‘追弔’란 고인의 생전 업적을 되새기며 조상(弔喪)한다는 뜻임. 본문을 우리말로 옮기면, “본국 경남 밀양의 대한국 의사인 백민 황상규님의 영혼에 추조하나이다. 기원 4264년, 대한민국 13년 10월 3일(건국 기원절) 대한민국임시정부원 일동이 사람을 보내 조문함. 상해(Shanghai)”로, 경북 달성의 문장지에 대한 추조문과 동일한 형식임.
- 1890년생인 황상규(黃尙奎)는 1919년 길림의 대한독립선언서 39인 연명자 중 1인, 의열단 창립 기획자 및 창단 주역, 길림군정서 재무부장, 의열단의 제1차 대일거사를 위해 밀입국했다가 체포되어 징역 8년형 수형 등의 이력을 갖고 신간회 본부의 중앙집행위원 및 서기장 등으로 활약하다 신병으로 1931년 9월에 작고한 저명 독립운동가였음.
- 문건 2(성낙문 앞 특발문)도 문건 1과 같은 날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명의로 작성되었고, “본국 경남 창녕의 성낙문선생 귀하”라고 수신인을 특정하였음. 내용은 임시정부가 그동안 무실 무력했다고 겸허히 반성하고 그럼에도 이번에 만주사변 발발의 호기를 맞아 일제타도의 대업을 재추진하려 하는데 정부재정이 고갈된 형편인지라 특과원을 보내어 활동자금과 상비금의 찬조를 요청하니 도와줄 것을 특별히 바라고 또한 명한다는 것임.





<사진 1. 동아대 소장 이교재 문서>



<사진 2. 황상규 추조문>

○ 번역문 전문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음.

- “특별

본 정부는 정성이 없고 덕이 부족하고 충실하지 못하며 의롭지 못한 탓에, 창립한 지 이미 13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조국광복을 이뤄내지 못하였고 사회의 정성에 보답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저 환영(幻影) 속에만 안주하면서 세상에 우리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놓아본 적도 없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중·일 간의 대사변이 거세게 일어나 암암리에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고 있으니, 천재일우의 좋은 기회라는 것을 꿈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안으로 조선의 혼을 환기시키고 밖으로 중국·러시아와 힘을 합쳐 난폭하고도 신의 없는 일본제국주의를 영원히 타도하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우뚝 세워야 합니다. 이에 무궁한 동양의 평화와 유신의 책략을 갖고서 4264년 기원절 날에 의기를 떨쳐 건의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파견하여 격문을 통해 건의의 대강을 고하는 것은 의리로서 함께 의논하는 것이오니, 이는 천명이 시키는 것이요 인도로서 의롭다고 여겨짐에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고립된 상태에서나마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요즘 국내외에서 공히 인정되는 바입니다. 하물며 올해 조선에 도래한 수많은 사건과 중일간의 큰 문제가 겹쳐 발생한 후로는 여러 방면의 지출이 예산을 훌쩍 뛰어넘어 현재 잔액이 고갈된 형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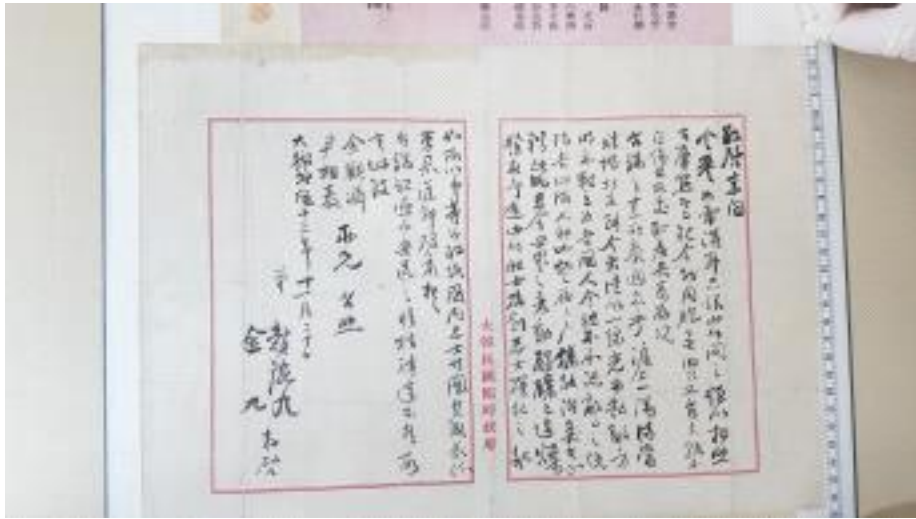
그렇다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맞고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야 있겠습니까? 이에 중요 임무를 수행토록 명하여 특과원을 보냈으나, 활동자금과 상비금을 1원도 마련치 못했습니다. 형세상 뚝뚝하지 못하긴 하지만 최후의 방도로 생각해 낸 것은 오직 귀하께서 고상한 의리로 이 상비금을 찬조해주심으로써 힘없는 정부를 도와주고 특과원의 임무 완수를 거들어주어 끝없는 국권을 확립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귀하에게 특별히 바라고 특별히 명하는 바입니다.

기원 4264년 대한민국 13년 10월 3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상해특별  
본국 경남 창원 성낙문선생 귀하” (\* 밑줄은 인용자)



<사진 3. 성낙문 앞 특별문>

- 성낙문(成洛文/成樂文)은 만석꾼 가문 출신으로 1921년에 창녕자동차주식회사의 대주주 중 1인이었을 정도로 재력가였고, 1932년에는 친일단체인 조선유교회에 참여하여 경남지역 의정으로 활동한 지역유지이기도 했음. 만주사변 발발 직후인 1931년 10월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의 재흥자금 조달을 담당할 특과원을 국내 및 일본 각지로 보내기로 하고, 경상남북도 대표로는 경남 창원 출신의 이교재를 11월에 임명하여 밀파하면서 이 특별문을 주어 전하도록 한 것인데, 아마도 성낙문이 예전에 임시정부 군자금을 비밀리에 헌성한 적이 있어서 믿고 보낸 것일지 모름.
- 문건 3(조완구·김구 편지)은 대한민국 12년(1931년) 11월 20일에 상해의 조완구와 김구의 공동 명의로 ‘김관제·윤상태 兩兄 台照’라고 하여 공동 수신인에게 써 보낸 사신임. 조완구와 김구가 각기 임시정부 내무장과 재무장이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찍힌 편지와 그 내용으로 보면 사신 형식의 공문이기도 함.



<사진 4. 조완구·김구 편지>

○ 번역문 전문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음.

- “공경히 아뢰입니다. 훌륭한 명성이 우레처럼 쩌렁쩌렁 울리는 것을 평소에 익히 들었습니다만 산천에 가로막힌 탓에 항상 마음으로만 서로 통하는 것이 그저 한스러울 따름입니다. 지금 우리 동포 가운데 어진 자나 불초한 자를 따질 것이 없이 그 누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상심하지 않겠으며 구차히 존재하는 우리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태단(台端; ‘택’·‘귀하’라는 뜻의 중국어임)처럼 평소 함양한 바가 보통 사람에 비해 월등한 분일 경우에만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상해의 한 모퉁이에서 견디기 어려운 고초를 두루 겪으며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오직 한 줄기 빛으로 적국을 상대하기 위해서이고, 대항한다는 뜻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적국 일본이 우리 산하와 인물을 통치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 전체가 승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초(楚)나라에 남겨진 세 집이 오히려 오(吳)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경우를 말합니다. 게다가 오늘날 세계는 변화의 기미가 충분히 무르익어 폭발이 눈앞에 닥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를 만났으니 썩썩한 선비라면 칼을 뽑아들고 의로운 선비라면 분연히 떨쳐 일어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희들이 국내의 의로운 선비와 연합하여 그 성취를 함께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군(李君)을 헌하(軒下)에 파견하여 협의토록 하는 것이니, 귀하께서 이군을 환영하여 기꺼이 말씀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편지를 마주하고 있노라니 그리운 마음이 간절한 나머지 할 말을 다할 수 없습니다.

김관제·윤상태 두 형께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13년 11월 20일

아우 조완구, 김구 올림” (\* 밑줄은 인용자)

- 1886년 경남 고성 태생인 김관제(金觀濟)는 1909년 결성된 대동청년단에 가입하여 활동하다 1911년 남만주로 망명하여 교육구국운동을 전개하였고 귀국 후 1920년에는 의열단의 제1차 폭탄거사 기획이던 ‘진영사건’ 연루자로 체포된 바 있으며 그 후 대구로 이주하여 한약방을 경영하면서 꾸준히 독립운동을 지원하던 인물임.
- 1882년 경북 달성 태생인 윤상태(尹相泰)는 1905년 을사늑약에 항의하여 거제군수 직을 사임하고 낙향하여 교육구국운동에 종사하다 1915년 대구에서 조선국권회복단이 결성될 때 통령으로 선임되었고, 1917년 대동청년단에 가입하여 1919년 경남 해안지역의 독립만세 시위를 막후에서 지도하는 한편 파리장서운동에도 자금지원 등으로 참여하였고, 이 일로 피체되어 옥고를 겪고나온 후 향리에서 항일민족교육운동을 계속한 지도적 독립운동가였음.
- 편지 본문에서 ‘헌하에 파견’한다는 ‘이군’은 이 편지 작성과 같은 날에 임시정부 경상남북도 상주대표로 임명되어 국내 밀파된 독립운동가 이교재를 지칭하는 것이었음이 분명함.
- 문건 4(이시영 편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전 재무총장 이시영(李始榮)이 1931년 11월 17일에 ‘임시정부’라고 크게 박힌 용지에 친필로 쓰고 사인(私印)을 찍어 보낸 것임. 내용은 김관제의 안부를 물은 후 독립운동의 포부와 실제 형세가 괴리됨을 개탄하는 속내를 털어놓고 심산 김창숙(金昌淑)의 안부를 걱정하여 묻는 것임. 번역문 전문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음.
- “김관제 인형, 보십시오. 형세가 막히고 금지되어 편지로 안부를 여쭙는 것이 편하질 않으나 애뜻한 이 마음은 한 번도 끊어진 바 없습니다. 이에 이우(李友)를 통해 제 속내를 간략히 적어놓습니다. 바라건대 묵묵히 도모하시고 나날이 복되시기를 송축합니다.
- 아우 이시영 (날인) 올림. 11월 17일.
- 오늘날 바람과 구름이 사납게 몰아칠 때 한밤중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먼데서와 가까운 데서 모두 그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리 준비해놓은 것이 없는지라 갑자기 일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이단의 사악한 논설이 청년들을 유혹한 나머지, 안팎의 사상이 3.1운동 정신과 괴리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민족관념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비밀리에 단체를 결성하여 안팎으로 상응함으로써 큰 사업을 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일입니다. 국내의 마흔 이상 사람들이 대부분 이러한 사상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집단의 권위가 없어서 소리 높여 이끌고 나갈 수가 없으니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심산(心山) 형은 근자에 어떤 상황입니까. 연로하고 병이 많아 감당할 수 없을 듯하니, 매양 생각이 거기에 미칠 때 마다 진정치를 못하겠습니다.”



<사진 5. 이시영 편지 (아래)>



<사진 6. 이동녕 명함>

- 본문에서 ‘이우’로 일컬어진 이는 이 편지를 갖고 갈 창원 출신 이교재였을 것임이 분명함.
- 문서 5(이동녕 명함)는 작은 크기의 백지에 임시정부 국무총리 및 의정원 의장을 역임한 지도적 독립운동가 ‘이동녕’의 성함이 한자로 박히고 그 밑에 인장이 찍힌 것이며 뒷면은 백지 상태임. 아마도 임시정부에서 성낙문에게 보내는 특별문(위의 문건 1)에 정부 직인이 없는 대신 이 명함을 일종의 보증 신표로 같이 내보이게끔 교부해준 것이 아니었을까 함. 그렇다고 이것을 ‘부전지’로 칭할 수는 없음.

#### 4) 문헌자료

- 「문영박」,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5권, 1988.
- 남평 문씨 후은공파, 『남평 문씨 인흥 세거지』, 2014.
- 권대웅, 『달성의 독립운동가 열전』, 민속원, 2017.
- 문화재청,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 연구 보고서』, 2019.
- 유장근, 「창원 진전 출신 이교재의 독립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99집, 2019
- 「김관제」,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권, 1986.
- 「대한민국 임시정부 특명 및 편지, 추조장」,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편, 『근대, 그 새로운 시대』, 2018.
- 김영범, 「독립운동가 백민 황상규의 생애와 초상」, 『지역과 역사』 제40호, 2017.

## 5) 기타

### 가. 문장지 추조문, 문대호 앞 특발문

- 이교재는 밀입국 후 이 2건의 문서를 문원만에게 전해주지 못한 채 1933년 2월에 병사하였음. 그의 사후 이 문서를 숨겨 보관해오던 부인 홍태출이 1963년 3월 이교재에게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됨에 즈음하여 공개하였음. 동시에 당사자나 후손이 찾아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동아일보』 3월 16일자 기사를 통해 밝혔음. 그 직후 문원만이 찾아와 이교재의 양자인 이정순(李正淳)에게 유족임을 증빙하고 받아갔고, 그 장자인 문태갑이 대를 이어 원본 상태로 보관해 온 것임.
- 추조문의 명칭을 후손은 고인의 본명인 ‘문영박’을 선호할 듯하나, 문건 자체의 표기를 따라 ‘문장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나. 상해발 격문과 임명장

- 유장근의 논문 “창원 진전 출신 이교재의 독립운동과 상해 임시정부”(『한국민족운동사연구』 99, 2019)에 의하면, 이교재는 1887년 경상도 진해현 서면 대곡리(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태생으로, 3.1운동 때의 격문 살포와 1923년 통영 군자금 모금 사건으로 피체 후 각 2년 6개월과 4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옥고를 겪은 독립운동가임. 2차 출옥(1927년 12월) 후의 어느 때 상해로 건너가 임시정부에 투신한 것으로 보임.
- 본 문서에 의하면, 이교재는 향후의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려는 임시정부의 계획에 따라 1931년 11월 ‘경상남북도 상주대표’로 임명되어 밀입국한 것으로 추정됨. 귀국 후 이교재는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지 못한 상태에서 신병으로 1933년 2월 14일 47세로 별세하였음. 1946년 김구가 그의 향리와 유택을 방문했으며, 1963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국민장(1990년 ‘독립장’으로 명칭 변경)이 추서되었음.
- 그의 사후에 이 문서를 집 천장에 숨겨 보관해오던 부인 홍태출이 1954년 4월 『마산일보』 사장 김형윤에게 처음 공개하여 「이교재선생 묘지 전배기」라는 기사로 보도되었음. 그 후 이 문서는 이교재·홍태출의 양자 이정순(李正淳)이 장인(匠人)의 손을 빌려 띠지로 배첩하고 액자에 넣어 보관하다 아들 ○○○에게로 상속 전승된 것이라 함. 이번의 조사를 계기로 액자에서 탈리해놓은 상태임.

### 다. 황상규 추조문, 성낙문 앞 특발문, 김관제·윤상태 앞 편지, 이동녕 명함

- 이교재는 밀입국 후 이 5건 문서 중 그 어느 것도 당사자나 그 유족에게 전해주지를 못한 채 1933년 2월에 병사하였음. 그의 사후 이 문서를 꼭꼭 숨겨 보관해오던 부인 홍태출이 1963년 3월 이교재에게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됨에 즈음하여 비로소 공개하면서 당사자나 후손이 찾아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동아일보』 3월 16일자 기사(「32년 만에 주인 찾는 감사장」)를 통해 공표하였음. 그러나 문장지의 아들인 문원만의 경우와는 달리 이 문서들은 찾아가는 이가 없었음. 이에 이교재의 양자인 이정순(李正淳)이 이 5건 문서를 족자 형태로 장황해두었는데, 동아대학교 총장이 기증을 요청하자 응하여 기증하니 동년 2월 1일자로 소급된 유물카드가 작성되었고 현재까지 동 대학의 박물관 소장 유물로 보관되어 온 것임.



<사진 7. 기증 당시의 장황 족자>



<사진 8. 이교재 문서의 동아대 소장품 카드>

## 6)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가. 문장지 추조문, 문대호 앞 특발문

- 이 문서는 1931년 만주사변이 발발하자 국제정세 대변동으로 독립운동 재흥의 호기가 왔다고 판단한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 조달 계획과 그 실행방법을 추찰해볼 수 있는 중요자료임. 그런데 추조문과 특발문은 이것이 유일본이 아니라 이번에 같이 문화재 등록 여부가 심의될 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본도 있음. 그 점을 같이 감안하여 이들 문서를 문화재로 등록하고 영구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나. 상해발 격문과 임명장

- 이 문서와 같은 형식 및 내용의 문건은 현재까지 국내외 어디서도 발견된 바 없어서 희귀본임. 또한 1931년 만주사변의 발발에 따른 국제정세의 대변동으로 독립운동 재흥의 호기가 왔다고 판단한 임시정부에서 국내 및 일본 각지의 특과원을 운용하려던 상황과 특과원 밀파 절차를 추찰해볼 수 있게끔 해줄 중요 자료가 됨. 따라서 문화재로 등록하여 영구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다. 황상규 추조문, 성낙문 앞 특발문, 김관제·윤상태 앞 편지, 이동녕 명함

- 이들 문서는 모두 1931년 만주사변이 발발하자 국제정세의 대변동으로 독립운동 재흥의 호기가 왔다고 판단한 임시정부의 절실했던 독립운동 자금 조달 계획과 그 실행방법을 추찰해볼 수 있는 중요자료임. 다만 추조문과 특발문은 이것이 유일본이 아니라 이번에 같이 문화재 등록 여부가 심의될 남평 문씨가 소장본도 있음. 그 점을 두루 감안하여 이들 5건 문서를 일괄 문화재로 등록하고 영구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7)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가. 문장지 추조문, 문대호 앞 특발문

- 원본은 문화재 등록 후 보존처리하여 남평 문씨 세거지의 인수문고에 계속 소장 보관토록 하되, 복제본을 만들어 독립기념관에 전시하고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게 하면 이봉창·윤봉길 등의 한민애국단 의거를 준비해간 임시정부 활동에 대한 지식 확산을 통하여 차세대 교육에 기여하는바 적지 않을 것임.



<사진 3. 추조문 및 특발문 보관처인 인수문고>

### 나. 상해발 격문과 임명장

- 이교재의 후손인 ○○○의 사가에 현재처럼 계속 보관하면 보존부실로 훼손부위가 커져서 귀중자료의 가치가 상당히 저락할 우려가 있음. 그러므로 문화재로 등록 후 창원시립마산박물관에 위탁하여 보존처리하고 상설 전시토록 함이 좋겠음. 그리하면 임시정부의 활동과 이교재의 공적에 대한 차세대 교육 효과가 상당히 클 것임.

### 다. 황상규 추조문, 성낙문 앞 특발문, 김관제·윤상태 앞 편지, 이동녕 명함

- 문화재 등록 후 보존처리하여 현재처럼 동아대 박물관에서 계속 소장하되 상설 전시토록 하면 이봉창·윤봉길 등 한민애국단 의거를 준비해간 임시정부 활동과 이교재의 독립운동 공적에 대한 차세대 교육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임.



# 검 토 사 항



## 6. 「제주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 「제주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제주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 조사('19.12.13.)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청
- (2) 대상문화재명 : 제주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2240-8
  - 소유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청
  - 수량 : 2동(본관동 : 본관, 부속동, 연결복도 / 온실동)
  - 면적 : 본관동 222.15㎡ (본관 192.4㎡/ 부속동 19.83㎡/ 연결복도 9.92㎡)  
온실동 29.75㎡
  - 건립시기 : 1940년대 추정
  - 구조 : 조적조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 ○ 문화재전문위원 ○○○ (2019.12.13.)

-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의 경우 동시기 연구소 건축이 갖는 배치 및 공간구성 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평면과 입면, 구조적 측면에서의 원형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제주학 연구의 개척자인 나비박사 석주명선생이 근무했던 시설로 지역사(인물) 측면에서의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지자체에서 수립한 활용계획(석주명 기념사업) 등을 통하여 문화재 활용을 통한 사업효과가 기대됨.
- 이에, 부속동 등을 포함한 본관 222.15㎡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고(온실 제외), 보존범위는 향후 복원이 필요한 관사 부지를 포함한 2240-8 지역 중 일부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문화재전문위원 ○○○ (2019.12.13.)

- 부속 생약연구소는 1940년대에 건립되어 제주지역의 자연 및 민속 문화를 연구해 온 장소이며, 석주명 선생이라는 인물과 연관된 장소로 의미가 있음.
- 배치형태와 지붕 및 벽체 등 주요 구조부가 잘 보존되어 있으며, 정면성이 강조된 파사드와 포오치 부분에 표현된 디테일과 사용된 마감재 등이 특징이며, 원형이 잘 남아있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음
- 따라서 건립시점으로부터 50년이 경과하고, 원형의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주변 경관 및 배치에 특징을 잘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했을 때 등록문화재로서 역사적·건축사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 됨

### ○ 문화재전문위원 ○○○ (2019.12.13.)

-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는 약초를 재배할 목적으로 1940년에 신축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 우리나라 여러 곳에 설립된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시험장 중 유일하게 그 흔적이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건축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음.
- 또한, 오랜 세월동안 여러 기능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형은 있어 왔으나, 전반적으로 건립 당시의 모습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 구체적인 활용방안 등을 마련 중에 있음.
- 이밖에, ‘나비박사’로 널리 알려진 석주명선생이 생약 관련 연구를 위해 한때(1943년~1945년) 머물렀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4년 ‘석주명 유품’으로 의류 등 14점이 등록문화재 제610호로 등록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등록가치는 있는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보류
  - 대상건축물의 역사적 배경 등에 대한 자료 보완
- 출석 10명 / 보류 10명

<붙임>

‘제주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2. 용 도 : (현) 연구시설 (원) 연구시설
3.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2240-8
4. 소유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청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
5. 시설물 개요
  - 구조 : 조적조
  - 제작년도 : 일제강점기 (1940년대) 추정
  - 수량 및 면적 : 본관동 222.15㎡ (본관 192.4㎡/ 부속동 19.83㎡/ 연결복도 9.92㎡)  
온실동 29.75㎡
  - 층수(높이) : 1층

6. 조사자 의견(2015.03.17)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일제강점기 (1940년대)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시설로 건립추정
- 1968년 소유권 국가귀속
- 1981년 아열대농업연구소
- 1987년 대수선 공사 실시 (영천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석주명선생 기념사업 연구용역 보고서, 2018.12, pp.45-49 참고)
- 1995년 교육부로 관리이첩
- 2001년 농업동물과학연구소
- 2013년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로 사용.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배치 및 구성: 본 등록문화재 대상 건축물은 본관동, 부속동, 온실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복도로 구성되어 마치 항공기 모양과 같은 배치 형식을 갖고 있음.
- 주요구조: 본관 및 부속동은 건립 당시 붉은 벽돌을 사용한 조적조 구조로 상부 목조트러스 위 일식기와 지붕으로 근대기 연구시설의 구성양식을 따르고 있음.

- 평면구성: 본관은 2개의 연구실과 사무실, 탕비실과 관리실(소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속동은 화장실과 암실, 창고로 구성되어 있음. 이들 본관과 부속동의 경우 외부복도를 통해 연결하고 있으며, 본관 후면에 위치하고 있는 온실은 철골조 유리구조로 별도의 출입구를 갖고 있음.
- 입면 및 재료: 본관은 조적벽체 위 시멘트 몰탈 마감(혹은 별도 외장재)으로 추정되며, 격자형 창호구성으로 근대적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음. 특히 정면 출입구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의 입면을 구성하는 등 근대기의 공공건축의 입면구성을 갖고 있으며, 현재 창호 및 외벽마감은 대수선 공사시 변형된 것으로 추정됨. 지붕의 경우 시멘트 일식기와로 지붕이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대수선 공사시 변형된 것으로 추정됨.
- 온실동: 현재 본관과 부속동을 연결하는 외부복도 좌측 편으로 29.75㎡ 규모의 온실이 위치하고 있으나 정확한 건립연도를 확인 할 수 없음. (1981년 아열대농업연구소 개설시 신축된 것으로 추정됨)

###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① 본관동

- 본관: 일제강점기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본관의 경우 1987년 대수선 공사로 인하여 내부마감과 창호, 문의 교체로 인하여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내부 공간 구성에는 변화가 없어 원형을 간직하고 있음.



- 부속동: 1987년 대수선 공사로 인하여 원형마감 부분에 있어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내부공간 구성(전실)에 있어 일부 변형이 있음.
- 연결복도: 기둥 및 지붕을 구성하고 있는 목조부재 및 지붕재가 1987년 대수선 공사 시 교체된 것으로 추정됨.



- ② 온실동: 온실의 경우 정확한 건립연도를 알 수 없으나 부재구성 및 용접상태는 1981년 이후 신축된 것으로 추정됨.
- 특히 온실의 경우 경량철골로 구성되어 있으나 접합 및 용접상태, 창호의 결합부분에 노후화가 진행되어 이를 보존처리하여 재사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③ 기타사항: 본관, 부속동, 연결복도의 경우 일부 노후화된 부분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활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나 재료의 노후화 및 구조 안정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있음.



#### 4)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의 경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영천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중 석주명선생 기념사업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음. 석주명선생의 경우 본 유산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물인 동시에 시설과도 연관성이 높아 활용계획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본 유산 주변의 경우 생약연구소로 사용될 당시의 자연적 환경이 잘 남아 있으며 또한 관사 건축물에 대한 도면과 위치가 확인되는 바 이와 연계한 활용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광양의 서울대 학술림 등 유사 연구시설과 연관성을 검토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영천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바 실현가능성 및 효과가 기대됨.

##### 다. 기타사항

-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의 경우 당시 연구소의 배치 및 기능, 역할 등에 대한 종합적인 보완 조사를 통하여 원형을 규명하고, 동시에 연구소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시설들의 주변정비 및 멸실 시설의 복원을 통하여 동시기 대학연구시설이 갖는 원형적 모습으로 활용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5)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

-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의 경우 서귀포시의 소유이며, 지차체의 보존의지가 높으며, 제주대학교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로 사용할 당시의 주변 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보존환경이 양호한 편임.
-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의 도면이 현존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건물의 원형에 대한 연구조사가 필요할 것임. 특히 외벽 구성방식과 재료, 그리고 당시의 건축기술 분야에 대한 보완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복원 및 활용방안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영천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석주명선생 기념사업 연구용역 보고서 참조)

- 일제강점기 연구소 시설로서 현존하고 있는 국립대학 연구시설(광양시 소재 서울대학교솔림)과의 연관성 등 동 시기 연구시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의 경우 동 시기 연구소 건축이 갖는 배치 및 공간구성 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평면과 입면, 구조적 측면에서의 원형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또한 주출입구 장식 등 일부 시설의 경우 특이성을 갖고 있어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사료됨.
- 본 건물의 경우 건립 당시의 도면자료가 현존하고 있어 연구소 시설주변을 정비계획이 가능하며 멸실된 관사를 복원하는 등 원형(기능)에 충실한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제주학 연구의 개척자인 나비박사 석주명선생이 근무했던 시설로 지역사(인물) 측면에서의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지자체에서 수립한 활용계획(석주명 기념사업) 등을 통하여 문화재 활용을 통한 사업효과가 기대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가. 등록대상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온실의 경우 최초건립 연도가 불분명하며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의 기능과 연관성이 떨어지며, 노후화된 철골건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온실의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장소와 기초부분 등 일부시설은 활용측면에서 보존하는 것을 권유할 필요가 있음.

나. 보존대상 및 범위

- 현재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등록문화재로 신청하였으나, 보존범위는 관사가 위치하고 있었던 장소를 포함하여 연구소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변시설(담장 등)까지 설정할 필요가 있음.

다. 결론

- 본 조사자는 부속동 등을 포함한 본관 222.15㎡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고, 보존범위는 향후 복원이 필요한 관사 부지를 포함한 2240-8 지역(그림 참고)중 일부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신청대상 건물은 서귀포시 토평동 2240-8에 위치하고 있으며, 1940년대 건립된 옛 경성제국대학 부설 생약연구소는 당초 약초 재배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전해지며, 현 건물에 현황은 당시 도면과 비교해 볼 때 배치와 건축적인 형태(정면 출입구의 기둥과 출입구의 디테일 등)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테일이 잘 남아 있음
- 또한 신청대상 건물은 나비와 제주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업적을 남긴 석주명 박사가 1943년부터 약 2년 1개월간 연구소장을 맡아 머물렀으며, 당시 머물던 관사는 신청건물에서 북쪽에 위치하였으나 현재는 터만 남아 있음.
- 현재 정식 명칭은 제주대학교 부설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이며, 소유자는 서귀포시가 소유하고 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건물의 축은 동서방향에 'T'형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주출입구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화장실이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음
- 대지의 북쪽이 중산간동로변에 면해 있고 신청건물까지 110m의 거리를 두고 배치되어 있음. 일제강점기 때 배치도와 비교해보면 주변에 건물은 대부분 철거가 되었고 북쪽 주출입구 방향으로는 수목으로 채워져 있고, 남쪽으로는 온실이 들어서 있으며, 도로의 위치 등은 거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건물에 배치는 남북방향으로 'T'형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정면을 서쪽으로 두고 주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수장고가 위치하고 있음
- 북쪽 건물의 중앙에 건물의 입구를 설치하고 돌출된 포오치(Porch)를 통해 출입구로 진입방향으로 건물 뒤편으로 연결되는 중앙복도식이며, 복도 좌우측으로 실이

구성되어 있는 좌우대칭형에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관과 부속건축물(현 화장실) 사이에 연결통로는 경사지붕의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음
- 본관 중앙복도 좌측으로 관리실과 탕비장이 있으며 관리실과 주출입구 사이에 동쪽 방향에 복도를 통해 좌측에 연구실로 진입함, 중앙복도 우측으로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주출입구에서 서쪽으로 복도를 통해서 우측에 연구실 진입이 가능함. 우측 연구실은 복도에 들어서면 복도부분이 확장되어지도록 샌드위치판넬 칸막이 벽이 설치되어 있음.
- 부속건축물에는 양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본관의 우측면에 인접해 온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건립년도가 명확하지 않고 이형에 거šet플레이트 등 건축재료 및 용접과 리벳치기 등으로 마감되어 있고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어있음.
- 건물 입면은 중앙의 출입구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의 입면 양식을 취하고 있으며, 중앙출입구 앞에 포오치를 설치하여 정면과 좌우측으로 현관 진입이 가능함.
- 각 실에 창문의 형태는 장방형에 큰창이 설치되어 있으며, 인방이 돌출된 형태로 미닫이 창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우측 연구실로 진입하는 복도에 설치된 창문은 6등분할(2개씩 세로 방향으로 3칸 등분)된 작은 고정창이 설치되어 있어 좌측면과 비대칭형에 창문 배치를 보이고 있으나, 단순할 수 있는 입면에 변화를 주고 있음.
- 포오치의 기둥부에 장방형의 형상(‘一’형)에 유약을 바른 자기타일의 마감이나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보 부분에 마감 등 세부적인 디테일은 정면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계획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음.
- 본관의 지붕은 우진각기와지붕이며, 북쪽 중앙현관부 상부에 박공면의 경사지붕으로 마감되어 있고, 전면 중앙부에 돌출된 포오치는 좌우 반모임지붕의 형태로 박공면 경사지붕과 같이 중앙현관부의 인지성과 건물의 정면성이 강조됨.
- 구조는 왕대공 지붕틀로 구성되어 있으며, ‘八’자보와 왕대공, 평보의 목조지붕틀에 형식을 갖추고 있음
- 부속건축물(화장실)은 모임기와지붕으로 본관의 배면 중앙출입구와 부속동의 중앙에 주출입구가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어 남북방향으로 중심축을 이루면 연결되어져 있음

###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87년도에 연구소 건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대수선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세부 용도는 사무실과 창고, 식물조직배양 육종실 등으로 활용하였으나,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음.
- 창문은 기존 목재 창호를 철거 후 플라스틱(PVC)창을 설치했으며, 주출입구 현관의 경우 기존 목재 창호 철거 후 알루미늄도어로 교체되었으며, 기존 환기구는 벽돌로 막고 모르타르 위 수성 페인트로 마감하였음
- 지붕의 경우 주 구조부는 목조트러스로 현재는 천정이 텍스로 마감되어 있으나

상부에 원래의 트러스 구조가 잘 남아 있음, 지붕재는 기존 합석철거 후 기존 판재 위에 루핑을 깔고 시멘트기와를 잇고 페인트를 칠하여 마감하였으며, 본관과 화장실, 연결통로(회랑) 부속건축물의 지붕 역시 기존 합석 철거 후, 방수처리 후 시멘트기와 잇기 위에 페인트로 마감함.

- 벽체는 벽돌을 쌓고 몰탈 위에 수성페인트로 칠로 마감 되어져 있음.
- 전반적으로 구조체는 대수선과 유지관리가 지속되면서 노후화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며, 실내 바닥재 등 마감재의 훼손 부위가 확인됨

####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

-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는 현재 제주대학교 부설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 사용되고 있으며, 제주대학교에서 소유하고 있음.
- 서귀포시 중심지에 인접해 있고 주변에는 비롯한 다양한 근대유산과 자연유산이 인접해 있어 보존여건과 함께 활용적인 측면에서도 석주명 선생와 연관된 곤충학, 제주도의 민속학 등과 관련한 스토리텔링 요소가 다양함.
- 신청대상건물은 지역사회와 제주대학교 내에서 역사와 상징적인 가치를 가진 건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원형보존과 관리상태가 양호하고 주변에 역사문화와 경관적 요소가 적절히 어우러져 보존관리와 활용에 양호한 환경을 갖고 있음

####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교육연구시설 내 위치하고 있어 지속적인 보존관리가 용이하고, 외관의 변경요인이나, 훼손에 우려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보존관리 측면에서 문화재등록 이후 제주도 특유에 돌담과 수목과 같은 녹지환경과 어우러져 보존과 활용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제주대학교의 역사와 인물과 연관된 인지성이 높은 건물로서 소유자에 보존과 활용 의지가 강하고, 향후 지리적 특성상 외부환경의 변화요인이 크지 않아 역사와 교육, 문화적 차원에 석주명기념관, 생태형나비공원 등 주변환경과 어우러지는 기념공간조성 계획에 따라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적절한 보존 및 활용 계획 수립을 통해 문화재 활용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 다. 기타사항

- 본관 우측 배면에 설치되어 있는 온실의 경우 문화재 활용과 연계된 공간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건립시기와 구조 및 건축기술, 형태 등에 있어서 문화재 등록 범위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음.

####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구 청주 공립보통학교 강당(등록문화재 제350호, 2007년 9월21일)은 청주지역 근대식교육기관으로 1923년 건축된 강당건물임, 지상 1층에 장방형 평면은 정면을 장변방향으로 배치하고, 정면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붕 상부에 장식창이나, 전

면 파사드를 강조하고 있으며, 보행자 출입용 포오치가 현관 전면에 설치되어 있음. 지붕은 쌍대공 지붕틀에 우진각지붕으로 양식기와를 마감되어 있음. 현재 연단 등의 시설들은 철거되었으며, 2001년부터 교육박물관으로 본교의 자료와 의식주와 민속문화, 지역사회 문화자료 등 생활사 자료를 전시하고 있음.

###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부속 생약연구소는 1940년대에 건립되어 제주지역의 자연 및 민속문화를 연구해 온 장소이며, 석주명 선생이라는 인물과 연관된 장소로 의미가 있음.
- 배치형태와 지붕 및 벽체 등 주요 구조부가 잘 보존되어 있으며, 정면성이 강조된 파사드와 포오치 부분에 표현된 디테일과 사용된 마감재 등이 특징이며, 원형이 잘 남아있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음
- 따라서 건립시점으로부터 50년이 경과하고, 1940년대 건립 당시 원형의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주변 경관 및 배치에 특징을 잘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했을 때 등록문화재로서 역사적·건축사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 됨

###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문화재 명칭은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가 적절함

## <문화재전문위원 ○○○>

### 1) 개요

- 동 시설은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로 사용된 곳으로, 약초를 재배할 목적으로 1940년대에 신축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우리나라에 여러 곳에 설립된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시험장 중 유일하게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또한, 이곳은 소위, ‘나비박사’로 널리 알려진 석주명선생이 생약 관련 연구를 위해 한때(1943년~1945년) 머물렀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14년에는 ‘석주명 유품’으로 의류 등 14점이 등록문화재 제610호로 등록되었으며, 유품은 현재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 전시되어 있음.
- 해방 이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관련 연구시설로 이용하였으며, 1968년에 소유권이 국가로 이관되면서 제주대학교 부속 아열대농업연구소와 동물과학연구소,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 등으로 줄곧 사용되어 왔고, 2017년 제주도로 관리 전환되었음.
- 현재는 빈공간으로 방치되어 있으나, 최근 제주도(서귀포시)에서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영천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석주명선생 기념사업’을 통해 기념관 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임.

###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최초 건립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연구시설 등으로 사용해오면서 내부 공간의 변형은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신축 당시의 설계 원도(국가기록원 소장)와 비교해 볼 때, 배치상에서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신축 당시 작성된 설계도서 및 문헌기록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건물은 북향을 하여 자리 잡고 있으며, 크게 본관 건물과 농기계창고,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본관만이 남아 있음.
- 또한, 기록사진에 의하면 본관 남쪽 즉, 정면으로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2동의 관사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최근에 모두 철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이밖에, 본관 뒤편으로는 유리온실 1동이 위치하고 있으나, 1940년대 항공사진에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최초 건립 이후 어느 시점에선가 증축된 것으로 파악 됨.
- 신축 당시의 설계도서에 의하면, 본관은 크게 사무 및 연구공간인 청사(廳舍)와 부속채인 부속가(付屬家), 이 두 건물을 연결하는 복도시설인 도랑하(渡廊下)로 구성되며, 이들 건물은 전체적으로는 공(工)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음.
- 이밖에, 최초 건립 당시 청사 및 부속채 내 각 공간의 기능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청사의 경우에는 크게 연구실과 사무실, 탕비실, 소사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속시설은 창고와 암실, 화장실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음.
- 청사(廳舍)는 중앙의 현관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구성하였고 현관을 들어서면 동·서 방향으로 연장된 복도를 놓고 양단부쪽에 각 1개씩의 연구실을 통칸으로 설치하였음.
- 또한, 동·서방향의 복도와 직교하는 남·북방향의 복도를 배치하여 전체적으로는 정(丁)자형의 내부 통로를 구성하였으며, 이 통로를 중심으로 좌측에는 탕비실과 소사실(관리실), 우측에는 사무실을 두었음. 이밖에, 청사 뒤편에 위치한 부속채와의 연결을 위해 남·북방향 복도 남쪽 끝단에 별도로 외부 복도를 달아내었음.
- 전체적인 구조는 조적(붉은벽돌) 벽체에 목조 지붕가구로 구성하였으며, 지붕에는 칼라 시멘트기와를 올렸으나, 당초에는 개관 위에 함석으로 마감한 것으로 보임. 벽체는 기본적으로 조적 위에 몰탈을 발라 마감하였으며, 내부의 경우에는 몰탈 위에 수성페인트를 칠을 하였으나, 당초에는 회반죽으로 마감하였던 것으로 보임.
- 창호의 경우에는 형태와 재료 등이 변형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변화는 1987년 제주대학교 부속 연구시설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때 각 실의 내부 공간 역시 다소의 변형이 생긴 것으로 판단됨.
- 현관은 정면 좌·우측에 기둥을 세우고, 그 상부에 목조 지붕가구를 짜올린 포치 형태를 취하고 있음. 기둥 외부에는 일종의 자기 타일로 마감한 것이 특징적으로 보이는데, 신축 당시의 설계도면에 의하면 최초 건립 당시의 것으로 추정됨.
- 도랑하(渡廊下) 즉, 청사 뒤편에 달아낸 외부 복도는 목구조로 구성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최초 건립 당시의 형태에서 큰 변화는 없어 보임. 다만, 청사와 마찬가지로 지붕에는 시멘트 기와를 올렸으나, 당초에는 개관 위에 함석으로 마감한 것으로 보임.
- 부속가(付屬家)는 일종의 부속채로 당초 창고와 암실, 화장실로 사용된 공간이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기능을 상실하였음. 다만, 화장실의 경우에는 현대식으로 개조하여 한동안 계속해서 사용되어 왔었던 것으로 보임.
- 또한, 1987년 보수공사 도면에 따르면, 부속채 일부 벽체는 본래의 것으로 헐어 내고 새로 쌓아 보수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내부 마감재 및 창호 등도 역시 변경된 것으로 보임.

###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신축 당시 작성된 설계도서(국가기록원 소장)와 비교해 보면, 구조체 및 외부형태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나 1987년 보수공사를 통해 내·외부 마감재 및 창호 등의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다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그 이전 상황을 알 수 없어 외부 마감재 등에 대한 변형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음.
- 2017년 제주도(서귀포시)로 관리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제주대학교에서 관련 연구시설로 사용함에 따라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져 노후화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제주도(서귀포시)에서는 동 시설을 시대적·지역적 산물로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또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이 일대를 ‘(가칭)석주명 기념관’ 등으로 조성, 활용하고자 현재 관련 계획 등을 수립 중에 있음.
- 따라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훼손 및 멸실에 대한 우려가 극히 적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는 판단됨.

###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가칭)석주명 기념관’을 비롯하여 이 일대를 역사문화자원으로 발굴·조성,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꾀하고 이와 함께 석주명 선생의 업적을 기념하는 기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적극 보존 관리할 계획임.

####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시설로서 뿐만 아니라, 석주명 선생의 업적을 기념하는 등 역사 교육의 장소로서 폭 넓게 활용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와 유사 시설로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사례로는 ‘광양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국가등록문화재 제223호)’가 있음. 다만, 이 시설의 경우 연습림 내에 숙소로 사용하였던 관사만 남아 있는 상태로 당시 건립된 부속 연구시설로서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음.

###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는 약초를 재배할 목적으로 1940년에 신축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 우리나라 여러 곳에 설립된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시험장 중 유일하게 그 흔적이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건축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음.
- 또한, 오랜 세월동안 여러 기능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형은 있어 왔으나, 전반적으로 최초 건립 당시의 모습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 구체적인 활용방안 등을 마련 중에 있음.
- 이밖에, 소위 ‘나비박사’로 널리 알려진 석주명선생이 생약 관련 연구를 위해 한때(1943년~1945년) 머물렀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4년 ‘석주명 유품’으로 의류 등 14점이 국가등록문화재 제610호로 등록된 바 있음.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등록문화재로서의 등록가치는 있는 것으로 판단됨.

###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서귀포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 7. 「세종 부강성당」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 가. 제안사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소재 「세종 부강성당」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세종 부강성당」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 조사(“20.1.9.)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재단법인 천주교 청주교구유지재단
- (2) 대상문화재명 : 세종 부강성당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 4길 33(부강리 130-1)
  - 소유자 : 재단법인 천주교 청주교구유지재단  
(주소: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35-35(사천동))
  - 수량 : 3동(구 한옥성당 및 대문간채, 현 성당 )
  - 면적 : 구 한옥성당 126.67㎡ 및 대문채 48.36㎡, 현 성당 439.76㎡,  
(\*소유자 자체 실측면적)
  - 건립시기 : 구 한옥성당(1913년), 구 대문채(미상), 현 성당(1962년)
  - 구조 : 목조, 벽돌 조적조
-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 ○ 문화재위원 ○○○(2020.1.9.)

- 원래의 기능인 성당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음. 대문채, 안채 등의 한옥과 1962년 6월 16일 준공된 메리놀 외방선교회의 독특한 성당의 형식이 변형됨이 없이 그대로 남아 있어 1950년대 이후 충북지역의 성당의 변천과정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본당 축조 전에 이용되었던 한옥성당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생각함.
- 대문채와 안채로 구성하고 있는 한옥 성당 형식은 1950년대 충북지역의 우리나라 선교에 대한 상황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으며 새로 신축한 적벽돌 성당과 함께 지금도 함께 이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
- 또한, 1950년대 전후 구휼사업 등 지역 주민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간의 구휼활동에 대한 실제적인 자료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부강의 지역사를 밝히는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음.

### ○ 문화재전문위원 ○○○(2020.1.9.)

- 신청한 세 건물 중 구 부강성당(한옥1)과 부강성당(양옥)이 등록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구 부강성당이 한옥주택을 성당으로 다시 수녀원으로 전용된 희귀한 사례라면, 부강성당은 1960년대 충북지역 메리놀외방전교회 관할 성당 특유의 건축형식을 잘 간직하여 각각 등록문화재로서 가치가 충분함.
- 다만 성당의 역사로 볼 때 두 건물이 연계성을 가지고 관리자도 동일하므로 묶어서 등록해도 무방하겠으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묶어서 등록한다면 등록문화재 명칭으로는 ‘세종 부강성당과 구 부강성당’을 제안함.

### ○ 문화재전문위원 ○○○(2020.1.9.)

- 부강성당(1962년 건립) 및 구. 한옥성당(1957년 매입)은 부강지역에 천주교 전파와 확장이라는 종교적 의미와 더불어 어려웠던 시기에 지역주민과 함께 했던 구휼사업을 통해 신앙과 공동체의 근거지로서 역사적 가치를 갖음.
- 건축적 의미에서 기존 고딕양식의 천주교 건축양식과 다르게 미국 메리놀회 선교를 통해 북미식 교회건축양식이 반영된 성당이며, 구. 한옥성당의 경우도 사가(私家)로 사용되었던 근대식 한옥을 매입해서 초기에 성당으로 사용하고, 이후 수녀원, 회합실의 용도로 활용해오고 있음.

- 부강성당 본당과 옛 한옥성당은 건립 당시의 구조와 형태에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유물(서적, 기록화 자료 등) 등은 종교와 생활사적 측면에서도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음.
- 대문간채의 경우 구조와 재료의 변형이 크고, 성당과 관련된 건축사적 의미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금번 신청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마. 의결사항

- 보류
  -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 및 등록 범위 재검토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명, 보류 10명

<붙임>

‘세종 부강성당’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구 본당(한옥1)\_ (현) 구 부강성당 본당 (구) 부강 김재식家 별당  
대문채(한옥2)\_ (현) 부강성당 사무실 (구) 부강 김재식家 별당 문간채  
본당(양옥)\_ (현) 부강성당 본당 (구) 부강성당

2. 용 도 : 구 본당(한옥1)\_ (현) 종교시설 (원) 주거시설  
대문채(한옥2)\_ (현) 종교시설 (원) 주거시설  
본당(양옥)\_ (현) 종교시설 (원) 종교시설

3.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130-1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4길 33)

4. 소유자 : 재단법인 청주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29-8(주성로 135-35))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구 본당(한옥1)\_ 한식 목조  
대문채(한옥2)\_ 한식 목조  
본당(양옥)\_ 조적조
- 준공일 : 구 본당(한옥1)\_ 1934년 6월 24일(음력 5월 13일) 상량<sup>3)</sup>  
대문채(한옥2)\_ 미확인(한옥1과 비슷한 시기로 추정)  
본당(양옥)\_ 1962년 6월 16일(완공 봉헌식)
- 수량 및 면적 : 3동(지상1층) \*간이실측면적  
구 본당(한옥1) : 126.67㎡  
대문채(한옥2)\_ : 48.36㎡  
본당(양옥) : 439.76㎡,

6. 조사자 의견(2020.1.9.)

<문화재위원 ○○○(2020.1.9.)>

1) 개요

- 아시아 지역의 전교를 목적으로 1911년 6월 29일 창립한 메리놀 외방전교회(Maryknoll Fathers and Brothers)는 한국의 평안도 지역에 대해 선교권을 위임받아 1922년 11월 한국에서 선교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강제로 추방

3) “文宣王 誕降 二千四百八十五載 甲戌年 庚午月 丙寅日 壬辰時 上梁 艮坐坤向 丙子生 成造運”

당했다가 1945년 한국이 광복이 되면서 1946년 5월 한국에 재입국하여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진행하였다.

- 메리놀 외방선교회 활동의 근간은 평양 서포의 메리놀회 한국본회와 그 옆에 있는 서포성당(1931년 준공), 평안북도 비현성당(1928년)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이들 성당의 모습은 미국 뉴욕 오시닝에 있는 메리놀회 본부의 모습과도 형태상 연관성을 지닌다. 이 본부의 건축형태는 메리놀 외방 선교회가 활동하는 충북지역의 성당 형식의 기본 모델이 되는 청주 내곡동 성당의 형식에 영향을 주었다. 메리놀회 본부는 아시아 지역의 선교를 목적으로 만들어져 중국에서 처음 선교를 시작하여 중국지역의 전통적인 탑 형식을 성당 종탑에 접목한 것으로 보여진다.
- 파 야고보(James V. Parvy, 파비 제임스) 신부가 1953년 9월 16일 충북감목대리로 임명된다. 이때부터 메리놀 외방선교회가 중심이 되어 충북지역의 독특한 성당 건축을 구축하게 된다. 메리놀회는 카톨릭 구제회를 통해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구호활동이나, 한국의 경제 재건을 위한 원조활동을 해왔다. 이를 통해 충북지역의 지역 사회와 교회의 성장을 주도해 나갔다. 이로 인해 파리 외방 선교회가 주도하는 성당의 모습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부강성당의 기원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다. 하나는 공소가 없이 메리놀회의 구호활동에 감명을 받은 부강 면장이 성당설립을 요청하고 성당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1957년 4월 21일 “성모마리아의 거룩한 이름(S. Nomen Mariae)” 즉, 성모성명(聖母聖名)으로 부강성당의 이름을 받아 부강 성당이 설립되었고 전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청주 북문로 본당의 공소로서 1957년 9월 12일 설립되어 성당과 사제관이 부강역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전했다고 전하고 있다.
- 이 두 가지 사실을 정리하면 초기에 면장의 주선으로 부강성당이 만들어지고 후에 청주 교구가 중심이 되어 한옥성당이 있는 지금의 부강성당의 위치로 이전해 온 것으로 여겨진다. 이때 부강성당의 초대 주임신부였던 선 다니엘(D. Schneider)신부가 부강리 129-2의 한옥건물을 매입하여 임시 성당으로 사용하였다고 청주교구청이 소장하고 있는 타자본 「부강본당의 역사」에서 전하고 있다. 이후 1962년 6월 16일 붉은 벽돌을 기반으로 한 새 성당이 축조되기까지 한옥 성당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1) 한옥성당

- 1962년 6월 본당이 신축되기 전까지 성당으로 사용되었던 한옥으로 대문채와 본채로 구성되어 있다. 대문채가 원래는 지붕이 초가였다고 전하나, 1963년의 사진 자료에는 문간채가 기와지붕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이 건물은 성당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대문채로 사용되었던 당시의 구조적 형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다만 외부에서 볼 때 인방이 기울어져 있다.
- 한옥의 몸채는 정면 8칸 측면 2칸의 2고주 5량가로 되어 있다.
- 주심도리는 굴도리이고, 중도리 및 종도리는 납도리도 되어있다. 민도리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좌측에 부엌공간이 있는 등 온돌구조로 평면 구성이 성당으로 지워

진 것이 아니라 주거로 사용되었던 건물을 성당으로 이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상량문에 따르면 1934년에 축조된 것으로 여겨진다. 초기 성당이 축조되기 전 실제성당으로 사용된 건물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건물은 정면이 8칸이나 되는 등 한옥으로서는 비교적 큰 건물로서 팔작지붕을 지니고 있다. 가운데 전면 4칸이 마루로 구성이 되어 있고 뒷마루 안쪽은 각각 나누어져 있던 방을 터서 성당 본당으로 사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1962년 본당이 새롭게 신축된 후 수녀원으로 사용되면서 각 방들이 나누어져 있다. 대들보와 판대공, 보아지의 상태가 튼실하고 장식조각 또한 정교하다. 좌측에는 부엌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광창이 보이고 있다. 다면 전면 창호가 알루미늄으로 변경되어 있고 회합실의 입구문이 철판으로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한옥 구조체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 내부는 현대식 주방으로 바뀌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전체를 구성하는 구조체 등은 원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

## (2) 벽돌조 본당

- 3대 주임신부인 문금산 안젤로(A.S. Montuori) 신부 재임기인 1961년 5월 현재의 성당 부지를 매입하였다. 8월에 공사가 시작되었다. 착공 10개월만인 1962년 6월 16일 완공되어 봉헌식이 거행되었다.
- 파리외방선교회의 전형적인 성당건축과는 달리 메리놀 외방선교회의 전형적인 형식을 구성하고 있는 청주 내곡동 성당을 모델로 하였다. 벽체의 하부는 적벽돌로 하였고, 상부벽체 마감은 시멘트 몰탈로 처리하였다. 종탑은 모두 적벽돌로 하였다. 외곽길이는 22 x 28.5 m, 높이 7 m, 종탑 높이 11.5 m이다.
- 성당의 평면은 장방형으로 신랑(身廊,nave)과 측랑(側廊, aisle)의 구별이 없는 장방형으로 제단좌측에 주일학교, 우측에 제의실 및 사제실이 배치되어 평면 형태상으로는 T자형의 구성을 하고 있다. 사제실 부분에는 제의실과 침실, 주방, 회의실 등이 구성되어 있다.
- 성당의 입면은 내곡동 성당과 유사한 방식으로 몸체의 맞배지붕의 높이와 크기를 줄여 몸체에 붙여서 3개의 아치를 이용하여 3문형식의 출입구를 구성하고 있다. 내부 구성은 nave와 aisle 등 전형적인 교회의 공간구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이는 건물의 규모 때문으로 여겨진다. 본당 측면은 아치형 창문이 특징적이다. 크고 작은 뾰족 아치를 이용한 창문을 설치해 측면입면이 리듬감을 갖고 있다. 측면에는 굴뚝을 겸하고 있는 플랫 버트리스 또한 중요한 요소이고 굴뚝이 높이 솟아 있다. 메리놀 외방선교회 성당의 입면구성에서 가장 큰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역시 종탑이다. 이는 미국의 본부 건물의 특성과도 연관되는데 동양권의 선교를 위한 선교회로서 동양의 탑 형식을 활용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파리외방선교회에 소속된 성장과는 다른 메리놀 외방선교회의 독특한 입면을 구성하고 있다. 우측에 돌출한 종탑과 함께 형성한 마당은 적당하고 잘 정리된 외부공간을 보여주고 있다.
- 조적조로서 하부 벽체는 적벽돌 치장쌓기로 되어 있다. 상부벽면은 몰탈을 발랐다. 지붕의

구조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목조트러스 구조로 생각하며, 지붕은 평기와가 설치되어 있다.

###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한옥성당의 경우 본당으로 사용되었다가 수녀들의 생활공간으로 이용되다가 지금은 회합실 등으로 사용되는 등 내부는 지속적으로 용도가 변하여 왔다. 이에 따라 내부 바닥 및 공간 구성이 변화를 해 왔다. 하지만 외관의 경우는 창호를 알미늄 창호와 일부 출입문을 철판을 이용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큰 변형 없이 잘 유지 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 문간채에 있어서 전언에 의하면 초가지붕이었다고 하나 1963년 사진에 기와로 되어 있어 성당으로 사용한 후에는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외관을 형성하는 인방부재가 처져있어 구조적 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
- 적벽돌조의 본당은 외관의 경우 축조 당시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다. 내부는 bay unit가 반복된 교회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 다소 변화가 있었다.

###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 부강성당 본당 외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대문채, 회합실이 있는 안채 공간 등 2채의 공간을 본당과 더불어 성당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다. 일반적으로 본당이 신축되면 공간 활용을 위해 그전에 사용되었던 본당을 철거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강성당은 본당을 축조하기 전에 이용했던 한옥 성당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또한 메리놀 선교회의 독특한 외관의 모습을 잘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성당에서 보여지는 파리 외방선교회의 성당과는 다르 다른 모습으로 독특한 정체성을 지닌다고 생각한다. 또한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성당에서 시행한 한국에서의 구휼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들을 잘 보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부강성당과 부강 지역인들의 삶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원래의 기능인 성당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부강성당의 변화 과정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1950년대 이후 충북지역의 성당의 변천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의미가 있다. 특히 본당 축조 전에 이용되었던 한옥성당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부강성당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내곡동성당이 그대로 남아 있고 오송 성당도 부강성당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부강성당은 메리놀 선교회에서 새로운 성당을 신축하기 전의 본당으로 활용되었던 한옥성당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1950년 대 말 1960년대 초의 상황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측면

에서 내곡동성당이나 오송 성당과 성격을 달리한다. 부강성당의 역사는 부강의 지역사회와 긴밀한 연결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원래의 기능인 성당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다. 대문채, 안채 등의 한옥과 1962년 6월 16일 준공된 메리놀 외방선교회의 독특한 성당의 형식이 변형됨이 없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1950년대 이후 충북지역의 성당의 변천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본당 축조 전에 이용되었던 한옥성당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 대문채와 안채로 구성하고 있는 한옥 성당 형식은 1950년대 충북지역의 우리나라 선교에 대한 상황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다. 새로 신축한 적벽돌 성당과 함께 지금도 함께 이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 부강 성당 자체가 1950년대 전후 구휼사업 등 지역 주민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간의 구휼활동에 대한 실제적인 자료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부강의 지역사를 밝히는 측면에서도 등록문화재로의 등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문화재전문위원 ○○○(2020.1.9.)>

#### 1) 개요

- 신청된 세 건물은 미국 메리놀외방전교회 소속 부강성당 관할로서 구 부강성당(한옥1), 부강성당 사무실(한옥2), 현재 본당으로 사용중인 부강성당(양옥)이다.
- 메리놀외방전교회는 중국과 만주에서 전교활동을 하던 중에 1923년 당시 식민지조선에 처음 진출하여 평남지역에서 평양교구를 설정하고 전교활동을 하다가 1942년 6월 일제에 의해 강제추방되었다. 해방 후 남한에 재진출하였고 1953년 초 한국천주교회 노기남 주교에 의해 충북지역 카톨릭 선교를 메리놀외방전교회에 위임받은 후 이 지역에 소속 선교사들을 파견하여 전교활동을 벌였다.
- 해방을 전·후하여(1923년~1960년대전반, 현대식 성당을 건축하기 이전) 미국 메리놀외방전교회 소속 성당건축은 대략 3가지 경향을 보여준다. 즉, ①한옥주택을 성당으로 전용하거나 ②한·양 절충식 성당을 짓거나 ③메리놀외방전교회 특유의 동·서양 절충식 성당을 지었다. 신청된 구 부강성당(한옥·) 및 현 부강성당(양옥)은 이 세 가지 경향 중 ①과 ③을 대표하는 사례이다.

#### <구 부강성당(한옥1)>

- 1907년 당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에 비룡(飛龍)공소가 설립되어 이 일대에 공식적으로 천주교 전파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비룡공소는 부강성당에서 약 6.3km 떨어진 곳이었고 부강지역에는 1933년경에 용포(龍浦)공소(당시 충북 부용면 부강리)가 설립되었고, 해방후에도 본당 없이 용포공소가 지속되었다.
- 1957년 1월, 미국의 구호물자가 부용면 지역에 배분되자 이에 감동한 부용면 면장이 성당 설립을 천주교회 측에 요청하고 그해 3월에는 부용면 부강리에 “적당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한다(등록신청서). 그러나 이 부지가 신청대상 성당이 자리한 부지는 아니었다고 보인다. 부강성당 첫 주임신부로 1957년 메리놀외방전교회 소속 선 다니엘(J. D. Schneider) 신부가 부임하여 “부강리 129-2번지 한옥 건물을 매입하여 임시 성당으로 사용했다”(타자본 「부강 본당의 역사」, 천주교구청 소장)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이 한옥 건물이 구 부강성당인데, 원래 광산업으로 거부가 된 김재식 가의 별당으로 1934년 지어진 주택이었고, 별당영역으로 진입하기 위한 문간채(한옥2)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 1957년 4월 21일이 부강성당 설립일이므로, 매입은 그 보다 조금 이전에 있었고 별당을 성당으로, 대문채를 성당 사무실로 전용하기 위해 어느 정도 변경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기단 위에 우측 2번째 칸 앞에 2단 돌계단을 두어 우측 2칸의 마루방으로 2짝 여단이 판문(현재 철문)으로 들어가도록 한 것으로 보아, 성당으로 전용할 당시 계단을 놓았고 이쪽으로 신자들의 주출입구였을 것으로 보이고, 우측 2칸 마루방은 일종 전실로, 가운데 5칸 온돌방은 예배실로 사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 당시 주임신부의 사제관은 “용포공소에 마련했다”고 한다(등록신청서). 그런데 등록조사시 신청자의 얘기에 따르면 1962년 사제관을 짓기 전까지 주임신부들은 구 부강성당(한옥1) 한켠에 잠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므로, 어느 시기부터는 한옥1의 일부공간이 사제관 역할을 겸했을 것으로 보인다.

#### <부강성당 사무실(한옥2)>

- 사무실(한옥2)은 원래 별당 문간채로서 별당을 성당으로 전용한 동시에 문간채의 어칸은 대문칸 그대로 두고 좌측 2칸은 사무실로, 우측 2칸은 사무실 겸 창고로 전용했고, 대문칸 우측 전면에 ‘부강천주교회’ 명패를 걸었다. 현재 용도도 그대로이다.

#### <부강성당(양옥)>

- 1958년 청주교구가 설정되고 메리놀외방전교회 소속 파 야고보 주교(James V. Pardy, 1958-1972 재임)가 청주교구 초대 교구장이 되었다. 파 주교는 일제강점기 평남지역에서, 해방 후에는 충북지역에서 전교활동을 이미 하고 있었다. 그를 따라 평남지역 신도들이 남하하여 충북에 자리잡았는데, 그 중에는 박태봉(요셉), 김 □□(분도)이 있었고, 이들은 파 주교의 지도 하에 평남지역에 지어졌던 메리놀외방전교회 소속 성당건축을 모델로 삼아 청주 상당구 내덕동 주교좌성당(1962)을 비롯해 1960년대 전반기 관할 성당들의 설계와 시공을 맡았다. 부강성당 역시 이들이 관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 1961년 5월 문금산 안첼로(A. S. Montuori) 3대 부강성당 주임신부가 부지 3,004평을 매입하고, 그해 8월 양옥으로 성당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10개월 만인 1962년 6월 완공하고 그달 16일 완공 봉헌식을 올렸다.
- 부강성당 우측 트란셉트에 연이어 사제관이 자리하는데, 성당 신축 직후에 증축된 것으로 보인다.<sup>4)</sup>

#### <구 부강성당(한옥1)>

- 1962년 6월경 양옥 부강성당이 건축되고 사제관도 연이어 증축되자 이 건물은 성

4) 등록신청서에는 성당과 사제관이 함께 건축된 것으로 나오나, 조사일 현장에서 받은 등록신청서기타참조자료 및 천주교회 충북교구 웹사이트(<http://www.cdcj.or.kr>)에는 사제관이 증축된 것으로 나온다. 확인이 필요하다.

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게 된다. 한편 1962년 예수성심시녀회 분원이 성당 내에 설립되었다가 1970년 폐쇄된 이후 2003년 다시 분원이 설립되는 등의 역사가 있고, 그 사이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본 건물을 수녀원으로 전용했다.

- 현재는 비워져 있으며 맨 우측 2칸만 모임장소로 사용중이다.

##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구 부강성당>

- 김재식 가의 별당으로 지어진 18.2m × 5.7m 크기의 一자 한옥으로 정면 8칸(좌우 퇴칸), 측면 2칸의 2고주 5량가이다. 팔작지붕에 한식기와를 이었다. 정면 8칸 중 좌측 6칸에 전퇴를 두었다. 가운데 5칸에 방 3개가 연이어 있는데 그중 가운데 방에 기둥을 노출시켜 대량을 받치고 있는 점이 독특하다. 또한 방으로 사용하는 5칸 위에 넓은 다락을 두었고 우측2칸과 간막이 벽 상부 대들보 위에 실내창을 내었다. 김재식 가 안채에서도 동일한 처리를 볼 수 있다.
- 기단은 강석 장대석 두벌대로 들렀고 원형 초석을 두었다. 목부재는 압록강변 목재를 공수해 왔다고 하며 보존상태가 매우 좋다. 벽체는 한식 흙벽 위 회 미장이 대부분이나 배면 일부에 몰탈마감이다.

### <부강성당 사무실>

- 元 별당 영역의 문간채로서 전면 5칸, 측면 1칸반 규모이다. 애초에 초가지붕을 얹었다고 하며 1960년대 지붕재를 함석판으로 바꾸었고, 현재는 우진각으로 일식 시멘트기와가 이어져 있다. 기와 무게 때문인지 정면 우측 2칸의 도리가 심하게 처져 있다.

### <부강성당>

- 파리외방전교회(1836), 성 베네딕트수도회(1909), 메리놀외방전교회(1923), 성 콜롬바노외방전교회(1933) 등 여러 카톨릭 전교단체가 한국에 진출하여 전국 각지에 한국천주교회의 성당을 건축했다. 이들의 선교이념에 따라 지어진 성당의 건축형식도 차이를 보이는데, 해방후 1960년대에 메리놀외방전교회 관할 청주교구 소속으로 지진 성당들도 형식상의 특성을 공유한다. 소위 ‘메리놀 양식’이라고 불린다(김정신, 『한국 카톨릭 성당 건축사』).
- 메리놀외방전교회는 미국 최초의 카톨릭 외방전교회로서 1911년 창설되었다. 이때 본부를 뉴욕 메리놀(Mary Knoll) 언덕에 지은 건물(1911, 그림1)로 삼았는데, 이 건물은 반원아치와 두터운 벽체를 가지는 석조 로마네스크 풍이지만 지붕은 목조로 짜고 중국풍 기와를 얹어 절충식으로 지어 중국 선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종탑 상부 네 벽면에 개구부를 만들고 목조가구식 기둥과 보의 가구식 짜임을 변안한 디자인을 개구부 안에 설치한 외관이 특징적이다.
- 이 본부가 비록 성당은 아니지만, 내덕동 주교좌성당(1962, 그림2)을 비롯해 1960년대 전반기 메리놀외방전교회 소속의 청주교구 성당들은 그 디자인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 교회정면 모서리에 종탑을 세우되 상부에 목조가구식을 변안한 장식을 둔 개구부를 두고, 정면에서 네이브 쪽으로 조금 낮게 박공면의 나르텍스를 만들고 3개 반원아치 개구부를 둔 점, 트란셉트 중 한쪽을 사제관으로 만들어 편리를 도모하면

서 전체적으로 십자가 모양의 성당평면을 구성한 점이 뚜렷하다. 내덕동 주교좌성당 외의 사례로 본 부강성당(그림3), 오송성당(그림4), 내수성당(그림5)이 있다.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형하여 지은 경우도 있다. 다만 내덕동 주교좌성당은 지붕구배 처리에 중국풍 곡면이 뚜렷하지만, 다른 성당들에서는 이를 따르지는 않는다.



그림 1 메리놀외방전교회 본부 건물  
출처: <https://maryknollsociety.org/>



그림 2 청주 내덕동 주교좌성당  
출처: 천주교회 충북교구  
웹사이트(<http://www.cdcj.or.kr>)



그림 3 부강성당



그림 4 오송성당



그림 5 내수성당

- 부강성당은 라틴 십자가 평면이고 트란셉트가 꽤 큰데, 좌측 트란셉트를 소성당으로 사용하고, 우측 트란셉트에 제의실을 두었다. 또한 제의실에 연이어 증축된 사제관이 있어 우측 트란셉트가 훨씬 길다. 내부는 바실리카식이 아닌 홀 형식(폭 9m)으로 처리하였고, 제단까지 전체가 같은 높이인 평천장을 얹어 지붕에 짠 목조 트러스(등록신청서)는 감춰져 있다.
- 외관을 보면, 정면에 3개의 반원 아치 개구부를 둔 홀(네이브) 보다 조금 낮고 좁은 박공면을 취하는 나르텍스를 두고 우측모서리에 탑을 세워 ‘메리놀 양식’의 특징을 뚜렷하게 가진다.
- 외벽은 수직으로 보면 3단 구성을 취하는데, 기단부에 밝은 색 테라조 판석으로 덮고 징두리에 화란식 적벽돌 치장쌓기를 한 후에 창대석 높이에서 기단과 같은 재료로 가로띠를 건너지르고 그 위 벽에는 시멘트 몰탈 뿔칠 마감을 했다. 종탑과 굴뚝은 전체적으로 화란식 적벽돌 치장쌓기를 했다.
- 외벽은 수평으로 보면 일정한 간격으로 부벽(버트레스)를 두고 그 사이에 완만한 뽀족아치 창을 대소 교대로 내었다. 목재창틀이고 고딕풍 트레이서리를 짰는데, 큰 창은 2짝 여단이로, 작은 창은 오르내리창으로 처리했다. 사제관 외벽에는 아치창을 대신 단순한 오르내리창으로 처리했다.
- 좌·우측 벽면과 사제관 외벽에 굴뚝을 지붕으로부터 상당히 올렸는데 이 모습도 ‘메리놀 양식’의 한 특징이다.

###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구 부강성당>

- 구조체는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원래 김재식 家 별당으로 지어진 건물인데, 김재식은 일제강점기 광산으로 거부가 된 인물이다. 압록강에서 목재를 수송해 와서 본 건물을 지었다고 하며 목재 관리상태도 매우 좋다.
- 다만 별당(주택)에서 성당으로, 성당에서 수녀원으로 용도가 바뀌면서 애초에 주택의 방을 구획하던 벽체를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 온돌 위에 마루를 깔았다가 다시 그 위에 온수난방장치를 설치, 흙바닥이던 부엌바닥을 높여 실내화하고 천장을 새로 설치, 실내 화장실을 뒷마루 끝에 설치, 다용도실·샤워실·보일러실을 배면 우측 부엌 뒤로 증설 등에 따라 공간구획·단면·마감·외관에 변화가 있었다.
- 정면 전퇴 끝에 달았던 목재미단이창을 모두 걷어내고 알루미늄 창, 안쪽으로 방범용 창살, 바깥쪽으로 망을 설치했다. 전면 우측 2칸에 2짝 판문을 내었는데 그중 안쪽 칸 판문을 뜯어내고 철문을 설치했다. 좌측 2칸 중 1칸반 정도에 실내화장실을 만들고 그 안쪽도 실내부엌을 만들어 외관의 변화가 있었다.

#### <부강성당 사무실>

- 구전 및 1960년대 촬영과 현재 모습을 비교하면, 구조체를 제외하고 외벽·창호·지붕·내부공간에 걸쳐 상당히 많은 변형이 있었고, 원래 지붕을 짚으로 엮은 초가였다가 함석으로 바꾸고 다시 일식 시멘트기와를 엮는 등의 과정에서 지붕하중의 변화로 인해 건물 우측부가 내려앉은 상태이다.

#### <부강성당>

- 전체적으로 구조와 외부마감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 2008년 실내공사를 통해 실내는 원형을 거의 잃어버렸다. 이 공사로 성당 측벽 창호 중 작은 창은 내벽 마감으로 감춰졌고, 홀(네이브)와 트란셉트를 구획하던 4짝 목재 미단이창이 철거되었다.
- 이에 반해 사제관 중에서 2008년 실내공사에서 부분은 불박이가구까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신청자 측은 부강지역에서 메리놀외방전교회의 전교 및 구울활동이 이루어진 현장으로서 신청 건물에 대한 애정과 보존 및 관리 의지가 있고, 건물 뿐 아니라 건물을 배경으로 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의 보존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등록문화재로서 보존관리 여건은 양호하다.
- 비교적 넓은 대지 안에 3개 건물이 위치하고 있고 대체로 나지막한 주택지로서 주변환경도 양호하다.

###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구 부강성당>

- 신청자 측은 구 부강성당(한옥1)을 한옥 홈스테이 시설로 만들어 전통문화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종교인들의 피정공간으로도 사용할 계획이다. 또

한 “사제의 집무실로 사용했던 공간”을 유물관으로 만들어 성당 역사를 보여주는 여러 자료의 원본을 전시할 계획이다. 다만 “사제의 집무실로 사용했던 공간”이 어디를 지칭하는지를 분명히 제시하지 않았는데, 구 부강성당의 한켠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

- 한옥 홈스테이로 활용할 경우 화장실·부엌·샤워실 등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그 시설들이 건물의 현재 변형에 변형을 추가시킬 우려가 있다.
- 본 건물은 주택으로 지어진 한옥을 성당으로 전용했고 이후 다시 수녀원으로 전용한 매우 드문 사례이다. 성당과 수녀원으로 전용하는 과정에서 공간구획, 단면, 마감, 창호, 설비 등에 여러 변형이 있었기에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한옥 주택을 성당으로 전용한 사례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그 전용방식(쓰임새)을 조사하여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수녀원으로 사용할 당시의 실측 평면도·입면도가 남아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등록신청서 추가자료).
- 선불리 활용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건물변형이력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이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건물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활용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 <부강성당>

- 신청자 측은 부강성당(양옥)을 현재와 그대로 성당으로 활용할 계획은 적절하다.

##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구 부강성당>

-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한옥성당으로는 <진안성당 어은공소>(국가등록번호 제28호), <원주 흥업성당 대안리공소>(제140호), <장수성당 수분공소>(제189호), <서산 동문동성당 상흥리공소>(제338호) 등이 있다. 이들 성당 및 공소는 모두 애초에 성당으로 지은 건물이다. 반면 구 부강성당은 부강지역 부호의 꽤 규모 있는 한옥 별당으로 건축된 건물을 성당으로 전용한 경우로 희귀한 사례이다.
- 기존 건물을 공소로 전용한 사례로 <영덕 구 영해공소>(제762-8호)가 있는데 이 경우 일본식 가옥을 주택으로 계속 사용하면서 신부가 방문하여 미사전례를 했다는 점에서 본 건물과는 차이가 있다.

### <부강성당>

-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양옥성당은 여럿인데, 대부분 정면 중앙에 종탑을 가지는 성당이다. <옥천성당>(제7호) <진주 문산성당>(제35호), <나주 노안성당>(제44호), <춘천 죽림동 주교좌성당>(제54호), <울산 언양성당과 사제관>(제103호), <구 함평성당>(제117호), <원주 원동성당>(제139호), <전주 옥봉성당>(제154호), <홍천성당>(제162호), <횡성 풍수원성당 구 사제관>(제163호), <구 포천성당>(제271호), <서산 동문동성당>(제321호), <횡성성당>(제371호), <강릉 임당동성당>(제457호), <구 김포성당>(제542호), <대전 대흥동성당>(643호), <강경성당>(650호), <고흥 소록도 병사성당>(제659호), <군산 둔율동성당>(제677호), <천주교 진산 성지성당>(682호), <칠곡 왜관성당>(제727호), <인제성당>(제742호), <신안 흑산성당>(제759호)이 그러하다. 기타 독특한 형식과 모더니즘 양식으로 <춘천 소양로성당>(제161호), <서울 혜화동성당>(제230호)이 있다.

- 이들과 비교할 때 부강성당은 종탑을 정면 모서리에 배치하고 트란sept 한쪽에 사제관 연이어 짓는 구성이 독특하다. 2019년 지정된 <목포 경동성당>(제764호) 역시 정면 모서리에 종탑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메리놀외방전교회 관할 충북 성당들과 확연히 다를 뿐 아니라 아일랜드 성 골롬반외방전교회 관할 성당이기도 하다.
- 같은 카톨릭 성당이라 해도 각 전교단체마다 그 나름의 선호하는 형식의 성당 및 사제관 건축을 지었고 지역적 경향성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강성당은 메리놀외방전교회가 1960년대 전반기 충북지역에 지은 성당건축의 경향(소위 ‘메리놀 양식’)을 간직하는 사례로서 가치를 지닌다. .

## 7) 등록가치 의견

### <구 부강성당>

-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에서, 메리놀외방전교회 소속 성당으로서 한옥을 성당으로 전용한 해방 전 사례로 평양교구 관할 은산성당(1923)과 초기 마산성당(1926)이 있고, 해방후 사례로는 본 구 부강성당이 있다. 북한지역에 있는 메리놀외방전교회 소속 한옥성당의 실체에 접근하기 힘들고, 새 성당을 지은 후 기존 한옥성당을 철거하는 사례들이 있음에도 이 건물은 살아남았으며, 특히 한옥이되 주택을 성당으로 전용한 사례가 드물고 그로 인해 출입구가 한옥성당과 같은 측면이 아닌 정면이고 내부공간도 주택 모습 거의 그대로 수용한 점, 상량에 건축시기가 남아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물의 가치는 높다.
- 등록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 <구 한옥성당 부속채>

- 건물의 변형이 심하여 원래모습을 상당히 잃어버렸고 건물 자체로서 건축적 가치는 낮다. 특히 한옥성당을 사용할 부속 사무실로서 지역사회 구휼활동이 이루어지던 현장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현재의 변형은 꽤 아쉬운 부분이다.
- 등록문화재로서 가치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 <부강성당>

- 해방 후 메리놀외방전교회의 한국 전교활동의 중심지역은 충북 청주교구인데 1960 전반기 관할 성당은 소위 ‘메리놀 양식’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건축형식을 취하는데, 부강성당은 그 경향을 비교적 잘 간직하므로 교회사·건축사적 가치가 있다. 다만 2008년 내부공사로 인해 그 원형을 상당히 잃은 점은 아쉽지만, 한국전쟁 직후부터 성당을 중심으로 구휼활동 등을 통해 부강지역 공동체에 인도적 도움을 준 기록을 잘 간직하고 있어 사회역사적 가치를 더한다.
- 등록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신청한 세 건물 중 구 부강성당(한옥1)과 부강성당(양옥)이 등록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구 부강성당이 한옥주택을 성당으로 다시 수녀원으로 전용된 희귀한 사례라면, 부강성당은 1960년대 충북지역 메리놀외방전교회 관할 성당 특유의 건축형식을 잘 간직하여 각각 등록문화재로서 가치가 충분하다.

- 다만 성당의 역사로 볼 때 두 건물이 연계성을 가지고 관리자도 동일하므로 묶어서 등록해도 무방하겠으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묶어서 등록한다면 등록문화재 명칭으로는 ‘세종 부강성당과 구 부강성당’을 제안한다.

## <문화재전문위원 ○○○>

### 1) 개요

- 부강성당 설립 이전 1907년 비룡공소가 설립되었으며, 이후 1933년 대전과 청주교구가 분리되고, 1957년 초 부강지역 본당 설립 계획과 함께 이 지역에서 천주교의 구호활동을 계기로 면장의 요청과 성당부지의 무상제공에 따라 건립여건이 마련됨.  
이후 신청대상 부강성당은 1961년 5월 부지를 매입하고 8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1962년 6월 17일 문금산 안젤로(A.Montuorri) 신부재임 당시에 본당과 사제관이 정식으로 준공됨
- 현 부강성당 건립 이전에 사용되었던 한옥성당(부강리 129-2)은 인접해 있던 김재식 가옥에 별당채를 1957년 선 다니엘(D.Schneider)신부 재임 당시 매입하여 임시 성당으로 사용되었다가, 본당 건립 이후 예수성심시녀회의 수녀원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교우 회합실로 사용되고 있음.

###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청연로와 인접한 부정형의 대지 위에 남쪽으로 진입로와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고, 성당은 대지의 북쪽 청연로에 인접해 위치하고 있음, 구. 한옥성당은 대지의 동쪽에 사무실로 사용되는 대문간채와 함께 배치되어 있고, 진입로 서쪽으로 성모동산과 마당이 조성되어 있으며, 동쪽 구. 한옥성당 앞으로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음.
- 본당은 본당 출입구과 제대를 축으로하는 중심축은 45도 정도 기울어져 있으며, 제대는 북동방향으로, 출입구는 남서방향에 위치하고 있음,
- 옛 한옥성당은 북서와 남동쪽으로 장방형에 ‘一’자형 배치를 하고 있으며 마당 건물의 남서쪽에 마당이 설치되어 있음.
- 신청대상 건물의 배치를 살펴보면 부강성당 본당(소성당 및 사제관 포함)과 옛 한옥성당 배치는 기본적으로 라틴크로스 형식의 십자가형 치 형태로 되어 있음.
- 제대 좌측에 소성당과 우측에 사제관이 배치되어있으며, 제대 좌우측의 돌출공간은 대칭이 아닌 좌측에 규모가 작은 장방형의 소성당이 위치하고, 사제관이 우측에 배치되어 있음
- 평면은 주출입구는 포오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좌우측 문을 통해 본당에 들어서면 좌우 외벽에 돌출된 기둥외에 내부공간은 신랑(nave)과 측랑(aisle)의 구분없이 무주공간으로 구성되어 개방감이 확보됨, 제대는 장방형의 평면이 그대로 적용되어 끝단에 제단부가 위치하고 있으며, 원형이나 다각형의 앵스공간은 생략되어 있음.
- 본당의 제대 좌우측으로 소강당과 사제관이 본당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음
- 종탑은 본당과 별도로 분리되어 출입구 우측에 종탑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단부위에 적벽돌로 마감됨.

- 본당 내부는 2009년 리모델링을 통해서 창호 일부를 제외하고 인테리어 마감으로 되어져 있으며, 사제관의 바닥과 벽체 등은 원형 모습을 보존하고 있음
- 중탑부가 중앙에 배치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본체와 출입구의 배치 지붕에 형식 등은 북미식 교회건축의 스타일을 반영하였음.
- 박공지붕에 중앙출입구 앞으로 전실(narthex)을 포오치를 확장하고, 성당의 창문 형태와 마찬가지로 포인티드아치로 구성된 3개의 출입구를 설치함.
- 중앙은 본당과 같은 형태의 작은 규모에 경사지붕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좌우측에 출입문을 대칭으로 두고 있으며, 그 상부 지붕은 한쪽으로 경사를 갖는 외쪽 지붕으로 구성하여 2단 경사지붕에 형태를 보여주고 있음, 소강당과 사제관의 출입문은 외벽에서 돌출시켜 포오치를 형성하고 출입문을 설치하였음.
- 본당의 구조는 적벽돌로 14칸을 쌓아 징두리벽을 돌리고 상부벽체는 모르타르 거친 미장마감을 하였음. 처마와 창호와 아치 인방 및 징두리벽 상부 띠, 테두리 등은 흰색 페인트로 마감됨 .
- 좌우측 외벽으로 돌출기둥(플라잉버트레스)이 세워지고 일부는 적벽돌로 굴뚝이 형성되어 입면에 변화를 주고 있음.
- 지붕의 선이 정리되고 간결한 느낌을 주며,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으며 안정된 입면을 취하고 있음
- 근대시기 파리의방전교회로부터 메리놀회가 평안도와 충청북도 등에 관할권을 받아 선교하는 과정에서 건립된 성당이 북미식 교회건축양식에 영향을 받아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1950년대 이후 충북 청주를 중심으로 선교활동이 집중되었으며, 1962년 건립된 부강성당의 건축양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됨
- 구. 한옥성당은 좌측 한칸은 주방과 욕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4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정면 8칸, 측면 2칸 규모로 구조는 2고주 5량가로 구성되어 있고, 회합실과 중앙에 2칸을 사용하는 하나에 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기둥이 노출되어 있음.
- 지붕은 팔작 지붕에 한식기와로 마감되어 있음.
- 정면중앙에 5칸은 퇴칸으로 되어 있으며, 한식목창호와 상부 고창이 설치되어있고, 외부에는 AL창호 및 방법창이 설치되어 있음, 내부는 2짝 미닫이문, 우측면은 4짝 미서기문이 설치되어 있음.
- 건물의 배면에는 기존 한옥과 연벽해서 다용도실과 보일러실, 샤워실이 증축되어 있고, 다용도실을 통해 주방으로 출입이 가능함.
- 초석은 원형초석으로 배면은 기단부가 변형되면서 초석의 상부 일부만 노출된 상태임

###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부강성당 본당은 지속적인 관리로 건물의 보존상태는 양호하며, 2009년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내부마감에 변형이 있었으며, 기존 목재 창호에 플라스틱 창호를 덧대어 시공함. 구조와 외형에 원형보존 및 노후화 상태가 양호함.
- 구.한옥성당은 배면과 좌측면 일부 시멘트벽돌을 쌓아 변형된 부분이 있으며, 내부에 기존 회벽과 마루 마감이 방으로 사용되면서 벽지 및 장판지로 마감이 바뀌었고, 화장실과 주방 일부는 타일을 붙여 마감함.
- 본당의 창호는 기존 목재창호에 플라스틱 창호를 덧대었으며, 구.한옥성당의 창문은 외부에 알루미늄과 방법창이 설치됨.



####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천주교 전례기에 대전교구와 청주교구의 시작점이 되었던 비룡공소가 설립되고, 부강에서 한국전쟁 이후 구휼사업 등 지역민과 생활사를 같이 했던 장소로 공동체 의식이 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은 부강성당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며, 원형복원 및 보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보존·관리에 대한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부강성당 본당과 옛 한옥성당이 동일 필지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교구와 성당에서 지속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음.
- 신청대상 건물은 성당 본당과 회합실(구. 한옥성당)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외부는 마당과 조경 부분 등 완충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문화재 훼손이나 변형 등 저해할 만한 주변 환경적 요인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부강성당 본당은 메리놀회를 중심으로 청주교구의 선교활동을 통해 부강에 자리 잡고 건립된 성당이며, 건립 이전에 성당으로 사용했던 구.한옥성당과 함께 보존 관리되고 있음
- 신청대상인 두 개의 건물은 부강성당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볼 수 있으며, 지역에 근대경관을 형성하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음.
- 또한 부강지역 천주교 신자들에 신앙의 산실이며, 지역 주민들에 쉼터이고 안식처에 역할을 하고 있는 장소임
- 종교적, 건축적 가치와 더불어 지역에서 문화적 의미를 내재한 부강성당은 지속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하면 물리적인 수리·보수 외에도 문화재 등록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부강성당은 신앙적으로 청주교구에 역사적 맥락과 함께하고 있으며, 건축적으로 북미의 교회양식이 반영된 건물임.
- 지역의 근대 생활사와 문화적 의미를 내재하고 있으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으로 연계하여 순례객이나 방문객에게 근대식 한옥에 대한 체험과 종교적 쉼터로서의 활용계획을 목표하고 있음.

##### 다. 기타사항

- 부강성당 내 보관 중인 기록화 자료나 유물에 대한 종교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역에 생활문화사적 측면에서 평가가 요구되며, 이를 활용계획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옥천성당(국가등록문화재 제7호)은 1956년 4월 건립된 성당으로, 부강성당을 건립한 메리놀회 소속 선교에 의해 건립됨.
- 고딕양식과 전면출입구의 지붕을 박공지붕으로 표현한 조지안 양식이 절충된 성당임.
- 처마면과 창문인방, 띠돌림 등 돌출부는 백색페인트 마감이며, 외벽은 거친 미장면 위에 페인트로 마감함.

- 부강성당의 본당은 기 등록문화재와 비교·검토해 볼 때 구조와 의장, 재료 등에 측면에서 고딕과 북미식 교회건축 양식이 혼재된 절충식 교회건축양식을 보여주고 있으나, 부강성당은 외형이나 양식에 있어서 기존 문화재로 등록된 성당과 비교했을 때 고딕양식 보다는 북미식 교회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음.

####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부강성당(1962년 건립) 및 구. 한옥성당(1957년 매입)은 부강지역에 천주교 전파와 확장이라는 종교적 의미와 더불어 어려웠던 시기에 지역주민과 함께 했던 구휼사업을 통해 신앙과 공동체의 근거지로서 역사적 가치를 가짐.
- 건축적 의미에서 기존 고딕양식의 천주교 건축양식과 다르게 미국 메리놀회 선교를 통해 북미식 교회건축양식이 반영된 성당이며, 구. 한옥성당의 경우도 사가(私家)로 사용되었던 근대식 한옥을 매입해서 초기에 성당으로 사용하고, 이후 수녀원, 회합실의 용도로 활용해오고 있음.
- 부강성당 본당과 옛 한옥성당은 건립 당시의 구조와 형태에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유물(서적, 기록화 자료 등) 등은 종교와 생활사적 측면에서도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음.
- 대문간채의 경우 구조와 재료의 변형이 크고, 성당과 관련된 건축사적 의미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금번 신청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부강성당은 지역의 역사적 맥락을 공유하고 있으며, 건축적 측면에서 구.한옥성당과 현재 본당이 갖는 양식적 특징, 구조 및 형태 등 건축적 보존가치가 높다고 사료됨.

####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한옥성당의 등록 시 명칭은 ‘구. 부강성당’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8. 「부산 나병원 기념비」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 가. 제안사항

「부산 나병원 기념비」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된('18.4.16) 「부산 나병원 기념비」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9.11.28.)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문화재명	수량	크 기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비고
부산 나병원 기념비	1건	○상단 -가로 22.5×세로22.5cm ○하단 -가로 30×세로30cm ○높이: 103cm	1930년	한호기독교 선교회	부산광역시 동구 정공단로 27 일신기독병원	

#### (2) 추진경과

- 「부산나병원기념비」 문화재 등록 신청(18.4.16.)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19.11.28.)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 ○ ○ 문화재전문위원 ('19.11.28.)

- 부산 나병원 기념비는 1909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나병원인 부산 나병원의 설립을 기념하여 1930년 세워진 비석임. 1941년 부산 나병원이 폐쇄된 이후, 현재는 부산 나병원을 운영하였던 선교사 맥켄지의 자녀들이 설립한 일신기독병원에 세워져 부산 나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기념하고 있음. 해당 문화재는 100년에 이르는 한센병과 관련된 중요한 역사 자료로 등록 가치가 있음.

○ ○ ○ ○ 연세대학교 조교수 ('19.11.28.)

- 해당 기념비는 우리나라 최초의 나병원인 부산 나병원에서 1930년 제작하였으며, 선교사 맥켄지의 두 딸이 설립한 일신기독병원에 설치되어 있음. 부산 나병원은 한국 근대사에서 최초로 세워진 나환자만을 위한 병원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해당 병원의 기념비와 같은 역사적인 조형물을 보존하는 것은 나병원 및 한센병 환자들의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으므로 가치가 있음. 또한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졌으므로 의료선교방법의 형태를 추적해 볼 수 있으며, 근대의료기관의 한 형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보존 가치가 있음.

○ ○ ○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19.11.28.)

- 이 기념비는 우리나라 특수의료 영역인 한센인 치료와 선교 역사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부산 나병원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되었음. 또한 환자 공동체가 힘을 모아 건립하였으며 그들의 중요 자산이었다는 점에서 환자공동체 역사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가치 있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 <붙임>

# 「부산 나병원 기념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부산 나병원 기념비
2. 소재지 : 부산광역시 동구 정공단로 27 일신기독병원
3. 소유자 : 한호기독교선교회
4. 조사자 의견

### <○○○ 문화재위원(‘19.11.28.)>

#### 1) 현상

- 부산 나병원 기념비는 오벨리스크 형태의 석조 비석으로 옛 사진에 의거하여 새로 제작한 계단식 대좌에 올려져 있음.
- 비석이 일부 손상된 부분이 있지만 보존 상태는 대체로 양호함.

#### 2) 내용 및 특징

- 부산 나병원 기념비는 1909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나병원인 부산나병원 설립을 기념하여 1930년에 세워진 비석임.
- 우리나라의 나병원은 일제강점기 관련 사료에 따르면 1910년 부산, 1910년 여수, 1913년 대구, 1916년 소록도 등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부산 나병원 기념비에 새겨진 기록에 따르면 부산의 나병원은 1909년에 설립된 것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부산 나병원은 가장 일찍 세워진 나병원으로 비정할 수 있음.
- 부산 나병원 설립자는 북장로교 선교사이자 의사인 어빈이지만 1912년부터 호주장로교 선교사 맥켄지가 운영을 맡았음. 맥켄지가 1938년 일제에 의해 추방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1941년에 병원 시설물이 일본군 부대로 편입되면서 문을 닫게 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음. 병원 폐쇄로 흩어졌던 환자들이 해방 후 부산 용호동으로 모여들어 나환자촌을 이루었으며, 1975년까지 이들을 지원하던 경남도립상애원·국립용호병원 등이 운영되었으나, 2000년대 용호동 재개발 사업으로 나환자촌은 자취를 감추었음. 광주나병원은 남장로교 선교사 월슨이 1911년에 광주 호천면에 병원을 세웠으나, 1927년부터 여수로 이전하였음. 현재는 재단법인 애양원과 애양병원으로 명맥을 잇고 있음. 대구 나병원은 동산병원장인 북장로교 선교사 플레처가 1913년 세움. 일제에 의해 추방되었던 플레처가 해방 후 복귀하면서 달성과 의성 등 대구 인근지역까지 병원과 나환자촌을 확장해 현재는 재단법인 애락원과 광개토병원을 운영하고 있음.

- 부산 나병원 기념비는 원래 1930년 5월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나병원 교회 앞에 세워졌었음. 그러나 1941년 부산 나병원이 폐쇄됨에 따라 이를 지키는 사람도 없어 이후 여러 차례 위치가 변동됨. 1938년 맥켄지가 한국을 떠난 뒤 1941년에 부산 나병원이 폐쇄되자 나환자들은 흩어졌다가 1946년 감만동 인근인 용호동에 모여들면서 정착촌을 형성함. 이를 상애원 또는 용호농장으로 부르는데, 밭을 갈던 농부가 버려진 ‘부산 나병원 기념비’를 발견하여 현재는 사라진 상애원 내 동부국민학교 앞에 다시 비석을 건립한 것으로 전함. 이후 비석의 위치는 상애교회 앞 또는 기념공원으로 한두 차례 더 이동한 것으로 알려짐.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부산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이었던 용호동 일대 재개발이 시작되자 상애원의 신앙적 중심지였던 상애교회가 창대교회로 이름을 변경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신도시로 이전하게 됨. 이 과정에서 ‘부산 나병원 기념비’ 역시 정관읍으로 이전하였으나 비석은 새롭게 자리잡지 못하고 교회 창고에 방치되었음. 2016년 ‘부산 나병원 기념비’의 존재를 파악한 일신기독병원에서 비석 이전을 요청함. 일신기독병원은 나병원을 운영한 맥켄지의 두 딸 헬렌과 캐서린이 1952년 설립한 병원임. 1913년과 1915년 부산에서 태어난 자매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호주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되어 전쟁 중이던 한국으로 돌아와 피난민들이 모여든 부산에서 임산부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병원을 건립함. 이 요청으로 부산 나병원 기념비가 일신기독병원으로 이전하게 되었으며, 현재 병원의 행정관 앞마당에 설치되어 있음. 부산 나병원 기념비의 이전 상황은 다음과 같음.
  - 1930년 5월 부산 감만동 나병원에 건립
  - 1952년 3월 부산 용호동 상애원으로 이전
  - 2004년 2월 부산 기장군 정관읍 창대교회로 이전
  - 2016년 7월 부산 좌천동 일신기독병원으로 이전
- 일신기독병원에서는 부산 나병원 기념비를 이전 설치할 때, 관련 사진 자료에 의거하여 처음에 부산 나병원 기념비가 세워졌을 때의 대좌 형태를 복원하고자 하여 계단식 대좌를 설치하였다고 함.





- 이 비석에 새겨진 명칭은 부산 나병원 기념비가 아니라 원문대로는 ‘대영나환자구료회(大英癩病者救療會)’임, 대영나환자구료회는 ‘British Emperor Leprosy relief Association’ 또는 ‘Mission to Lepers in India and East Asia’로 부르는 조직으로, 세계 최초 국제 구라(救羅) 조직임. 이 대영나환자구료회가 재정을 지원하여 어빈 선교사가 1909년 부산 나병원을 설립한 것을 기념한 것임.
- 공로자로 이름이 나오는 3명은 다음과 같음. 스미스(Walter E. Smith, 沈翊舜, 1874-1932)는 북미 장로교 선교사로 1902년 내한하여 1904년 나환자구제사역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어 부산 나병원설립에 공헌하였으며, 초기에 원목으로 봉사하다가 1919년 본국으로 귀국함. 어빈(Charles H. Ervin, 魚乙彬, 1862-1933)은 북미 장로교의 의료선교사로 1893년에 내한하여 1904년 나환자구제사역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어 1904년부터 1911년까지 전킨기념병원을 운영하였으며 1909년 부산 나병원 설립에 기여하였고 1933년 한국에서 사망함. 사이드보텀(Richard H. Sidebotham, 謝普淡 또는 史牧師, 1874-1908)은 북미 장로교 선교사로 1899년 내한하여 나환자 구제 사역에 종사하다가 1907년 귀국함.
- 비석 건립 당시 부산 나병원의 관리자로 이름이 나오는 맥켄지(James N. Mackenzie, 梅見施, 1865-1956)는 호주 장로교 선교사로 1910년 내한하여 1912년 부산 나병원 원장으로 취임하였으며 29년간 부산 나환자를 돌보다 일본의 추방 명령으로 1938년 본국으로 귀국함.
- 감역(監役)으로는 김수홍(金守弘), 윤병항(尹炳恒), 유중건(柳重健) 등이 기록되어 있으나 행적은 확인되지 않음. 비석의 제작과 관련된 인물로 추정됨.
- 비석의 기록에 따라 부산 나병원 설립은 1909년 10월, 부산 나병원 기념비 설립은 1930년 5월로 확인할 수 있음.

### 3) 문헌자료

- 대한나관리협회, 『한국나병사』, 1988.
- Son Sang Pil, *For Marginalized People: Scottish Australian James Noble Mackenzie's Ministry in Korea*, 2017.
- 부산진교회, 지웅업 역, 『제임스 노블 맥켄지 목사 자서전』, 2004.
- 에디스 커, 조지 앤더슨, 양명득 역, 『호주장로교 한국 선교 역사 1889-1941』, 2017.
- 일신기독병원 총동문회, 『맥켄지家の 딸들: 매혜란, 매혜영 선교사를 기리며』, 2012.
- 정근식, 「동아시아 한센병사 연구를 위하여」, 『보건과 사회과학』 12 (2002), pp. 5-41.
- (재)한·호기독교선교회 일신기독병원, 경기대학교박물관, 『호주 매씨가족의 한국소품 이야기』, 2016.
- 헬렌 맥켄지, 김영동 역, 『호주선교사 맥켄지의 발자취』, 2006.

###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부산 나병원 기념비는 우리나라 최초의 나병원 설립을 기념한 비석임.
- 현재 일신기독병원은 부산 나병원 기념비가 세워졌던 원래의 장소는 아니지만,



해방 후에 용호농장에 모였던 나환자들이 이미 폐쇄된 부산 나병원 기념비를 찾아 세워 보존했던 노력과, 용호동 재개발에 따라 비석이 창대교회 창고에 있던 것을 맥켄지의 자녀들이 세운 병원인 일신기독병원에서 비석을 이전하여 부산 나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기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나병원의 역사를 기념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1909년에 시작된 나병원을 기념하여 1930년에 세운 기념비는, 100년에 이르는 한센병과 관련된 중요한 역사 자료로 등록 가치가 있음.

### <○○○ 연세대학교 조교수('19.11.28.)>

1) 조성연대 : 1930년

2) 현상

- 일신기독병원 내 병원 건물 사이의 잔디밭에 세워져 있음. 비석 정면 오른쪽 위의 일부가 마모되었음. 비석 뒷면 오른쪽 위의 일부도 깨져 비석에 새겨 넣은 창립(創立)의 창(創)의 일부분이 깨져 나갔으나, 전체적인 비석의 상태는 양호함. 비석의 원래 형체와 비석에 새겨진 글자를 파악하는 데는 문제 없음. 현재 최초 비석 설치 때처럼 기대를 설치하여 보존중에 있음.



<그림 1> 기념비 정면  
오른쪽 위의 깨진 부분



<그림 2> 기념비 뒷면  
오른쪽 위의 깨진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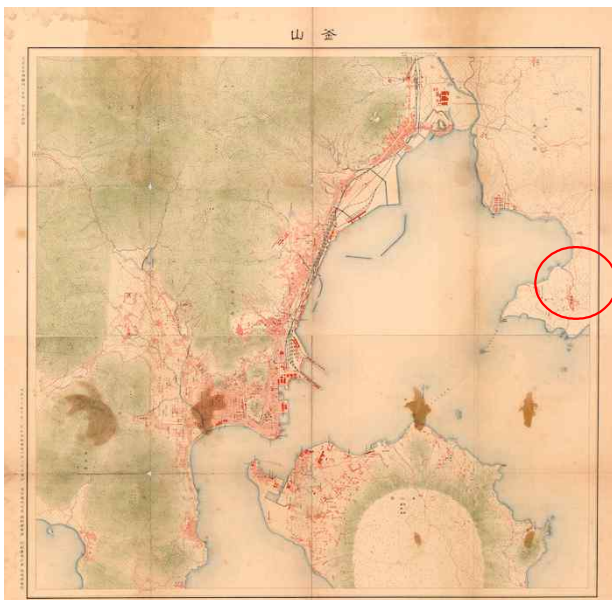
3) 내용 및 특징

가. 개항기 이후 의료선교사에 의한 나병 치료와 부산 나병원의 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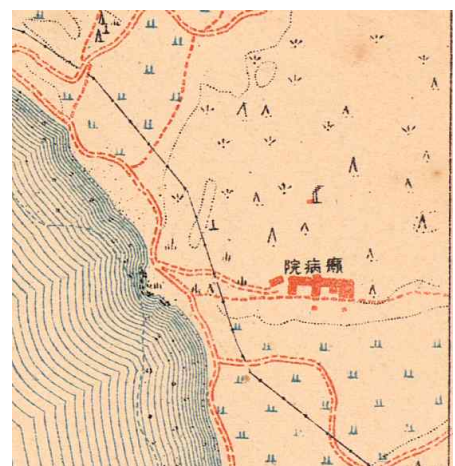
- 개항 이후 한국에 서양 근대의학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선교사에 의한 진료가 이루어졌음. 당시 나병에 관한 최초의 언급은 1886년에 작성된 제증원의 제1차년도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 제증원의 의료선교사들과 개항기 내한한 의료선교사들이 나환자를 진료했다는 기록이 종종 확인됨. 예를 들어, 고종의 시의로 활동한 독일인 의사 분쉬(Richard Wunsch), 전주지역의 의료선교사였던

잉골드(Mattio Barbara Ingold)가 작성한 보고서류에 나병에 걸린 환자를 진료 및 치료하였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음. 당시 한국에서 행해진 나환자 치료는 의료선교사들이 큰 역할을 했고, 북장로교 교단은 조선 내의 나환자가 많이 발견되므로 이들의 치료를 위해 영국 구라선교회(British Mission to Leper)의 인도 및 극동 구라선교회(The Mission to Lepers in India and the East)에 부산 인근에 나요양원을 설립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 미국 북장로교 소속이었던 어빈(Charles H. Irvin, 한국명 魚乙彬)은 1910년 3월 30일에 경남 동래군 서면 감만리에 나병원을 개원했음. 병원 설립초기에는 북장로교 선교회에서 주도했지만, 1910년말부터 호주장로교 선교회와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호주 선교사 맥켄지(Mackenzie, 한국명 梅見施)가 이를 이어 받아 1911년 4월 부산 나병원을 신축하고 관리자가 되었음. 부산 나병원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지고 바다와 산에 인접한 지리적 조건을 고려하여 현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우암동 일대에 위치했으며, 1941년까지 운영되었음. 맥켄지는 1938년 일제에 의해 추방될 때까지 운영을 담당하였음.
- 부산 나병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나병원으로, 부산지역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 근대사 속에서도 선교, 의료, 보건위생 정책 등과 결부시켜 생각해볼 수 있는 의료기관임. 이곳에는 병원시설 이외에 교회, 기숙사, 학교, 운동장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고, 부산 및 근처 나환자들의 통원치료도 병행하는 등 부산 및 경남지역 나환자의 치료 및 관리에 크게 기여하였음. 부산나병원에 이어 1912년에는 광주나병원, 1913년에는 대구나병원, 대영나환자구료회의 재정지원 아래 대한선교사에 의해 설립되었음. 동시기 조선총독부도 나환자 격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16년 소록도 자혜의원 설립을 공포하고, 1917년에 정식 개원했음.



<그림 3> 1926년 부산 지도. 붉은 원 안에 나병원 (癩病院)이라는 표시 있음.



<그림 4> 그림4의 붉은 원안 확대.

- 부산나병원에서는 당시 나병의 치료제인 대풍자유 주사약, 고약, 붕대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매주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나병원 내의 환자뿐만 아니라 입소하지 못한 환자들의 치료에도 힘썼음.
- 부산나병원 주변에는 완쾌했으나 신체적 장애로 인해 사회로 복귀하지 못한 음성나환자들이 모여 촌락을 이루었고, 이들은 가축을 기르고 채소를 재배하여 경제생활을 영위하면서 나병원에 입소하지 못한 환자들에게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였음. 마을과 나병원은 ‘병원 입소대기-나병 치료-완쾌-마을정착-대기나환자 지원’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였고, 그 중심에 부산 나병원이 위치하였음. 1920년부터 병원시설을 확충하였고, 1938년에는 수용 나환자수가 650명에 이르렀음.
- 의료선교사들에 의한 병원 설립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갖고 있음. 조선총독부가 설립한 소록도 자혜병원과 운영과 시설 측면을 비교해 볼 수 있으며, 선교사들이 개원한 다른 나병원과도 연계 조사가 가능함.

#### 나. 부산나병원기념비의 제작 및 수록 내용



○ 기념비는 1930년 5월 부산 감만동 나병원에서 제작되었음. 1952년 부산 용호동의 상애원으로 이전됨. 상애원은 해방 후 1946년부터 감만동 인근인 용호동에 부산나병원 출신 나환자들이 모여 정착촌을 이루고 살면서 상애원 혹은 용호농장으로 불리던 곳을 지칭함. 2000년대 상애원의 나환자수가 줄어들고, 용호동 일대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상애원의 신앙적 중심지인 상애교회가 창대교회로 개칭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신도시로 이전하였는데, 이때 부산나병원 기념비도 가지고 감. 2016년 일신기독병원은 맥켄지의 두 딸이 1952년 설립한 일신기독병원이 부산나병원기념비의 존재를 파악하고 비석 이전을 요청하여, 현재 위치에 설치되었음.

<그림 5> 부산나병원기념비

- 기념비는 1930년 5월 부산 감만동 나병원에서 제작되었음. 1952년 부산 용호동의 상애원으로 이전됨. 상애원은 해방 후 1946년부터 감만동 인근인 용호동에 부산나병원 출신 나환자들이 모여 정착촌을 이루고 살면서 상애원 혹은 용호농장으로 불리던 곳을 지칭함. 2000년대 상애원의 나환자수가 줄어들고, 용호동 일대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상애원의 신앙적 중심지인 상애교회가 창대교회로 개칭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신도시로 이전하였는데, 이때 부산나병원 기념비도 가지고 감. 2016년 일신기독병원은 맥켄지의 두 딸이

1952년 설립한 일신기독병원이 부산나병원기념비의 존재를 파악하고 비석 이전을 요청하여, 현재 위치에 설치되었음.

- 기념비의 4면에는 각각 다음의 글자가 새겨져 있음. 기념비의 앞면에는 대영나병자구료회기념비라고 적혀져 있으나, 좌측과 뒷면에는 부산나병원(釜山癩病院)으로 표기되어 있어, 이 기념비가 부산나병원의 건립을 기념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음. 또한 창립 일자가 1909년으로 되어 있어, 의료선교사 어빈이 영국 구라선교회의 자금을 받아 개원한 나병원을 시초로 하고, 이것을 맥켄지가 이어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부산나병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심익순(沈翊舜), 사목사(史牧師) 등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음. 아직 감역(監役)을 담당했던 인물들에 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으나, 병원이나 선교회 관계자, 혹은 환자로 파악됨.
- 환자들이 기념비 제작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함. 맥켄지는 나병 호전을 위해 약과 음식뿐만 아니라 노동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이에 따라 나환자촌 기숙사 건설, 감만동 부두 건설, 좌천동 금성중고등학교 돌담 공사 등에 나환자들의 노동력이 동원되었음. 부산나병원일동립(釜山癩病院一同立)이라는 표현에 미루어볼 때 환자들이 기념비 제작에 참여했을 것으로 사료됨.

#### <기념비 명문 내용>

전면: 大英癩病者救療會紀念碑

좌측: 釜山癩病院創立功勞者 沈翊舜 魚乙彬 史牧師  
管理者 梅見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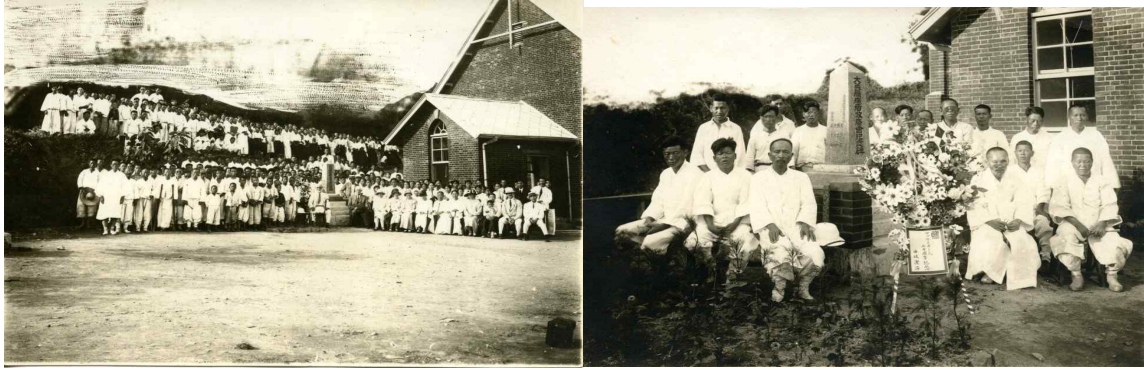
우측: 監役 金守弘 尹炳恒 柳重健

뒷면: 創立 主后 一 九〇九年十月 日

主后 一 九三〇年五月 日

釜山癩病院一同立

- 이 기념비는 부산나병원이 설립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인 1930년에 제작된 것인데, 본래 위치는 부산 감만동 나병원 교회 앞이었음.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음.
- 1930년이라는 시점에 기념비가 제작된 이유는 부산나병원 설립 20주년과 맥켄지 선교사의 내한 시점을 기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됨. 선교사의 기록에는 1909년 어빈이 나병원을 시작했다고 되어 있으나, 맥켄지의 전기와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나요양시설에 관한 건(癩寮養施設ニ關スル件)」의 기록을 살펴보면, 1930년은 병원이 설립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임. 그리고 같은 해 6월에 매견시(梅見施) 기념비가 좌천동에 세워졌는데, 기념비 앞에도 맥켄지 20주년을 기념하는 화환을 놓았음



<그림 6> 부산나병원(감만동) 교회 앞 기념비 <그림 7> 기념비와 맥켄지 20주년 기념 화환

- 맥켄지는 1938년 본국으로 귀국하였는데, 귀국하는 시점에 작성된 『동아일보』 기사에는 그의 귀국을 아쉬워하는 기사가 다수 실렸는데, 그간의 그의 노력에 대한 치하와 조선 땅에서 다른 사업이 아닌 나환자 구료사업을 시작한 것을 높게 평가하는 내용임. 그가 활동하던 시점에도 이러한 평가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사료됨.
- 두 기념비가 세워진 시점으로 미뤄볼 때, 맥켄지 선교사의 내한 20주년을 기념하고, 그의 나환자 치료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나병원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준 대영나환자구료회(구라선교회)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임.
- 같은 해에 소록도 자혜의원에도 기념비가 세워졌음. 이는 자혜의원의 제2대 원장 하나이 쟈키치(花井善吉) 원장의 재임 시절, 그가 행한 환자 처우개선에 대해 노력을 인정하여 환자들이 모금하여 세운 것임. 비석의 뒷면에는 그가 행했던 개선사항이 적혀져 있고, 그가 사망한 내용 등이 담겨 있음.
- 기념비가 부산나병원의 운영에 큰 역할을 한 맥켄지 개인에 대한 공적을 치하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설립과 운영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준 ‘대영나병자구료회’를 기념하는 형태로 제작되었다는 특징이 있음. 앞서 서술하였듯이 맥켄지 기념비는 같은 해에 별도로 제작되어 좌천동에 세워짐.

#### 4) 문헌자료

- 『동아일보』
- 조선총독부, 「癩寮養施設ニ關スル件」
-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그리고 사람, 백년의 성찰』, 2017
- 대한나관리협회, 『한국나병사』, 1988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백년』,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6
- 에디스 커, 조지 앤더슨, 양명득 역, 『호주장로교 한국 선교 역사 1889-1941』, 동연출판사, 2017
- 한호기독교선교회 일신기독교병원, 경기대학교박물관, 『호주 매씨가족의 한국소풍이야기』, 2016
- 헬렌 맥킨지 지음, 김영동 옮김, 『호주 선교사 맥켄지의 발자취』, 대한기독교서회, 2006

- 정근식, 「한국에서의 근대적 癩구료의 형성」, 『보건과 사회과학』1-1, 1997
- 정원길, 「미국북장로교회의 경남선교와 경남서북지방 교회설립」, 고신대학교 대학원 신학석사학위논문, 2015

#### 5) 기타

- 신청자는 본 기념비를 부산나병원기념비라고 부르고 있으나, 비석에 새겨진 정식 명칭은 대영나병자구료회기념비임. 명칭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 기념비의 성격을 검토해 보면 부산나병원기념비로 명명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 6)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한센병 환자를 둘러싼 논의는 한국 근대사 및 의료사 서술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 주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시선이 여전히 존재함. 본 기념비가 원래 서있던 나병원의 존립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은 크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음. 현재 병원터는 재개발로 건물들이 들어서 있음.
- 부산나병원은 한국 근대사에서는 최초로 세워진 나환자만을 치료하기 위한 병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기념비와 같은 역사적인 조형물을 보존하는 것을 통해 나병원의 존재와 운영, 그리고 한센병 환자들의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음. 나환자촌 등 일반인들의 생활공간에서 격리되어 생활하던 한센인 환자들의 존재 및 인권 등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아울러 의료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나병원이라는 점에서 의료선교사의 의료선교 방법의 한 형태를 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 더 나아가서 조선총독부가 운영하던 소록도 자혜위원의 운영 실태와 비교연구도 가능함. 근대 의료기관의 한 형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7)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일제 강점기 나환자 연구에 중요한 사료임.
- 우선 부산광역시 좌천동에 산재해 있는 일신여학교, 부산진교회, 일신기독병원 등 근대 기독교, 초기 호주 장로교 선교사 관련 건축물과 연계하여 부산 지역의 의료 선교활동과 그 업적을 보여주는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호주 장로교 선교사들의 의료 활동으로 묶어서 진주 배돈병원 등과 함께 호주 장로교 선교사의 한국 의료사업의 재료로 활용할 수 있음.
- 한국 각지에 있는 나환자 병원이나 나환자촌 등과 연계하여 한센병 환자의 시점에서 내러티브를 만들어낼 수 있음.

##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19.11.28.)>

### 1) 내용 및 특징

- ‘부산나병원기념비’는 부산나병원 설립 21주년이 되는 해인 1930년에 환자들에 의해 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음. 이 비석은 우리나라 최초의 나병 전문치료 기관인 부산나병원의 역사적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기념비임. 서양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부산 나병원은 한국의 한센병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당시 나병원은 단순히 의료시설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이 함께 모여 살며 치료와 회복을 도모하던 환자들의 질병공동체였음. 그래서 나병원기념비는 단순히 병원과 선교사의 역사가 아니라, 환자 공동체의 역사이기도 함. 특히 이 기념비는 대영나환자구료회가 부산 지역의 한센병환자들을 지원한 것을 기념하여 만든 기념비로 알려져 있음.
- 1909년 설립된 미국북장로교에 의해 부산 나병원은 설립되었음. 이후 일제하 1938년 선교사들이 추방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 해방이후 원래 지역이었던 감만동에서 용호동으로 이전을 했다. 이곳으로 이전해가면서도 환자 공동체는 이를 용호동으로 이전하여 일종의 나환자 공동체의 구심점으로 삼았음. 용호동으로 명맥으로 이어간 나병원(상애원으로 이름 전환)은 이후 용호마을이란 정착촌으로 구성이 되어 한국의 대표적인 한센인 질병공동체의 역사를 구성했음. 하지만 최근의 용호동 일대의 재개발로 인해 당시 한센인의 역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에, 이 비석만이 100년이 넘는 부산 한센 역사의 유일한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음.

### 가. 부산나병원과 기념비의 설립과정

- 1900년대에 한센병 환자들은 주로 유랑생활을 하거나 짐자리라는 곳에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했음. 별다른 치료약이 존재하지 않고, 이들을 치료해주는 시설이 없었으며, 사회의 차별이 강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부산나병원은 초기에는 미국 북장로교에서 선교를 시작해서, 어빙 등의 선교사가 활동을 시작했고, 조선의 선교지가 재배치 되면서 호주의 맥켄지 선교사가 이어받아 상애원이란 이름으로 운영했음. 상애원은 요양원 내의 공동생활을 하는 환자를 위한 치료활동 이외에도, 인근 지역에 있는 5개의 나환자촌에 대한 치료지원을 했음(이만열, 2003).
- 특히 이 기념비가 1930년에 세워지는 것은, 맥켄지 선교사가 당시 활발히 일본정부를 상대로 나예방 관련 캠페인을 하고 있었던 시점이기에 이런 활동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됨. 당시 30년대는 나구료의 역사에서 일대 전환점으로 나예방법, 나예방협회 등이 제정되고 조선에도 시행되기 시작함. 1930년에는 일본 황태후가 선교기관의 관련자들과 일본 제국하에서 나구료에 힘쓰고 있는 사람들 총 30명을 초청해 연회를 개최하고, 공적을 치하했음. 또한 부산 상애원에 대해 총독은 20,220엔을 특별기부하고, 1931년에 상해원 원장인 맥켄지에게 필기시험을 거쳐 의사면허증을 발급해주기도 했음(이만열, 2003). 천황비의 특별

후원금으로, 부산 상애원에서는 브라스밴드용 악기, 스포츠 장비 등을 구입했음(Mckenzie, 1931B). 더욱이 환자와 치료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만, 기존의 대영구라회의 기금은 더 이상 확대가 어려워 새로운 기금과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었음(Mckenzie, 1931A). 치료에 대한 수요와, 환자 수용력간의 괴리가 커서 퇴원환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기도 했음. 이런 맥락 속에서 1930년대는 총독부와 천황가의 후원금을 바탕으로 재정적으로 확대되던 시기로 일종의 운영에서의 전환시기였으며, 선교단 측에서는 1930년대의 제도적, 사회조직적 측면의 여러 변화를 준비하던 시기였음.

- 일제시기 맥켄지 목사에 의해 운영된 상애원은, 태평양 전쟁기 해체되었음. 이후 1945년 10월 기독교 단체에서 부산 감만동에 개설한 박애원으로 전환되었다가, 이 시설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동삼동으로 1946년 이전했음. 이듬해 다시 용호동으로 이전. 1948년에는 경남도립 나요양소로 전환되었다가, 1958년에는 상애원으로 다시 명칭 회복. 1961년에는 국립시설로 이관되어 국립용호병원이 되었다가 1975년에 폐지되어 용호농장체제로 전환(정근식, 2006)했음. 현지 부산나병원 기념비는 100여년이 넘는 부산지역 한센병 역사의 유일하게 현존하는 역사적 유물이라고 볼 수 있음.

#### 나. 환자공동체의 기념비

- 한센인들은 질병에 감염이 되면 가족과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치료를 하기 위해 유랑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병원이 있는 곳에서 모여사는 경우들이 있었음. 부산의 나병원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음. 그래서 부산 나병원은 단순히 의사들에 의해 운영이 되는 의료시설이 아니라, 환자들의 생활의 터전이기도 했음. 부산 나병원의 환자수는 1930년대가 되면 562명에 육박하고 치료하고 있는 나환자 수는 약 900여명으로 기록되어 있음. 지속적으로 치료 대상과 환자공동체가 증가하고 있었음(Mckenzie, 1931).
- 이 기념비는 환자들이 의해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당시 나환자들자촌의 거주자들은 스스로 치료활동을 하기도 했으며, 환자들 중 병원건립을 위해 800명 이상이 스스로 기부하기도 했음(이만열, 2003). 또한 당시 맥켄지 선교사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이 비석 뿐 아니라, 석조문과 맥켄지 선교사 자체에 대한 기념비가 같이 제작되었음. 하지만 다른 두 종은 사진과 복제품으로만 남아있고 실물로는 남아있지 않음.
- 맥켄지 선교사는 환자들이 대영구라회 및 선교단체의 활동에 대해“자신들을 직접 만나보지도 못한 생면부지의 먼나라 사람들이,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은 자신들을 위해 도움을 준다는 것에 대해 감사해하고, 그것에 대해 경이롭게 생각했다.”(Mckenzie, 1931A)라고 말했음. 이런 맥락에서 각종 기념비가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측됨.
- 기념비는 환자들의 치료와 회복에 대한 열망, 그리고 이들에게 헌신적으로 치료를 해준 서양 선교사와 단체들에 대한 감사를 담은 환자공동체의 집합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음. 또한 당시 환자공동체의 사진을 보면, 기념비를 중앙에 두고 지속적으로 기념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았는데, 기념비가 환자공동체의 일종의 구심적 역할을 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그림 1 감만동의 사진



그림 2 감만동 환자  
공동체의 사진



그림 3 용호동 이전후의 사진

## 2) 문헌자료

- Mackenzie, J. N., 'Leper work in Fusan', in Korea Mission Field, April 1921, Federal Council of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 Seoul.
- Mackenzie, J.N., 'The Leper Situation in Korea', in Korea Mission Field, May 1931, Federal Council of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 Seoul.
- Mackenzie, J.N., 'Leper work in Fusan', 21 May, 1931, in KMF, 1933, Federal Council of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 Seoul.
- Mackenzie, J.N., 'Leper report', July 1933. 'Fusan Leper Colony', Korea Mission Field, January 1935, Federal Council of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 Seoul.
- Mackenzie, J.N., c.1948, Rev. James Noble Mackenzie, An Autobiography, E. MacKerchar (ed.), The Mission to Lepers, London.
- 정근식. (2006). 질병공동체의 해체와 이주의 네트워크 -두 정착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69(0), 43-81.
- 국립소록도병원(2017), 소록도100년: 한센병 그리고 사람, 백년의 성찰 역사편.
- 이만열(2003), 한국기독교의료사, 아카넷
- Son Sang Pil, *For Marginalized People: Scottish Australian James Noble Mackenzie's Ministry in Korea*, 2017.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 Seoul.

## 3) 기타

### ○ 비석의 이전 경로

- 환자공동체는 맥켄지 선교사가 1938년 일제에 의한 적국인 소개에 의해 추방된 이후에도, 이 비석을 지속적으로 보전 관리했음. 그래서 감만동에서 동삼동으로, 용호동으로 이전될 경우 이 비석을 함께 이전했음. 용호동 개발 이후, 기장의 한센인 교회로 이전이 되었었음. 이후 맥켄지 선교사의 자녀가 세운 부산 일신기독병원으로 이전하여, 현재의 상태로 보전되고 있음.

####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부산나병원기념비’ 다음과 같은 세가지 차원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음.

##### (1) 의료사적 가치

- 부산나병원은 한국의료사에서 특수의료 영역의 시발점임. 한국기독교의료사에서 이만열은 특수의료사업의 영역으로 유아건강사업, 나환자사업, 결핵퇴치사업, 농맹아시설 등을 정리했음(이만열, 2003). 최근 국립소록도병원을 100년을 맞이하여 역사기념사업들이 전개되었고, 소록도의 유물 중 일부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음. 하지만 한센병 의료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서양선교사 등 민간에 의해 시작된 것이 총독부 의료보다 앞선 역사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음. 그래서 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알릴 필요가 있음.

##### (2) 서양 선교사와 제국주의, 해외 원조의 역사

- 어빙선교사는 1894년부터 나환자들을 돌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1911년부터 맥킨지 선교사가 담당했음. 1911년 광주에서는 윌슨 선교사, 대구에서는 플래처 선교사가 의료선교를 시작함. 그래서 한센병 관련 의료선교의 시작은 부산나병원이었으며, 이런 선교사들의 활동이 일제가 국립소록도병원(제생병원)을 건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음. 그래서 제국주의의 역사 속에서 부산나병원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음.
- 특히 부산나병원을 지원한 대영나환자구료회는 지금까지도 활동하는 최초의 국제적 구라조직임. 1873년 영국인 베일리(Bailey)가 인도에서 구라사업을 위해 나선교회(MLT)를 조직한 것이 시작이었음. 1888년까지 인도·버마 등 남아시아 지역에서 19개 시설을 운영하고, 1893년까지 중국 6곳·일본 2곳에서 구라시설을 만들거나 지원하였음. 우리나라에는 부산, 광주, 대구 등 3개의 나병원 설립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였음. 그래서 부산나병원은 제국주의와 선교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기념비는 이와 관련한 유일한 유물이라고 볼 수 있음.

병원 명		설립 연도	설립자	현재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부산나병원	상애원	1909	어빈	사라짐	맥켄지 원장 1910년-1938년
광주나병원	애양원	1911	윌슨	애양원, 애양병원	1927년 여수로 이전
대구나병원	애락원	1913	플레처	애락원, 광개토병원	-

- 또한 이는 한국이 해외 선진국에 의해 원조를 받은 초기의 형태라고도 볼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과거의 수혜국 시절의 역사와 경험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해외 원조에서 공여국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하나의 참조점이 될 수 있음.

### (3) 사회복지와 환자공동체의 역사

- 특수의료 영역은 단순히 의료사적 가치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영역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특한 한센병환자들이 의료적 치료를 넘어 공동체에서 살아가며, 자신들을 도와준 이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방식은, 복지/의료전문가들 중심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질병의 치료와 회복을 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임.
- 나병원 주변에는 치료중인 그리고 치료가 된 이후에도 사회로 복귀가 어려워 이곳에서 모여 사는 병력자들이 많았음. 1930년 당시 규모의 석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환자 공동체가 힘을 모아 기념비를 건립했고, 이후 이 기념비는 환자공동체의 중요한 자산으로 역할했음을 사진을 통해 추측할 수 있음.

###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현재는 병원 내부의 후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음. 한편 현재 부산시에서 좌천동을 역사마을 지정지역으로 선정해, 맥킨지 선교사의 자제들이 세운 일신기독병원 등 주변을 역사탐방로로 지정했음. 기념비를 이전하여, 좀더 사람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같음. 혹은 원래 부지였던 감만동이나, 나환자들의 터전이었던 용호동 일대의 소규모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것 역시 모색해 볼 수 있음.

## 9. 「아리움 사옥 건축 도면 및 관련 자료」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 가. 제안사항

「아리움 사옥 건축 도면 및 관련 자료」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된(18.10.5) 「아리움 사옥 건축 도면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9.12.11./12.23.)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문화재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아리움 사옥 건축 도면 및 관련 자료	21장 (도면 19장, 관련서류 2장)	○ 74 × 53.1cm (도면) ○ 194 × 27cm (관련 서류 / 건축하기통지서) ○ 17.8×25.4cm (관련 서류 / 공사시방서)	1965년	정인훈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가 11-6번 지 아리움

#### (2) 추진경과

- 「아리움 사옥 건축 도면 및 관련 자료」 문화재 등록 신청(18.10.5.)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19.12.11./12.23.)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 ○ ○ 문화재위원 ('19.12.11./ 12.23.)

- 김중업의 설계로 지어진 구 서산부인과 의원은 현대 건축사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물로 평가받고 있음. 따라서 해당 건물의 신축 당시 도면은 건축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다만, 신청된 도면은 청사진 형태이므로 진정성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으나, 현대건축사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구 서산부인과 의원의 보존을 위해 반드시 보존되어야 할 문화유산임. 따라서 건물과 함께 등록하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필요 있음.

○ ○ ○ ○ 문화재위원 ('19.12.11./ 12.23.)

- 아리움 사옥('구 서산부인과 의원')의 설계도면은 해당 건물의 건축 개념 및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지만 원 설계도면이 아니므로 국가등록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미흡함. 다만 기록물로서의 가치는 있으므로 현 아리움 사옥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과 일괄해서 국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것을 제안함.

○ ○ ○ ○ 문화재전문위원 ('19.12.11./ 12.23.)

- 해당 건축 도면 및 관련 서류는 1967년 완공된 오늘날 아리움 사옥, 즉 구 서산부인과 건물의 것으로, 김중업건축연구소에서 작성한 것임. 구 서산부인과 건물은 건축가 김중업의 대표적 작품으로 근현대 건축사적 측면에서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음. 이번에 신청된 설계도면 및 관련 서류는 해당 건물의 진정성 확보 등을 위해 중요한 자료임. 다만 원도가 아닌 청사진본이므로 건물과 일괄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원본이 아닌 복사본으로 개별적 가치보다는 건물과 함께 일괄 등록 검토 필요

○ 출석 11명 / 부결 11명

## <붙임>

# 「아리움 사옥 건축 도면 및 관련 서류」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아리움 사옥 건축 도면 및 관련 서류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가 11-6번지 아리움
3. 소유자 : 정인훈
4. 조사자 의견

## <○○○ 문화재위원(‘19.12.11./12.23.)>

### 1) 현상

- 제작 당시의 도면을 청사진으로 제작한 도면임. 제작 당시에는 도면의 표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신청된 도면에는 도면의 표지는 없음.
- 도면은 대지의 위치와 대지의 면적을 계산하는 구적도와 각층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를 비롯하여 구조도, 정화조, 난방 및 위생도, 급배수배관상세도로 구성되었음.
- 일반적으로 건축도면에서 작성하는 창호도와 부분상세도가 없음.
-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시에는 도면과 별도로 시방서가 제출되는데, 본 도면에는 약시방서의 형태로 도면에 명기되어 있는 점이 특이한 부분임.

### 2) 내용 및 특징

- 일반적으로 건축도면에서는 설계한 건물의 정확한 규모를 시공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축척을 표기하고, 각 부분별 크기를 치수 보조선을 이용하여 표기함.
- 그러나 서병준산부인과 병원 신축공사 설계도에서는 격자 보조선을 사용하여 도면이 작성된 점이 특징임. 이는 부정형의 곡선을 사용하는 김중업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임.
- 부정형의 곡선을 사용하는 김중업의 건축은 일반적인 도면의 치수체계로는 정확한 크기를 표기할 수 없기 때문임. 그러나 평면과 달리 입면과 단면도에서는 격자 보조선을 사용하지 않아 시공을 위한 도면으로서는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음. 따라서 금번에 신청된 도면만으로는 시공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정확한 시공을 위해서는 모형 등 보조적인 수단이 추가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 3) 기타

- 신청 도면은 현 건물 소유주가 기존 소유주로부터 건물 매수시 함께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료임. 건축도면이 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로는 구전라남도 도청 회의실 신축설계도면이 1997년 7월 3일 광주광역시의 유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된 바 있음.
- 본 신축도면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될 경우 명칭은 ‘서병준산부인과병원 신축 공사 설계도’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김중업의 설계로 지어진 구서산부인과의원(서병준산부인과병원)은 한국 현대 건축사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음. 따라서 한국현대건축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건물의 신축 당시 도면은 건축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다만, 현재 신청된 도면이 트레이싱지로 제작된 원도가 아닌 청사진 형태의 사본이어서 도면의 진정성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 당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청사진 도면은 현대 건축사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구서산부인과의원의 보존을 위해 반드시 보존되어야 할 문화유산임. 따라서 본 신축도면은 건축물로 별도로 관리될 것이 아니라 구서산부인과의원과 함께 등록문화재로 등록되는 것이 건축물의 진정성과 신축도면의 진정성이 갖는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5) 보존정비 및 착안사항

- 구서산부인과의원은 예전에 등록문화재로서 등록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바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최종적으로 등록되지 못한 바 있다. 따라서 금번 구서산부인과 의원의 신축 당시 도면이 등록문화재가 신청된 것을 계기로 구서산부인과의원 건물과 신축당시 도면을 함께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 문화재전문위원(‘19.12.11./12.23.)>

### 1) 현상

- 설계도면 19장은 복사본이며 시방서와 건축허가통지서는 원본임.

### 2) 내용 및 특징

- 현재 아리움 사옥으로 사용 중인 구 서산부인과 의원 건물은 김중업의 대표적 건축물임. 유기적 형태의 외형과 내부 구조는 산부인과 건물로서의 상징성을 띠고 있으며 노출 콘크리트 구조는 1960년대의 시대성을 지닌 건축임. 산부인과 의원을 폐쇄한 이후에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면서 내부 구조가 상당히 변경되었음.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자료로 설계도면 27점이 남아있음. 27점 중에서 19점은 설계도면의 복사본으로 현 건물 소유주가 소장하고 있으며, 8점은 김중업건축박물관에서 디지털 파일로 소장하고 있음. 27점의 도면은 김중업이 서산부인과 의원의 건축 개념 및 구조를 확인할 수 있으며 1960년대 우리나라 건축물 설계도면 제작 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지만, 원 설계도면이 아니므로 국가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미흡함.

### 3) 문헌자료

- 수류산방 엮음, 『근대를 뚫고 피어난 꽃: 김중업 <서산부인과 의원>』, 김중업건축박물관 아카이브 총서, 2018.

###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조사대상이었던 설계도면은 복사본으로 판단되어 국가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됨. 다만, 기록물로서의 가치는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원 설계도면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 복사본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요컨대, 조사대상인 설계도면 자체는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미흡하지만, 현 아리움 사옥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과 일괄해서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것을 제안함.

## <○○○ 문화재전문위원('19.12.11./12.23.)>

### 1) 조성연대

- 설계도 : 1965년(대한건축사협회 등록필 1966년)
- 건축허가통지서 및 공사시방서 : 1966년

### 2) 현상

- 대체로 보관 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며, 일부 도면 및 문서는 보존처리가 필요한 실정임.

### 3) 내용 및 특징

- 동 건축 도면 및 관련 서류는 1967년 완공된 오늘날 아리움 사옥 즉, '구 서산부인과' 건물의 것으로 '김중업건축연구소'에서 작성한 것임.
- 설계도 및 관련서류 일체는 1995년 9월 현재의 소유주(정인훈)가 동 건물을 매입하면서 당시 서산부인과 원장이었던 서병준씨로부터 인계 받은 것으로, 건축도면 19장을 비롯하여 건축허가통지서 1장, 공사시방서 1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설계도의 경우, 우측 하단부에는 ‘김중업건축연구소’의 날인과 함께 ‘651118’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965년 11월 18일에 설계 작업이 완료되었던 것으로 추정됨.
- 또한, 대한건축사협회 등록필 인장에 따르면, 그 이듬해인 1966년 1월에 최종적으로 접수(신고)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공사 착공은 건축허가통지서에 기입된 1966년 1월 27일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다만, 건축허가통지서 및 공사시방서는 원본으로 보이나, 건축도면은 직접 드로잉한 원도가 아닌 청사진본으로 확인되었음.
- 현재까지, 설계 원도의 소재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상태이며, 관련기관인 김중업건축박물관(경기도 안양시 소재)에서도 청사진본(또는 복사본)의 이미지만을 소장하고 있는 상태임.
- 김중업건축박물관 소장 이미지 파일과 비교할 때, 서로 동일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또한, 현재의 소유주인 정인훈씨가 소장한 설계도 청사진본이 모두 19장인 것에 반해, 김중업박물관의 이미지 파일은 27장으로 8장의 차이가 있음.
- 김중업건축박물관 소장 설계도 이미지 파일은 2014년 박물관 개관에 맞춰 김중업의 장남인 김희조씨가 기증한 것으로, 김중업 사후인 1989년에 여러 사정으로 김중업건축연구소가 폐업을 하게 되면서 이미지 작업(스캔)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번호	도면명	소장 현황		번호	도면명	소장 현황	
		아리움	김중업 박물관			아리움	김중업 박물관
1	안내도,구적도,배치도	○	○	15	3층복도	○	○
2	지하실 평면도	○	○	16	4층복도	○	○
3	1층평면도	○	○	17	1층바닥 슬라브 배근도	○	○
4	2층평면도	○	○	18	옥상층 바닥 슬라브 배근도	×	○
5	3층평면도	○	○	19	슬라브,벽,기초 배근도	○	○
6	4층평면도	○	○	20	정화조	○	○
7	옥상평면도	○	○	21	지하실 난방 평면도 지하실 위생 평면도	×	○
8	동측입면도,북측입면도	○	○	22	1층 난방 평면도 1층 위생 평면도	×	○
9	남측입면도,서측입면도	○	○	23	2층 난방 평면도 2층 위생 평면도	×	○
10	주단면상세도 변소 부분상세도	○	○	24	3층 난방 평면도 3층 위생 평면도	×	○

번호	도면명	소장 현황		번호	도면명	소장 현황	
		아리움	김중업 박물관			아리움	김중업 박물관
11	기초복도	○	○	25	4층 난방 평면도 4층 위생 평면도	×	○
12	지하층복도	○	○	26	옥상 난방, 위생 평면도	×	○
13	1층복도	○	○	27	급배수 배관 상세도	×	○
14	2층복도	○	○	-	-	-	-

<표> 소유자(아리움) 및 김중업건축박물관 소장 '구 서산부인관' 관련 도면 현황

####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1967년 완공된 '구 서산부인관' 건물은 건축가 김중업의 대표적인 작품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으며, 외관은 신축 당시의 모습을 비교적 온전히 보존되어 있어 근현대건축사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내부는 본래의 산부인과 병원에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함에 따라 원모습이 대부분 사라진 상황이나, 신축 당시의 설계도면이 남아 있어 당시의 모습을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음.
- 따라서, 이 번 등록 신청한 설계도면 및 관련서류는 '구 서산부인관' 건물의 진정성 확보와 건축적 가치 제고 등을 위해 중요한 자료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임.
- 다만, 동 건축 도면의 경우 설계 당시의 원도가 아닌 청사진본이므로 그 자체로서의 문화재적 가치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건물과 함께 일괄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보 고 사 항



## 10.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제1차 소위원회 결과보고

사적 제1287호 「인천 답동성당」 주변현상 변경(변경허가)

### 가. 보고사항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제3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제1차 소위원회 처리안건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나. 소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 2019. 12. 17.(화) 11:00 / 국립고궁박물관
- 참석 위원 : ○○○, ○○○, ○○○, ○○○, ○○○
- 회의 안건 : 사적 제1287호 「인천 답동성당」 주변현상 변경(변경허가)
- 회의 결과 : 보류

### 다. 보고내용

- 추진경과

- 2013.4.4 '13년 제2차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심의  
→ 조건부가결 : 자문단을 구성 사업을 지도하도록 허가
- 2018.2.20 '18년 제2차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심의  
→ 부결 :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여부와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한 계획 필요
- 2018.3.23 '18년 제3차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심의  
→ 보류 :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검토
- 2018.7.25. '18년 제2차 근대문화재분과 소위원회 심의  
→ 보류 : 문화재의 안정성 확보와 경관 저해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 보완 필요

- 주요내용

내 용	검토의견
(1) 신 청 인 : 인천 중구청장, (재)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2) 대상문화재명 : 인천 답동성당 (사적 제287호, ' 81.09.25 지정) ○ 소 재 지 : 인천시 중구 우현로 50번길 2 (3) 신청내용 ○ 대상위치 [당초] 인천 중구 답동 3-3번지 외 14필지 (문화재보호구역, 1구역) [변경] 인천 중구 답동 3-4번지 외 10필지 (문화재보호구역, 1구역) 인천 중구 답동 3-3(1구역) (1구역)	<b>*보류</b> ○ 보행자 주 진입로 계단 폭 협소 및 규모가 큰 옹벽으로인한 공간단절이 발생하므로 이에대한 보완 대책과 보행약자를 위한 리프트 위치 조정 필요

내 용	검토의견
<p><b>[당초허가]</b> - 2013.4.8 허가            &lt;건축공사&gt; (지하주차장동-다목적실 포함)            - 대지면적 : 15,670.20㎡ / 건물규모 : 건물1동(지하3층, 지상3층)            - 건축면적 : 1,883.57㎡(당초 1,849.64㎡ / 금회 증축 면적 33.93㎡)            - 연 면 적 : 18,019.69㎡(당초 5,925.4㎡ / 금회 증축 연면적 12,094.29㎡)            - 세부내용 : 공원(녹지, 휴게공간)조성 및 주변정비, 전시홍보관, 다목적실 및 주차시설 설치(254면)</p> <p>&lt;기존 건물 철거&gt;            - 가톨릭회관(지하1층, 지상5층, 1973년 건립) / 본당 사무실(지상2층, 1989년 건립)            - 사제관/수녀관(지하1층, 지상4층, 1954년 재건)            - 박물관유치원(지하1층, 지상4층, 1962년 건립)            - 주교관(지하1층, 지상3층, 1989년 건립)</p> <p><b>[변경허가 신청]</b></p> <p>&lt;건축공사&gt;            ○ 공원 설치동(화장실 남·여, 노약자용 샤프트 2개)            - 건축주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 규 모 : 지상 1층            - 건축면적 및 연면적 : 28,85㎡            ○ 지하 주차장동            - 건축주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 높 이 : 5.1m[답동성당(마당) 지표면 기준]            - 규 모 : 지하4층, 지상1층 (공영주차장 조성, 212면)            - 건축면적 47.25㎡, 연면적 8,437.92㎡            ○ 종교시설(다목적실동)            - 건축주 :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 유지재단            - 높 이 : 5.7m[답동성당(마당) 지표면 기준]            -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 건축면적 : 3,415.82㎡(당초 3,216.23㎡ / 금회 증축 면적 199.59㎡)            - 연면적 : 11,237.12㎡(당초 10,447.42㎡ / 금회 증축 연면적 789.7㎡)</p> <p>&lt;주차장 지상부 조정 등&gt; (사업 면적 : 7,585.58㎡)            - 조경수 식재 : 1식            - 조경면적 : 167.24㎡            - 지상부 램프시설 : L=73.6m            - 야외 테크 : 937.18㎡, 잔디광장 : 1,087.93㎡</p> <p>&lt;건축물 철거&gt; 1동            - 가톨릭회관 (지하1층, 지상5층, 1973년 건립)            ※ 2018.01.20 기 철거 완료</p>	<p>○ 문화재 안전을 위한 계측기 설치 및 우배수 자료 미흡, 지하 주차장 상부토사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밀림 현상) 검토 필요</p> <p>○ 계획안에 제시된 동선은 복잡하므로 이에 대한 정리 필요</p>

**라. 의결사항**

- 접수
- 출석 11명 / 접수 11명

## 11. 「국가등록문화재 영문 명칭 표기(안)」 보고

### 가. 보고사항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기준 규칙」(문화재청 예규 제213호, 2019. 11. 15.전부개정)의 문화재 유형별 영문 표기 등의 원칙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의 영문 명칭(안)을 제정 및 보완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나. 보고사유

- 관련 규칙 전부개정에 따라, 문화재 영문 표기의 일관성 등을 기하고자 국가등록문화재의 개별 영문 명칭(안)을 제정 및 보완하고 보고하는 사항임.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기준 규칙」(문화재청 예규 제213호, 2019. 11. 15.전부개정) 제35조(문화재위원회 검토와 자문) ①문화재위원회 각 분과별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 명칭을 부여할 때 영문 명칭도 함께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 보고내용

(1) 보 고 자 : 문화재청장

(2) 주요내용 : 국가등록문화재 문화재 영문 명칭 807건

- 기존('14. 7월 이전) 문화재 영문명칭 변경 : 등록 제23호 「구 철원 제일교회」 등 34건 (붙임1)

#### <주요 변경사항>

#### 1. 전치사 표기 방법 변경

[예시] 비석류 : (기존) Stele for → (변경) Stele of

#### 2. 단어 표기 방법 변경

[예시] 고택 : (기존) Historic House → (변경) [지명, 가문 + 고택]인 경우 Historic House, [건물명, 인명 + 고택]인 경우 House

#### 3. 국문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 등

- 신규('14.8.~'19.7.) 문화재 영문명칭 : 등록 제595호 「임실 회문망루」 등 204건 (붙임2)

### 라. 의결사항

- 접수
- 출석 11명 / 접수 11명



<붙임1> 기존(2014년 7월 이전) 문화재 영문명칭 변경사항

연번	등록번호	2019년 국문 명칭	2014년 국문 명칭	2019년 영문 명칭	2014년 영문 명칭	변경사유
1	제23호	구 철원 제일교회	철원 감리교회	Site of Cheorwon First Methodist Church	Cheorwon Methodist Church	국문 명칭 수정에 따른 영문 명칭 수정
2	제28호	진안성당 어은공소	진안성당 어은공소	Eoeun Chapel of Jinan Catholic Church	Eoeun Secondary Station of Jinan Catholic Church	"공소" - 번역어 수정
3	제41호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Government Building of the Provisional Capital, Busan	Provisional Government Building, Busan	번역어 수정
4	제42호	구 강경성결교회 예배당	강경 북옥감리교회	Former Ganggyeong Evangelical Holiness Church	Bugok Methodist Church, Ganggyeong	국문 명칭 수정에 따른 영문 명칭 수정
5	제54호	춘천 죽림동 주교좌성당	춘천 죽림동 주교좌성당	Jungnimdong Cathedral, Chuncheon	Jungnim-dong Cathedral, Chuncheon	교회나 성당 이름에 쓰인 지명의 로마자 표기 수정
6	제108호	구 홍천군청	홍천읍사무소	Former Hongcheon-gun Office	Hongcheon-eup Office	국문 명칭 수정에 따른 영문 명칭 수정
7	제140호	원주 흥업성당 대안리공소	원주 흥업성당 대안리공소	Daealli Chapel of Heungeop Catholic Church, Wonju	Daean-ri Secondary Station of Heungeop Catholic Church, Wonju	"공소" - 번역어 수정
8	제141호	삼척 성내동성당	삼척 성내동성당	Seongnaedong Catholic Church, Samcheok	Seongnae-dong Catholic Church, Samcheok	교회나 성당 이름에 쓰인 지명의 로마자 표기 수정
9	제160호	철원 수도국 터 급수탑	철원 수도국 터 급수탑	Water Towers at the Site of Cheorwon Waterworks Bureau	Water Tower at the Site of Cheorwon Waterworks Bureau	단복수 수정
10	제161호	춘천 소양로성당	춘천 소양로성당	Soyangno Catholic Church, Chuncheon	Soyang-ro Catholic Church, Chuncheon	교회나 성당 이름에 쓰인 지명의 로마자 표기 수정
11	제189호	장수성당 수분공소	장수성당 수분공소	Subun Chapel of Jangsu Catholic Church	Subun Secondary Station of Jangsu Catholic Church	"공소" - 번역어 수정
12	제190호	장수 호룡보루	장수 호룡보루	Horyongboru Watchtower, Jangsu	Horyong Fort, Jangsu	실제 기능에 따라 번역어 수정
13	제230호	서울 혜화동성당	서울 혜화동성당	Hyehwa Catholic Church, Seoul	Hyehwa-dong Catholic Church, Seoul	혜화동 성당 측에서 사용하는 영문 명칭에 따라 수정
14	제277호	거제 학동 진석중 가옥	거제 학동 진석중 가옥	Jin Seok-jung's House, Geoje	Jin Seok-jung's House in Hak-dong, Geoje	"학동"의 로마자 표기 생략

연번	등록번호	2019년 국문 명칭	2014년 국문 명칭	2019년 영문 명칭	2014년 영문 명칭	변경사유
15	제279호	완도 청산도 상서마을 옛 담장	청산도 상서마을 옛 담장	Old Walls of Sangseo Village on Cheongsando Island	Old Walls of Sangseo Village on Cheongsando Island, Wando	국문 명칭 수정에 따른 영문 명칭 수정
16	제314호	제주 모슬봉 일제 군사시설	제주 모슬봉 일제 군사시설	Moseulbong Military Facility of Imperial Japan, Jeju	Military Facility of Imperial Japan on Moseulbong Peak, Jeju	고유한 명칭으로 표기
17	제315호	제주 이교동 일제 군사시설	제주 이교동 일제 군사시설	Igyodong Military Facility of Imperial Japan, Jeju	Military Facility of Imperial Japan in Igyo-dong, Jeju	고유한 명칭으로 표기
18	제321호	서산 동문동성당	서산 동문동성당	Dongmundong Catholic Church, Seosan	Dongmun-dong Catholic Church, Seosan	교회나 성당 이름에 쓰인 지명의 로마자 표기 수정
19	제338호	서산 동문동성당 상홍리공소	서산 동문동성당 상홍리공소	Sanghongni Chapel of Dongmundong Catholic Church, Seosan	Sanghong-ri Secondary Station of Dongmun-dong Catholic Church, Seosan	"공소" - 번역어 수정
20	제341호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	Jeong Byeong-uk's House (Former Location of Yun Dong-ju's Manuscripts)	Jeong Byeong-uk's House in Which Yun Dong-ju's Manuscript Collection is Preserved	번역 수정
21	제355호	청주 동부배수지 제수변실	청주 동부배수지 제수변실	Water Control Facility at the East Reservoir, Cheongju	Water Quality Control Facility at the East Reservoir, Cheongju	"제수변실" - 번역어 수정
22	제372호	구 일본제18은행 군산지점	구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	Former Japanese 18th Bank, Gunsan Branch	Former Japan the 18th Bank, Gunsan Branch	일본 은행 명칭 표기 방법 수정
23	제376호	부산 구 성지곡수원지	부산 구 성지곡수원지	Seongjigok Valley Reservoir, Busan	Former Seongjigok Valley Reservoir, Busan	"구" 생략. 현재도 reservoir의 형태임.
24	제395-1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태극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태극기	Taegeukgi of the Provis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Taegeukgi of the Provisional Korean National Council	"임시의정원" - 번역어 수정
25	제395-2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태극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태극기	Taegeukgi of the Provis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Taegeukgi of the Provisional Korean National Council	"임시의정원" - 번역어 수정
26	제402호	서울 구 신아일보 별관	서울 구 신아일보사 별관	Annex Building of Former Sina ilbo (New Asia Daily) in Seoul	Annex Building of Former Sinailbo (New Asia Daily) in Seoul	"신아일보" - 로마자 표기 수정
27	제457호	강릉 임당동성당	강릉 임당동성당	Imdangdong Catholic Church, Gangneung	Imdang-dong Catholic Church, Gangneung	교회나 성당 이름에 쓰인 지명의 로마자 표기 수정

연번	등록번호	2019년 국문 명칭	2014년 국문 명칭	2019년 영문 명칭	2014년 영문 명칭	변경사유
28	제458호	진관사 소장 태극기 및 독립신문류	진관사 소장 태극기 및 독립신문류	Taegeukgi and Newspapers in Jingwansa Temple	Taegeukgi, Newspaper, and Other Relics at Jingwansa Temple	번역 수정
29	제468호	명신여학교 태극기·현판·완문	명신여학교 태극기·현판·완문	Taegeukgi, Hanging Board, and Official Document of Myeongsin School for Girls	Taegeukgi, Signboard, and Official Document of Myeongsin School for Girls	"현판" - 번역어 수정
30	제469호	고흥 순천교도소 구 소록도지소	고흥 순천교도소 구 소록도지소 여사동	Former Suncheon Correctional Institution, Sorokdo Island Branch, Goheung	Female Dormitory of Former Suncheon Correctional Institution, Sorokdo Island Branch, Goheung	국문 명칭 수정에 따른 영문 명칭 수정
31	제474호	광복군가집 제1집	광복군가집 제1집	Gwangbokgungajip (Collection of Marching Songs of the Liberation Army), Volume 1	Collection of Marching Songs of the Liberation Army, Vol. 1	서명의 로마자 표기 추가
32	제475호	애국창가 악보집	애국창가 악보집	Aeguk changga (Collection of Patriotic Songs)	Collection of Patriotic Songs	서명의 로마자 표기 추가
33	제478호	찬양가	찬양가	Chanyangga (Hymnal)	Hymnal	서명의 로마자 표기 추가
34	제542호	구 김포성당	구 김포성당	Former Main Chapel of Gimpo Catholic Church	Former Gimpo Catholic Church	번역 수정. 김포성당은 그대로 있고 신관 건물이 생긴 것.

<붙임2> 신규(2014년 8월~2019년 7월) 문화재 영문명칭

연번	등록번호	국문명칭	영문명칭
1	제595호	임실 회문망루	Hoemun Watchtower, Imsil
2	제596호	임실 운암망루	Unam Watchtower, Imsil
3	제597호	구 수원문화원	Former Suwon Culture Hall
4	제598호	구 수원시청사	Former Suwon City Hall
5	제599호	고양 행주수위관측소	Water Level Observation Post in Haengju, Goyang
6	제600호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Former Joseon Provisions Corporation, Gunsan Branch
7	제601호	강경 갑문	Water Lock, Ganggyeong
8	제602호	강경 채운산배수지	Chaeunsan Reservoir, Ganggyeong
9	제603호	조선지질도	Joseon jijildo (Geologic Map of Joseon)
10	제604호	대한지질도	Daehan jijildo (Geologic Map of Korea)
11	제605호	만화 코주부삼국지	Kojubu sangukji (Kojubu's Three Kingdoms)
12	제606호	유길준 단령	Ceremonial Robes Worn by Yu Gil-jun
13	제607호	서재필 진료가운	Hospital Gown Worn By Soh Jaipil
14	제608호	여운형 혈의	Blooded Clothes Worn by Yeo Un-hyeong
15	제609호	유림 양복	Western-style Suit Worn by Yu Rim
16	제610호	석주명 유품	Relics Related to Seok Ju-myeong
17	제611호	최현배 의복	Clothes Worn by Choe Hyeon-bae
18	제612호	프란체스카 여사 의복과 소품	Clothes and Items Used By First Lady Franziska Donner
19	제613호	양단 아리랑 드레스	Satin Brocade Arirang Dress
20	제614호	저항라 적삼	Loosely Woven Ramie Unlined Summer Jacket
21	제615호	색복 장려 깃발	Colored Clothing Promotion Flag
22	제616호	군용 담요 코트	Military Blanket Coat
23	제617호	양산 통도사 자장암 마애아미타여래삼존상	Rock-carved Amitabha Buddha Triad at Jajangam Hermitage of Tongdosa Temple, Yangsan
24	제618호	청도 신문사 영산보탑 및 탑비	Pagoda and Stele of Sindunsa Temple, Cheongdo
25	제619호	김제 금산사 석고미륵여래입상	Plaster Standing Maitreya Buddha of Geumsansa Temple, Gimje
26	제620호	공주 신원사 소림원 석고미륵여래입상	Plaster Standing Maitreya Buddha of Sorimwon Hermitage in Sinwonsa Temple, Gongju
27	제621호	제주 정광사 소조미륵여래입상	Clay Standing Maitreya Buddha of Jeonggwangsa Temple, Jeju
28	제622호	통영 용화사 괘불도	Hanging Painting of Yonghwasa Temple, Tongyeong
29	제623호	사천 다솔사 괘불도	Hanging Painting of Dasolsa Temple, Sacheon
30	제624호	진주 의곡사 괘불도	Hanging Painting of Uigoksa Temple, Jinju
31	제625호	완주 화암사 괘불도	Hanging Painting of Hwaamsa Temple, Wanju
32	제626호	진안 천황사 괘불도	Hanging Painting of Cheonhwangsa Temple, Jinan
33	제627호	예산 향천사 괘불도 및 오여래·사보살·팔금강도	Hanging Painting of Hyangcheonsa Temple, Yesan (Five Buddhas, Four Bodhisattvas, Eight Vajras)

연번	등록번호	국문명칭	영문명칭
34	제628호	대구 동화사 괘불도	Hanging Painting of Donghwas Temple, Daegu
35	제629호	백용성 역 조선글화엄경	Avatamsaka Sutra (The Flower Garland Sutra), Korean Translation by Baek Yong-seong
36	제630호	백용성 역 선한역 대방광불화엄경 원고	Manuscript of Avatamsaka Sutra (The Flower Garland Sutra), Korean Translation by Baek Yong-seong and Original Classical Chinese
37	제631호	백용성 역 신역대장경(금강마하반야바라 밀경)	Vajracchedika prajnaparamita Sutra (The Diamond Sutra), Korean Translation by Baek Yong-seong
38	제632호	백용성 역 조선어능엄경	Shurangama Sutra (The Sutra of the Heroic One), Korean Translation by Baek Yong-seong
39	제633호	순천 송광사 송광사 사료집성	Collection of Historical Materials on Songgwangsa Temple, Suncheon
40	제634호	조계산 송광사사고	Historical Archive of Songgwangsa Temple in Jogyesan Mountain
41	제635호	김룡사 사료수집	Collection of Historical Materials on Gimnyongsa Temple
42	제636호	대본산 김룡사 본말사 연혁 원고	Manuscript of the History of Gimnyongsa Temple
43	제637호	백용성 선사 만일선회 방함록	Roster of the Participants of Manil Seonhoe Assembly
44	제638호	채색필사본 대동여지도	Hand-colored Copy of Daedong yeojido (Map of the Great East)
45	제639호	정암철교	Jeongam Railroad Bridge
46	제640호	목포 문태고등학교 본관	Main Building of Muntae High School, Mokpo
47	제641호	부산대학교 구 본관	Former Main Building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48	제642호	부산대학교 무지개문 및 구 수위실	Rainbow Gate and Former Security Office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49	제643호	대전 대흥동성당	Daeheungdong Catholic Church, Daejeon
50	제644호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박물관	Education Museum of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51	제645호	한암스님 가사	Monk's Outer Vestment Worn by Monk Hanam
52	제646호	백용성 역 한글본 신역대장경(금강경강의)	Vajracchedika prajnaparamita Sutra (The Diamond Sutra), Korean Translation by Baek Yong-seong
53	제647호	부산 구 백제병원	Former Baekje Hospital, Busan
54	제648호	강릉 선교장 소장 태극기	Taegeukgi at Seongyojang House, Gangneung
55	제649호	고양 대성암 아미타삼존괘불도	Hanging Painting of Daeseongam Hermitage, Goyang (Amitabha Buddha Triad)
56	제650호	강경성당	Ganggyeong Catholic Church
57	제651호	알렌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	Medal of Honor Granted to Horace N. Allen for His Patriotic Service
58	제652호	대동단결 선언문서	Korean Unity Proclamation Document
59	제653호	대한국야소교회 대표자 호소문	Korean Christian Church Representatives' Letter of Appeal
60	제654호	안동교회 예배당	Chapel of Andong Presbyterian Church
61	제655호	서울 성북동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구 본원	Former Main Building of the Clerical Congregation of the Blessed Korean Martyrs in Seongbuk-dong, Seoul

연번	등록번호	국문명칭	영문명칭
62	제656호	고종황제 하사 족자	Scroll Bestowed by Emperor Gojong to Oliver R. Avison
63	제657호	이천 수광리 오름가마	Climbing Kiln in Sugwang-ri, Icheon
64	제658호	간호교과서	Ganho gyogwaseo (Nursing Textbook)
65	제659호	고흥 소록도 병사성당	Byeongsa Catholic Church on Sorokdo Island, Goheung
66	제660호	고흥 소록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사택	Marianne and Margaret Residence on Sorokdo Island, Goheung
67	제661호	의병장 유인석 심의	Clothing Worn by Righteous Army Commander Yu In-seok
68	제662호	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	Two-story Korean-style Commercial Building at Namdaemun-ro, Seoul
69	제663호	고흥 소록도 한센인 생활 유품	Daily Items of Hansen's Disease Patients on Sorokdo Island
70	제664-1호	3·1 독립선언서	Kore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71	제664-2호	3·1 독립선언서	Kore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72	제665호	발해태조건국지·명림답부전	Balhae Taejo geongukji (King Taejo's Foundation of Balhae) and Myeongnimdapbu jeon (Biography of Goguryeo General Myeongnimdapbu)
73	제666호	대한민국 최초 운용 전투기(F-51D 무스탕)	The Republic of Korea's First Combat Plane (F-51D Mustang)
74	제667호	국민성금 헌납기(T-6 건국기)	Aircraft Donated by Citizen Donation (T-6 Texan)
75	제668호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Yesu bogeum Nuga jeonsoe (Gospel of St. Luke in the New Testament, Ross Version)
76	제669호	예수성교전서	Yesu seonggyo jeonsoe (The New Testament, Ross Version)
77	제670호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	Sinyak Magajeon bogeumseo eonhae (Korean Translation of the Gospel of St. Mark in the New Testament)
78	제671호	구약전서	Guyak jeonsoe (Old Testament)
79	제672호	서울 배화학원 캐롤라이나관	Carolina Hall of Paiwha School, Seoul
80	제673호	서울 배화여자고등학교 캠벨기념관	Campbell Memorial Hall of Paiwha Girls' High School, Seoul
81	제674호	서울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	The First Church of the Marine Corps Headquarters
82	제675호	찬송가(UNION HYMNAL)	Chansongga (Union Hymnal)
83	제676호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모자이크 제단화	Mosaic Altarpiece of the Seoul Cathedral of the Anglican Church
84	제677호	군산 둔율동 성당	Dunyuldong Catholic Church, Gunsan
85	제678호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	Gwanhaegong House of the Changnyeong Jo Clan, Yeonggwang
86	제679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토마스홀	Thomas Hall of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87	제680호	제주 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육군 98병원 병동)	Practice Room of Daejeong Girls' High School (Former 98th Military Hospital Ward), Jeju
88	제681-1호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	Brady Hall of the Roman Catholic Archdiocese of Gwangju

연번	등록번호	국문명칭	영문명칭
89	제681-2호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본관	Main Building of the Roman Catholic Archdiocese of Gwangju
90	제681-3호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헨리관	Henry Hall of the Roman Catholic Archdiocese of Gwangju
91	제681-4호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식당동	Cafeteria of the Roman Catholic Archdiocese of Gwangju
92	제682호	천주교 진산성지성당	Jinsan Catholic Shrine
93	제683호	구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	Former Joseon Industrial Bank, Chungju Branch
94	제684호	고령 관음사 칠성도	Buddhist Painting of Gwaneumsa Temple, Goryeong (Seven Stars)
95	제685호	천로역정(합질)	Cheollo yeokjeong (The Pilgrim's Progress)
96	제686호	조선요리제법	Joseon yori jebeop (Cuisine of Joseon)
97	제687호	서울 엘버트 테일러 가옥(딜쿠샤)	Dilkusha House, Seoul
98	제688호	경기도청사 구관	Former Gyeonggi-do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99	제689호	경기도지사 구 관사	Former Official Residence of Governor of Gyeonggi-do Province
100	제690호	김 골롬바와 아녜스 자매(석고상)	Plaster Statues of the Kim Sisters, Columba and Agnes
101	제691-1호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 오세창 묘소	Mangu Cemetary for Independence Patriots - Tomb of O Se-chang
102	제691-2호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 문일평 묘소	Mangu Cemetary for Independence Patriots - Tomb of Mun Il-pyeong
103	제691-3호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 방정환 묘소	Mangu Cemetary for Independence Patriots - Tomb of Bang Jeong-hwan
104	제691-4호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 오기만 묘소	Mangu Cemetary for Independence Patriots - Tomb of O Gi-man
105	제691-5호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 서광조 묘소	Mangu Cemetary for Independence Patriots - Tomb of Seo Gwang-jo
106	제691-6호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 서동일 묘소	Mangu Cemetary for Independence Patriots - Tomb of Seo Dong-il
107	제691-7호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 오재영 묘소	Mangu Cemetary for Independence Patriots - Tomb of O Jae-yeong
108	제691-8호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 유상규묘소	Mangu Cemetary for Independence Patriots - Tomb of Yu Sang-gyu
109	제692호	당진 소난지도 의병총	Tomb of Righteous Army on Sonanjido Island, Dangjin
110	제693호	영광 원불교 신흥교당 대각전	Daegakjeon Hall of Sinheung Temple of Won-Buddhism, Yeonggwang
111	제694호	광주 관덕정	Gwandeokjeong Archery Center, Gwangju
112	제695호	통영 소반장 공방	Sobanjang (Tray-table Making) Workshop, Tongyeong
113	제696호	목포 정광정혜원	Jeonggwangjeonghyewon Temple
114	제697호	수원 구 소화초등학교	Former Sohwa Elementary School, Suwon
115	제698호	수원 구 부국원	Former Bugukwon Farming Supplies Company, Suwon
116	제699호	보성 안규홍·박제현 가옥	An Gyu-hong and Bak Je-hyeon's House, Boseong

연번	등록번호	국문명칭	영문명칭
117	제700호	곡성 성륜사 안심당·육화당	Ansimdang and Yukhwadang Halls of Seongnyunsa Temple, Gokseong
118	제701호	원주 기독교 의료 선교 사택	Residence of Christian Medical Missionaries, Wonju
119	제702호	원주 육민관고등학교 창육관	Changyukgwan Hall of Yukminkwan High School, Wonju
120	제703호	원주 제1야전군사령부 구 청사	Former Headquarters Building of the First Republic of Korea Army, Wonju
121	제704호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Modern Korean-style House in Dongmun-ri, Taean
122	제705호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제대 및 세례대	Altar Stone And Baptistry of the Ganghwa Anglican Church
123	제706호	문경 가은양조장	Gaeun Brewery, Mungyeong
124	제707호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	Former Mokpo Factory of Chosun Refractories Chemical Industry
125	제708호	용인 고초골 공소	Gochogol Chapel, Yongin
126	제709호	구 안성군청	Former Anseong-gun Office
127	제710호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	Document of the Provis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128	제711호	조일관계사료집	Collection of Historical Materials Related to Joseon-Japan Relations
129	제712호	윤동주 친필원고	Handwritten Manuscript by Yun Dong-ju
130	제713호	이육사 친필원고 '편복'	Handwritten Manuscript of Pyeonbok (Chiroptera) by Yi Yuk-sa
131	제714호	장효근 일기	Jang Hyo-geun ilgi (Diary of Jang Hyo-geun)
132	제715호	부산 우암동 소막마을 주택	House in Somak Village of Uam-dong, Busan
133	제716호	제주 4.3 수악주둔소	Suak April 3rd Military Garrison, Jeju
134	제717호	운강선생유고 및 부록	Ungang seonsaeng yugo (Posthumous Works of Yi Gang-nyeon) and Addenda
135	제718호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Modern History and Culture District, Mokpo
136	제718-1호	목포 변화로 일본식가옥-1	Japanese-style House No. 1 of Beonhwa-ro, Mokpo
137	제718-2호	목포 변화로 일본식가옥-2	Japanese-style House No. 2 of Beonhwa-ro, Mokpo
138	제718-3호	목포 변화로 일본식가옥-3	Japanese-style House No. 3 of Beonhwa-ro, Mokpo
139	제718-4호	목포 영산로 일본식 가옥	Japanese-style House of Yeongsan-ro, Mokpo
140	제718-5호	구 목포부립병원 관사	Former House for the Director of Mokpo Prefectural Hospital
141	제718-6호	구 목포 일본기독교회	Former Japanese Christian Church
142	제718-7호	목포 변화로 일본식 상가주택-1	Japanese-style Commercial Residential Building No. 1 of Beonhwa-ro, Mokpo
143	제718-8호	목포 해안로 일본식 상가주택	Japanese-style Commercial Residential Building of Haeon-ro, Mokpo
144	제718-9호	목포 해안로 교차로 상가주택	Commercial Residential Building of Haeon-ro Intersection, Mokpo
145	제718-10호	목포 부두 근대상가주택	Modern Commercial Residential Building at the Port, Mokpo
146	제718-11호	구 동아부인상회 목포지점	Former Donga Women's Trading Company, Mokpo Branch



연번	등록번호	국문명칭	영문명칭
147	제718-12호	목포 변화로 일본식 상가주택-2	Japanese-style Commercial Residential Building No. 2 of Beonhwa-ro, Mokpo
148	제718-13호	목포 변화로 일본식 상가주택-3	Japanese-style Commercial Residential Building No. 3 of Beonhwa-ro, Mokpo
149	제718-14호	목포 해안로 붉은 벽돌창고	Red Brick Storehouse of Haean-ro, Mokpo
150	제718-15호	구 목포화신 연쇄점	Former Hwasin Department Store, Mokpo Branch
151	제719호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History and Culture District of Naehang Port, Gunsan
152	제719-1호	군산 내항 뜬다리 부두(부잔교)	Floating Pier of Naehang Port, Gunsan
153	제719-2호	군산 내항 호안시설	Shore Protection Facilities of Naehang Port, Gunsan
154	제719-3호	군산 내항 철도	Railway of Naehang Port, Gunsan
155	제719-4호	군산 구 제일사료주식회사 공장	Former Jeil Feed Corporation Factory, Gunsan
156	제719-5호	군산 경기화학약품상사 저장탱크	Kyung Ki Chemical Storage Tank, Gunsan
157	제720호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Modern History and Culture Street, Yeongju
158	제720-1호	구 영주역 5호 관사	Former Official Residence No. 5 of Yeongju Station
159	제720-2호	구 영주역 7호 관사	Former Official Residence No. 7 of Yeongju Station
160	제720-3호	영주 영주동 근대한옥	Modern Korean-style House in Yeongju-dong, Yeongju
161	제720-4호	영주 영광이발관	Yeonggwang Barber Shop, Yeongju
162	제720-5호	영주 풍국정미소	Pungguk Rice Mill, Yeongju
163	제720-6호	영주 제일교회	Yeongju First Church
164	제721호	도산 안창호 일기	An Chang-ho ilgi (Diary of An Chang-ho)
165	제722호	관동창의록(關東倡義錄)	Gwandong changuirok (Righteous Army Activities in Gangwon-do Province)
166	제723호	군산 빈해원	Binhaewon Restaurant, Gunsan
167	제724호	군산 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	Former South Joseon Electrical Corporation, Gunsan
168	제725호	군산 구 조선운송주식회사 사택	Former Employee Housing of Joseon Transportation Corporation, Gunsan
169	제726호	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관사	Former Official Residence of the Jeonju District Court, Gunsan Branch
170	제727호	칠곡 왜관성당	Waegwan Catholic Church, Chilgok
171	제728호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구 본관	Former Main Building of the School of Medicine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172	제729호	파주 구 교하면사무소	Former Gyoha-myeon Office, Paju
173	제730호	일제 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	Main Surveillance Target Profile Cards by the Japanese Colonial Police
174	제731호	완도 소안면 구 당사도 등대	Former Dangsado Island Lighthouse in Soan-myeon, Wando
175	제732호	윤봉춘 일기	Yun Bong-chun ilgi (Diary of Yun Bong-chun)

연번	등록번호	국문명칭	영문명칭
176	제733호	도화임본	Dohwa imbon (Drawing Textbook)
177	제734호	통영 황리공소	Hwangni Chapel, Tongyeong
178	제735호	서울 동국대학교 구 본관(석조관)	Former Main Building of Dongguk University (Seokjogwan Hall), Seoul
179	제736호	대전 충남대학교 구 문리과대학	Former School of Liberal Arts and Sciences a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180	제737호	지청천 일기	Ji Cheong-cheon ilgi (Diary of Ji Cheong-cheon)
181	제738호	이육사 친필원고 '바다의 마음'	Handwritten Manuscript of Badaui maeum (Heart of the Sea) by Yi Yuk-sa
182	제739호	광양 구 진월면사무소	Former Jinwol-myeon Office, Gwangyang
183	제740호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Draft of the Charter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84	제741호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	Main Building of Kyung Hee University, Seoul
185	제742호	인제성당	Inje Catholic Church
186	제743호	구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춘천수련소	Sisters of Our Lady of Perpetual Help, Former Chuncheon Novitiate House
187	제744호	서울 구 공군사관학교 교회	Former Church of the Korea Air Force Academy, Seoul
188	제745-1호	이봉창 의사 선서문	Written Oath by Yi Bong-chang
189	제745-2호	이봉창 의사 친필 편지, 봉투 및 의거자금 송금증서	Handwritten Letters, Envelope, and Patriotic Funds Remission Certificate by Yi Bong-chang
190	제746호	매천 황현 매천야록	Maecheon yarok (Unofficial Records by Hwang Hyeon)
191	제747호	매천 황현 오하기문	Oha gimun (Unofficial Historical Records Under the Paulownia Tree) by Hwang Hyeon
192	제748호	매천 황현 절명시첩	Jeolmyeongsicheop (Death Poems) by Hwang Hyeon
193	제749-1호	매천 황현 시·문(7책)	Poetry and Writings by Hwang Hyeon
194	제749-2호	매천 황현 유묵·자료첩(11책)	Calligraphy and Materials Collection Related to Hwang Hyeon
195	제749-3호	매천 황현 교지·시권(2점)·백패통	Royal Edict, State Examination Paper, and White Certificate Storage Case Related to Hwang Hyeon
196	제750호	윤희순 의병가사집	Uibyeong gasajip (Lyrics of Righteous Army) by Yun Hui-sun
197	제751호	서울 한양대학교 구 본관	Former Main Building of Hanyang University, Seoul
198	제752호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	Northernmost Guard Post in DMZ, Goseong
199	제753호	부산 구 동래역사	Former Dongnae Station Building, Busan
200	제754호	세종 구 산일제사 공장	Former Sanil Silk Reeling Factory, Sejong
201	제755호	대한민국 임시정부 환국기념 23인 필묵	Pen and Ink Document by 23 Signers in Commemora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s Return to Korea
202	제756호	이자해자전 초고본	Draft of Yi Ja-hae's Autobiography
203	제757호	한국독립운동사략(상편)	Hanguk dongnip undong saryak (Condensed History of Korea's Independence Movement), Volume 1
204	제758호	익산 구 이리농림고등학교 본관	Former Main Building of Iri Agriculture and Forestry High School, Iksan